

보험동향 2015년 가을호

Ⅰ 총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Ⅰ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김석영 (연구위원) 세계경제 이아름 (연구원) 국내경제 채원영 (연구원) 금융경제 이해랑 (연구원)
Ⅰ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총괄 김석영 (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진억 (수석담당역) 이해랑 (연구원) 손해보험 최 원 (선임연구위원) 채원영 (연구원)
Ⅰ 해외보험시장 동향	미 국 이해랑 (연구원) 영 국 김진억 (수석담당역) 일 본 이아름 (연구원) 중 국 이소양 (연구원)

■ 목차

I. 테마진단

보험수요와 행태경제학 / 1

독일의 공·사 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 20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39

2. 국내경제 / 57

3. 금융경제 / 70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76

2. 생명보험 / 79

3. 손해보험 / 92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 / 113

2. 영국 동향 / 121

3. 일본 동향 / 130

4. 중국 동향 / 138

부 록 I. 통계표 / 147

부 록 II.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154

I. 테마진단

◆ 보험수요와 행태경제학

변혜원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행태경제학

전통적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경제주체는 이성적이며 심리적, 감정적 요소를 배제한 채,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함. 그러나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성적 경제주체가 취할 행동에서 벗어난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행태경제학은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감정적 요소들이 경제주체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

- 전통적 경제학 모형에서 가정하는 경제주체(Homo Economicus)는 철저하게 이성적이며, 주어진 정보에 기초하여 감정이나 심리적 요소를 배제하고 자신의 선택이나 결정을 최적화하는 존재임.¹⁾
- 그러나 현실에서 사람들(Humans)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전통적 경제학 모형에서 예측하는 행동과는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관찰됨.
-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감정적 요소들이 경제주체의 결정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라는 분야가 생겨났으며, 전통적 경제학과 실제 현상 간의 괴리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옴.

1) 대표적인 행태경제학자인 Richard Thaler(1945~)는 한 인터뷰에서 전통적 경제학 모형에서 가정하는 경제주체를 Star Trek에 등장하는 Mr. Spock로 비유한 바 있음. Mr. Spock은 Vulcan행성인과 인간의 혼혈로 감정을 절제하고 항상 이성적으로만 행동하는 극중 인물임.

- 197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Herbert Simon(1916~2001)은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였음.²⁾
- 이후 이스라엘 심리학자들인 Daniel Kahneman³⁾과 Amos Tversky의 연구를 시작으로 심리적 요소를 가지고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함.

■ 본고는 보험수요에서 나타나는 이상현상, 다시 말해서 전통경제학이 예상하는 결과를 벗어나는 수요행태를 설명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사회후생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태변화 유도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함.

■ 먼저, 전통적 경제학 모형에서 사용하는 기대효용가설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대효용가설은 경제주체는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임.⁴⁾

- 다시 말해서, Homo Economicus는 t 시점에 세상이 처한 상황인 s_t 가 발생할 확률인 $p(s_t)$ 에 기초하여 자신의 기대효용함수를 극대화함.

- 여기서 x_i^t 는 경제주체 i 가 t 시점에 얻는 보수를 표시하며, $U(\cdot)$ 와 δ 는 각각 효용 함수와 시간할인율을 의미함.

$$\max_{x_i^t \in X_i} \sum_{t=0}^{\infty} \delta^t \sum_{s_t \in S_t} p(s_t) U(x_i^t | s_t) \quad (1)$$

■ DellaVigna(2009)는 경제학 기본모형에서 벗어난 행태들을 크게 선호, 신념, 의사결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류하고, 동 분류에 따라 행태경제학 분야의 실증분석들을 정리함.

■ 경제학의 표준에서 벗어난 선호(Nonstandard Preferences)로 분류할 수 있는 현상으로는 자제력 부족 문제(Self-control Problem), 준거점 의존성, 사회적 선호 등을 들 수 있음.

2) Herbert Simon은 인지심리학, 인지과학, 컴퓨터공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정치학을 아우르는 분야의 연구를 했으며, 자신을 의사결정(Decision-making)에 대한 편집광(Monomaniac)이라고 표현한 바 있음.

3) Daniel Kahneman(1984~)은 심리학적 연구, 특히 불확실성하에서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로부터의 통찰력을 경제학에 접목한 공로로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음. Amos Tversky(1937~1996)는 1996년에 작고함.

4) DellaVigna(2009)를 참조.

- 경제학의 기본모형은 어느 시점에서 효용이 평가되는지와 상관없이 시간할인율, 즉 (1)식에서 δ 가 일정하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자제력 부족현상의 경우와 같이 δ 가 변하는 현상을 자주 관찰할 수 있음.
- 다음으로 기대효용함수를 계산할 때, 절대적인 효용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비교한 상대적인 효용을 사용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는데, (1)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U(x_i|s)$ 가 아니라 $U(x_i|s, r)$ 이라는 것임(여기서 r 은 기준점).
- 또한 기본모형은 경제주체는 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이타심, 공정성, 상부상조(Reciprocity), 불평등에 대한 기피 등과 같은 사회적 선호를 나타내기도 함($U(x_i, x_{-i}|s)$, 여기서 x_{-i} 는 타인의 보수).

〈표 1〉 전통적 경제학모형 표준에서 벗어난 행태: DellaVigna(2009)의 분류

구분	사례
전통적 경제학 표준에서 벗어난 선호 (Nonstandard Preferences)	자제력 부족 문제(Self-control Problem), 준거점 의존성, 사회적 선호
전통적 경제학 표준에서 벗어난 신념 (Nonstandard Beliefs)	과신, 소수의 법칙(Law of Small Numbers), 추정편이(Projection Bias)
전통적 경제학 표준에서 벗어난 의사결정 (Nonstandard Decision Making)	틀짜기(Framing) 효과, 제한적인 주의집중(Limited Attention), 메뉴효과, 설득 및 사회적 압박, 감정의 개입

■ 다음으로 과신, 소수의 법칙(Law of Small Numbers), 추정편이(Projection Bias) 등은 전통적 경제학의 표준에서 벗어난 신념(Nonstandard Beliefs)으로 분류될 수 있음.

- (1)식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전통적 경제학 표준에서 벗어난 신념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건발생확률과 실제발생확률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임($\tilde{p}(s) \neq p(s)$, 여기서 $\tilde{p}(s)$ 는 주관적 확률).
- 과신(Overconfidence)이란 자신들이 가진 정보의 정확성이나, 능력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이름.
- 한편 사람들은 적은 수의 표본이 많은 수의 표본이 가지는 통계적 특성을 가진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복권에서 도박사의 오류(Gambler's Fallacy)⁵⁾나 과거 주

5) 도박사의 오류란,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평균의 법칙에 따라 그 사건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믿는 오류를 말함.

식수익률로부터 과도하게 추론하는 현상(Overinference)이 이에 해당됨.

- 또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 선호가 현재 선호와 매우 비슷할 것이라고 믿는 추정편이를 보이기도 함.

■ 경제학의 표준에서 벗어난 의사결정(Nonstandard Decision Making)의 행태에는 틀짜기(Framing) 효과, 제한적인 주의집중(Limited Attention), 메뉴효과, 설득 및 사회적 압박, 감정의 개입 등이 있음.

- 개인들은 주어진 효용함수와 신념하에서 복잡한 극대화문제인 (1)식을 푸는 대신, 나름대로의 단순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최적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함.⁶⁾
- 사람들은 문제가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의사결정을 달리 하기도 하고(틀짜기 효과), 문제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덜 핵심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제한적인 주의집중).
- 사람들은 많은 메뉴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어림법을 사용함.
 - 소비자의 투자행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자산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때 모두 같은 비율로 배분하거나, 익숙한 옵션을 선택하는 행태가 이에 해당됨.
 - 복잡한 포트폴리오 결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눈에 띄는 정보만을 가지고 결정하기도 하며, 선택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있음.
- Homo Economist는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제공자의 유인을 고려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정보제공자의 유인이 자신의 효용에 상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함.
 - 또한 의사결정이 관습에 순응하거나, 사회적 압박에 영향을 받기도 함.
- 이 밖에도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함.⁷⁾

■ 한편 위험이 존재할 때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새롭게 모형화한 Kahneman과 Tversky의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소비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험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6) 이찬희(2014)는 보험시장의 맥락에서 어림법(Heuristics)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7) 보험시장에서의 사례로서 <참고 1>을 참조.

- 1979년 *Econometrica*에 출간된 이들의 논문은 실험 상황에서 사람들은 기대효용이론에 근거한 행태를 보이지 않는 예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함.
- 전망이론의 주요 내용은 사람들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설명하는 가치함수(Value Function)와 사람들이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묘사하는 확률가중함수(Probability Weighting Function)라고 할 수 있음.⁸⁾

■ 전망이론에서 설명하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행태는 크게 준거점 의존성(Reference Dependence), 손실 회피성(Loss Aversion), 민감도 체감성(Diminishing Sensitivity), 확률가중성(Probability Weighting)이라는 특성을 가짐.

- 사람들은 절대적인 부의 수준보다는 특정 기준점에서 측정한 상대적 이득이나 손실로부터 효용을 계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준거점 의존성이라고 함.
 - 이는 인간의 인지체계 특성에 기인하는데, 사람들은 밝기, 온도 등을 지각할 때에도 절대적 수준을 판단한다기보다는 자신이 있었던 상태에서의 변화를 지각함.
-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한 경향을 보이는 손실 회피성을 보임.
 - 예를 들어, 4천만 원과 4천 5백만 원의 연봉 제안은 현재 연봉이 3천 5백만 원인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이득의 비교가 되겠지만,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에게는 두 가지 손실을 비교하는 것이 될 것임.⁹⁾
 - 사람들은 이득보다는 손실을 더 크게 느끼므로, 낮은 연봉 제안을 선택하는 경우 연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임.
- 민감도 체감성이란 가치함수가 이득을 보는 구간에서는 오목(Concave)하고, 손실을 보는 구간에서는 볼록(Convex)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임.
 - 어떤 개인이 민감도 체감성을 가질 경우, 10만 원의 이득을 20만 원의 이득으로 바꾸는 것은 효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100만 원의 이득을 110만 원의 이득으로 바꾸는 것은 그보다 적은 영향을 미치게 됨.
 - 이득을 보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확률적 이득에 대해 위험회피적이 되는 반면, 손실에 대해서는 위험추구형이 됨(<그림 1>의 왼쪽 그래프를 참조).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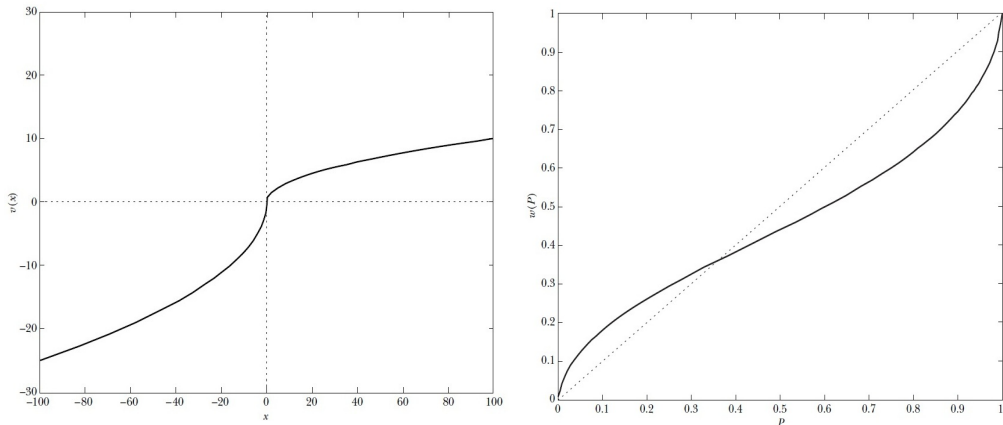
8) Barseghyan et al.(2013)을 참조.

9) Kahneman and Tversky eds.(2009)를 참조.

10)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50만 원의 확실한 이득을 50% 확률의 100만 원 이득보다 선호하는 반면, 50% 확률의 100만 원 손실을 50만 원의 확실한 손실보다 선호함.

- 확률 가중성이란 결과를 객관적인 확률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변환된 확률을 가지고 계산하는 특성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낮은 확률에 과중한 가중치를 두고 높은 확률에 가벼운 가중치를 두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임(〈그림 1〉의 오른쪽 그래프를 참조).

〈그림 1〉 가치함수와 확률가중함수의 예



주: 1) 왼쪽 그래프에서 x 는 금전적 이득이나 손실을, $v(x)$ 는 가치함수를 의미함.

2) 오른쪽 그래프에서 P 는 객관적인 확률을, $w(P)$ 는 확률가중함수를 의미함. 실선은 실험에서 추정된 선이며, 점선은 개인이 객관적인 확률을 사용할 경우를 나타냄.

자료: 1) 원자료: Tversky and Kahneman(1992).

2) Barberis(2013)에서 재인용.

2. 보험시장에서 나타나는 이상현상(Anomalies)

보험수요에서도 전통적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이성적 의사결정을 벗어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적절한 보험료하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과도한 보험료하에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보장 수준을 선택하기도 함. 이러한 현상은 전망이론의 준거점 의존성, 손실 회피성, 민감도 체감성, 확률 가중성이나 미루는 성향, 과신, 어림법 등과 같은 다른 인지편향, 감정의 개입 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음.

- 보험시장에서도 고전적인 경제학 모형에서 사용하는 기대효용가설이 예측하는 결과와 어긋나는 수요행태를 관찰할 수 있음.

■ 보험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경우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망이론이나 인지편향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은 특히 자연재해보험과 같이 낮은 확률로 발생하지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시장에서 자주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화재보험 가입건수 중 약 0.44%만이 풍수재 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2013년 기준).¹¹⁾

○ 소비자들을 확실한 보험료 지불 상황과 불확실한 보험금 수령 상황을 비교하면서, 확실한 손실인 보험료 지불을 피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 올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임.

○ 이 밖에도 미루는 성향, 현상유지 편향, 과신 등 사람들의 인지편향을 이용하여 설명이 가능함.

■ 한편,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재해발생 후에 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재해발생이 미래의 재해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고려하면 이는 기대효용가설에서 벗어나는 행태임.

○ 이러한 현상은 재해발생 이후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나, 지진보험과 같이 지진발생 후 오히려 발생확률이 낮아질 수 있는 경우에도 관찰됨.

○ 동 현상은 사건발생 이후 해당 사건발생 확률을 과대평가하는 가용성 편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구입한다거나, 기대효용극대화 이외에 감정이 개입된다는 증거를 제시한 연구도 있음(참고 1).

11)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2015. 1)을 참조.

〈표 2〉 소비자의 주요 행태경제학적 특성(인지편향)

인지편향	내용
미루는 성향 (Procrastination)	시급한 행동보다 덜 시급한 일을 하거나,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여 압박한 일을 나중에 미루는 행동
현상유지 편향 (Status Quo Bias)	현재 상태와 유사한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경향
비일관적 시간선호 (Time-inconsistent Preferences, Hyperbolic Discounting, Myopia)	미래에 받는 보수에 비해 더 즉각적인 보수에 대해 강한 선호를 가지는 경향, 이 경향은 두 보수 지급의 시점이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더 강해짐.
틀짜기 효과 (Framing Effect)	정보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 제공되었느냐에 따라 같은 정보를 통해 결론이 달라지는 현상
심적 회계 (Mental Accounting)	암묵적으로 돈을 심리적 계정에 배분하고 그 안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경향
좁은 틀짜기 효과 (Narrow Framing)	자신의 총 부(Wealth)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단기 결과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
과신 (Overconfidence)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만족스러운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과대평가하는 경향
위험지각 오류 (Risk Perception)	해당 사건의 확률이 특정 임계치보다 낮아지면, 그 사건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현상
가용성 편향 (Availability Bias/Salience)	잘 기억해 낼 수 있는 사건의 발생확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하며, 얼마나 최근 기억인지와 얼마나 특이하고 감정이 개입되었는가에 영향을 받음.
쏠림현상 및 사회적 규범 (Herding, Social Norms)	탐색비용과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나 비슷한 집단 구성원의 결정을 모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
어림법 (Heuristics)	문제해결 과정에서 어림 감정이나 상식 등과 같은 경험에 기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

자료: Sigma(2013).

참고 1 ▶ 빈도는 낮지만 심도가 큰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가입: 감정의 개입

- Kunreuther and Pauly(2015)는 낮은 확률이지만 높은 손실을 초래하는 사건인 허리케인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가입 관련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이 보험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실험은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1,346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웹기반으로 설계된 플랫폼을 사용해 실시되었음.
 - 10 기간 게임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는 10만 달러 가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가정함.
 - 각 기간마다 허리케인이 발생할 가능성(매기 4%)이 있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하면, 주택은 5만 달러의 손실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가정함.
 - 보험가입 의사결정 후 해당 기간에 허리케인 발생여부를 알려주고,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느낌을 질의함.
- 상당수의 보험 비가입자가 손실을 경험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 경우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음.
 - 6%의 대상자는 적정하거나 유리한 보험료하에서 모든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은 기대효용가설의 예측에 부응하지 않는 행태를 보임.
 - 대상자 중 31%는 적어도 한번은 보험가입 상태를 바꾸어서, 이들 또한 기대효용 모형에 부응하지 않았음.
- 저자들은 동 결과를 보험 비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설득하는 데에 있어서 손실과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함.

■ 소비자들은 보험에 가입한 후 몇 년 동안 손실을 겪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보조받거나, 사고에 따른 잠재적 손실이 그들의 부보다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도 일어남.

- 소비자가 보험을 재무적 손실에 대한 헤지(Hedge)수단이 아닌 단기 투자로 여기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데, 몇 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를 허비했다고 생각하고, 해약을 한다는 것임.
- 소비자들이 최근 사건발생을 바탕으로 사건발생확률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음(가용성 편향).
 - 홍수보험을 예로 들면, 홍수발생 확률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그동안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제는 발생확률이 낮아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이상 홍수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

■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낮은 자기부담금 옵션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동 현상은 실증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보험수요의 이상현상 중 하나임.

- 재산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을 높게 선택하는 대신 보험료가 낮은 옵션을 제공함.
- 소비자가 극단적으로 위험회피적이 아닌 한 자기부담금(Deductible) 수준을 높이는 것이 경제적 이득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은 보험을 구입할 때 낮은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선택함.
- 기존 연구들은 확률가중에 의한 확률왜곡현상, 준거점 의존성 등을 가지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음.¹²⁾

12) Sydnor(2010)는 주택보험 데이터를, Barseghyan et al.(2013)은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가계의 자기부담금 선택결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Barseghyan et al.(2013)은 가계의 보험선택결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확률왜곡을 발견함.

참고 2 ▶ 높은 자기부담금 선택 현상: 실증분석

- Sydnor(2010)는 주택보험가입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자의 자기부담금 선택결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가계는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네 가지의 자기부담금상한액 옵션(\$100, \$350, \$500, \$1,000) 중 하나를 선택하였음.
 - 82.7%의 가구가 \$350과 \$500 자기부담금을 선택하였으며, \$1,000 자기부담금을 선택한 가구는 17%에 불과했음.
- 상당수의 가계들이 기대가치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기부담금상한액을 선택함.
 - \$500과 \$1,000의 자기부담금상한액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구는 보험료로 연평균 \$715와 \$615를 각각 지불하였음.
 - \$500 옵션을 선택한 가구의 평균 보험금청구율은 4.3%였으므로, \$1,000 옵션과 비교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대가치는 \$21.50일 것임.
 - 4.3%의 확률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가 모두 \$1,000이 넘는다고 가정하면 \$500 옵션을 사용할 경우와 비교하여 $4.3\% \times (1000 - 500) = \21.50 만큼 이익일 것임.
 - 따라서 최대 \$21.50만큼의 기대혜택을 위해 \$100의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셈이 됨.
- 동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몇 가지 가설들을 검토하였는데, 전망이론의 확률가중과 Köszegi and Rabin(2007)이 제시한 준거점 의존성이 비교적 가장 설득력 있다고 설명함.
 - 확률가중의 경우, 사고가 발생해서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에 대한 확률에 과도한 가중치를 둬므로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임.
 - Köszegi and Rabin(2007)은 구입 시에 포기하는 돈에 대한 느낌과 갑작스러운 손실에 대한 태도는 다르다고 설명함.
 - 사람들은 거래 시에 포기하는 돈은 비용이므로 손실로부터 오는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회피는 사고발생 시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만,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임.

- 한편 은퇴시점에서 사람들은 매우 적은 부분의 부를 연금상품에 배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¹³⁾ Hu and Scott(2007)은 연금상품이 왜 인기가 없는지를 전망이론을 가지고 설명함.
 - 사람들은 연금상품을 사망 전까지 받는 연금수령액의 현재가치에서 연금상품을 위해 지불한 연금보험료를 뺀 것을 보수로 주는 일종의 도박(Gamble)으로 인식함.
 - 손실회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은 장수했을 때 얻는 잠재적 혜택보다는 일찍 사망하였을 때 감수해야 할 잠재적 손실에 대해 더 민감하기 때문에 연금상품을 그다지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임.
 - 또는 사람들은 근시안적 판단에 기초하여 몇 년 후 돌아올 기대수익보다 선지급 비용을 훨씬 높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하기도 함.¹⁴⁾
- 또한 사람들은 비일관적 시간선호, 미루는 성향 등으로 인해 은퇴계획 자체를 미루는 행태를 보이기도 함.

3. 보험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요 이상현상을 다루기 위한 방안

보험수요에서 나타는 이상현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확한 정보제공, 비교 등을 통한 인지편향 경감, 선택의 재구성, 소비자의 심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상품설계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상품을 소개하는 방법이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기대효용가설이 예측하는 행동에서 어긋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편향을 바로잡을 수 있음.
 - 보험상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 소비자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위험지각 오류, 가용성 편향, 과신현상 등을 고려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홈페이지¹⁵⁾를 통한 정보전달을 통해 소비

13) 전통적 경제학 모형이 예측하는 비율보다 훨씬 적은 비율을 연금상품에 배분하는 현상을 연금퍼즐(Annuitization Puzzle)이라고 부름.

14) Kunreuther et al.(2013)을 참조.

15)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자의 편향현상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구체적인 비교를 사용한 확률 및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위험발생 확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소비자들은 낮은 발생확률을 가진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어려워하므로, 보험상품이 보장하는 사고발생의 확률과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는 위험들과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데에 효과적일 것임.¹⁶⁾

○ Kunreuther et al.(2001)도 위험을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이 소비자의 위험평가를 돕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함.

■ 긴 기간을 사용하여 사건발생 확률을 설명함으로써 소비자가 손실확률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1년에 4%의 확률로 일어나는 손실은 10년 동안 한번 내지 한번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1/3이라고 해석 가능함.

○ 상품을 설명함에 있어서 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위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국내 풍수해보험이나 풍수재 특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비자가 관련 위험을 간과하지 않도록 사건발생 확률이나 피해규모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의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기간을 연장하여 설명하는 방법(Long-term Framing)은 보험상품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소비자들을 오해하게 할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해야 함.

■ Kunreuther et al.(2013)은 낮은 자기부담금 옵션을 선택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나 기본옵션을 이용한 행동변화 방법을 제안함.

○ 소비자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보험료에 비해 낮은 자기부담금의 기대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16) 예를 들어, 사람들은 백만분의 일의 확률을 가진 위험을 평가하기 어려움. 그러나 동 위험을 20분의 1의 확률을 가진 자동차 사고발생위험과 10억 분의 일보다 낮은 확률을 가진 생일날 집에서 벼락에 맞을 위험을 함께 제시할 경우, 위에서 제시한 위험빈도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보험이해력 제고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차보험과 같이 자기부담금 옵션을 선택하여야 하는 상품에 대한 확인사항의 하나로써 자기부담금 선택을 위한 도움말을 제공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상품판매 단계에서 최근 사건발생확률을 바탕으로 여러 자기부담금 옵션의 기대이익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소비자가 적절한 자기부담금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또는 높은 자기부담금을 기본옵션으로 한 상품설계를 통해 소비자의 낮은 자기부담금선택 행태를 변화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¹⁷⁾

■ 소비자들의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특성이나 자신의 판단에 대한 과신경향은 은퇴계획 또는 은퇴저축 부족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자신이 가진 편향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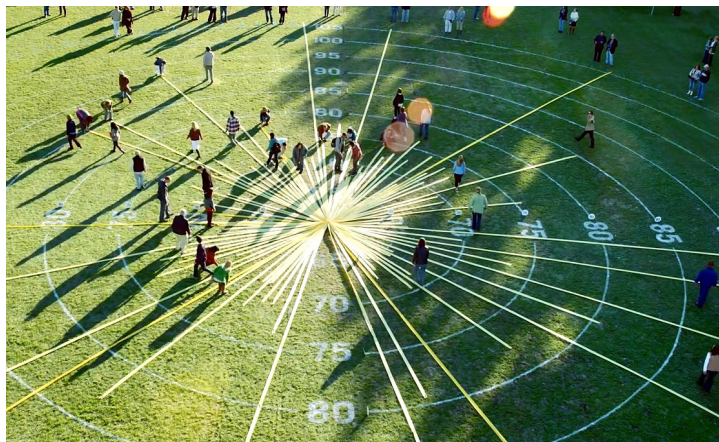
- 은퇴교육 프로그램 시작 전에 짧은 퀴즈를 치르게 하는 방법이나, 푸르텐설의 사례처럼 간단한 실험 참여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진 전망편이(Prospect Biases)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음.

17) Sigma(2013)는 사람들의 현상유지 편향을 이용하여 단체보험 등에서 퇴직을 위한 저축, 보험가입을 기본옵션으로 하는 선택적 탈퇴(Opt-out) 방식으로 설계하여 은퇴대비 저축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함.

참고 3 푸르덴셜의 사례: 정보제공을 통한 인지편향 경감

- 최근 미국 푸르덴셜(Prudential Insurance)의 텔레비전 광고는 소비자들의 전망편이(Prospect Biases)를 바로잡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하고 이 내용을 광고에 담음.
 -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Daniel Gilbert 교수가 동 광고에 참여하였으며, 광고 중에 사람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설명함.
 - “은퇴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한 후, 소비자가 예상치를 적고 그 예상치에 따라 리본을 자르도록 함.
 - 예상한 금액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나이가 표시되어 있는 잔디밭에 예상한 금액에 따라 잘라서 준비한 리본을 펼쳐서 눈으로 확인하도록 함.
 -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돈이 자신이 예상하는 수명에 턱없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짧은 인터뷰를 보여준 후, 은퇴소득을 함께 준비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푸르덴셜 로고를 보여줌으로 광고를 마침.
- 동 광고는 사람들이 가진 과신이나 비일관적 시간선호 등에 대해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함.

〈그림 1〉 푸르덴셜 광고: 은퇴계획 관련 실험



주: 바닥에 쓰여진 숫자는 연령을 의미하며, 바닥에 펼쳐진 리본은 실험참여자들이 은퇴 이후를 위해 은퇴시점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소진될 연령을 표시함.

■ 상품설계를 통해서도 좁은 틀짜기 효과(Narrow Framing)나 미루는 성향, 비일관적 시간 선호 등과 같은 인지편향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왜곡을 경감시킬 수 있는데, 미국 401(k) Plan에 도입된 Save More Tomorrow Plan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¹⁸⁾

- 동 프로그램은 퇴직저축에 입금하는 미래 급여의 비율을 미리 공언(Commitment)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소비자의 행태경제학적 특성을 사용하여 은퇴저축을 늘리도록 하는 상품설계임.
 - 소비자의 인지편향을 바꾸기보다는 소비자의 행태학적 특성을 사용하여 목적하는 결과인 은퇴저축 증가를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유사한 맥락에서 Sigma(2013)는 출산, 주택구입, 이직 등과 같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미리 정해놓은 계약에 따라 자동으로 보장수준이 높아지거나, 새로운 보장을 더 하도록 설계된 상품 개발을 제안함.
- 보험회사는 장기보험상품 설계에 있어서 소비자의 비일관적 시간선호, 미루는 성향, 현상유지 편향을 고려한 상품설계 방안을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에도 퇴직연금상품 운용에 있어서 미리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자동재배분 하도록 하는 상품이 존재함.

18) 동 프로그램은 Thaler에 의해 제안으로 401(k) plan에 도입되었는데, Thaler and Sunstein(2008)은 개인들이 선택의 자유를 가진 상태에서 개인의 인지편향을 최소화하여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선택설계(Choice Architecture)라는 단어를 만들어냄.

〈표 3〉 보험수요의 이상현상과 해결방안

구분	원인	해결방안
보험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상품의 수요가 적은 현상	과신, 위험지각 오류, 가용성 편향	정확한 정보 제공, 과거 사건의 발생확률에 대한 정확한 제시, 긴 기간을 사용하여 사건발생 확률 설명, 시뮬레이션(확률, 피해규모) 확률 및 결과의 비교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재해발생 후 보험에 가입하는 현상	소수의 법칙, 가용성 편향, 감정의 개입	
보험가입 후 몇 년 동안 손실을 겪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현상	소수의 법칙, 가용성 편향	
낮은 자기부담금에 대한 지나친 선호현상(또는 높은 자기부담금에 대한 지나친 기피현상)	확률가중, 준거점 의존성	최근 보험금청구확률(사건발생확률)과 피해규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기본옵션을 높은 자기부담금으로 설계
은퇴계획 또는 은퇴저축 부족 현상	과신, 비일관적 시간선호, 미루는 성향	정확한 정보 제공, 상품설계를 통한 행동변화 유도(예: Save More Tomorrow Plan)

4. 맺음말

■ 본고는 행태경제학에서 분석된 이상현상(Anomalies)들, 즉 전통적 경제학 모형에서의 괴리현상과 불확실성에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설명한 전망이론을 개관함.

■ 보험시장에서도 전통적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이성적 의사결정을 벗어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음.

- 재해보험시장에서는 가용성 편향, 틀짜기 효과와 같은 인지편향으로 인해 사고발생 확률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결정을 바꾸는 행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미루는 성향, 현상유지 편향 등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함.
- 확률가중현상이나 준거점 의존성은 소비자가 기대가치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낮은 자기부담금 옵션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음.

○ 또한 손실회피나 다른 인지편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기대효용가설이 예상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자산을 연금상품에 배분하기도 함.

■ 소비자의 보험수요에서 나타나는 이상현상을 최소화하여 소비자가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으로 정확한 정보제공, 비교를 통한 설명, 선택의 재구성,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상품설계 등을 살펴 봄.

■ 보험회사는 은퇴를 위한 재무적 준비와 같이 소비자의 후생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인지편향으로 인해 수요가 적은 상품들의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상품개발과 판매방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상품판매와 계약유지단계에서도 소비자의 행태경제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당국이 개입할 경우, 사회후생 개선을 위해 수정이 필요한 편향현상이 무엇인지, 정책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 고 문 헌〉

-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2015. 1), 『2015년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계획』, 국민안전처.
- 오승연(2015. 7. 6), 「행동경제학 개념의 보험 적용사례와 활용 방안」,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이찬희 (2014), 「보험과 추단(Heuristic)」, 『월간생명보험』, October 2014, 생명보험협회.
- Barberis, Nicholas(2013), “Thirty Years of Prospect Theory in Economics: A Review and Assessm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1), pp. 173~196.
- Barseghyan, Levon, Francesca Molinari, Ted O'Donoghue, and Joshua Teitelbaum(2013), “The Nature of Risk Preferences: Evidence from Insurance Choic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6), pp. 2499~2529.
- DellaVigna, Stefano(2009), “Psychology and Economics: Evidence from the Field”,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7(2), pp. 315~372.
- Hu, Wei-Yin and Jason Scott(2007), “Behavioral Obstacles in the Annuity Market”, *Financial Analysts Journal*, 63(6), pp. 71~82.
-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 eds.(2009), *Choices, Values, and Fra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nreuther, Harward and Mark Pauly(2015), “Insurance Decision-Making for Rare Events: the Role of Emotions”, *NBER Working Paper*, 20886.
- Kunreuther, Harward, Nathan Novemsky, and Daniel Kahneman(2001), “Making Low Probabilities Useful”,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23(2), pp. 103~120.
- Kőszegi, Botond and Matthew Rabin(2007), “Reference-dependent Risk Attitudes”, *American Economic Review*, 99(3), pp. 909~936.
- Sigma(2013), Life Insurance: Focusing on the Consumer, No.6/2013.
- Sydnor, Justin(2010), “(Over)insuring Modest Risk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2 (October 2010) pp. 177~199.
- Thaler, Richard and Cass Sunstein(2008),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Yale University Press.

◆ 독일의 공·사 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오승연 연구위원·김미화 연구원

1. 검토 배경

독일의 의무가입형 공·사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제도 체계와 운영 현황 그리고 공·사 역할분담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된 이후 비교적 빠르게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보장성과 서비스 질, 등급산정 체계,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음.

○ 특히, 고령화와 가족의 요양 공급기능 약화로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장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

■ 우리나라 민영 간병보험은 보유계약 건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그 비중이 작아 제대로 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지 못함.

○ 현재 특약 위주의 정액형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는 FY2011년 현재 148만 건, 손해보험사는 FY2012년 기준 77만 건을 보유하고 있음.¹⁹⁾

- 최근 손보사 중심으로 단독상품을 출시하는 등 점진적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임.

■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 고령화가 가장 진전된 사회로 1995년 세계 최초로 장기요양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실행하여 왔음.

■ 공적 장기요양보험대신 대체형 민영 장기요양보험이 국민의 일부를 보장하고 있음.

19) 조용운(2013), 생명보험사의 간병보험 보유계약 건수 비중은 종신보험대비 13%, 손해보험사는 장기손해보험대비 1.8% 수준임.

○ 민영 장기요양보험이 전체 장기요양 지출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높으며,²⁰⁾ 대체형 보험이 전체 민영 장기요양보험의 상당부분을 차지함.

■ 독일은 사회보험 형태의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어 우리와 제도적 유사성이 크므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본 고는 독일의 의무가입형 공·사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제도 체계와 운영 현황 그리고 공·사 역할분담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공·사 장기요양보험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독일과 우리나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보장성, 급여, 재정 측면을 중심으로 비교함.

2.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현황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을 급여 대상으로 하며 재원은 전액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음.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법에 명시된 한도액까지만 보장하는 부분보험으로 등급별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함.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공적 부분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보장하고 사적 부분이 고소득층, 자영업, 공무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사 간에 위험보장을 분담하고 있음.

가. 개요

■ 독일은 인구 고령화, 가족의 장기요양부담 증가, 건강보험(질병금고)의 재정악화 등에 직면하여 1995년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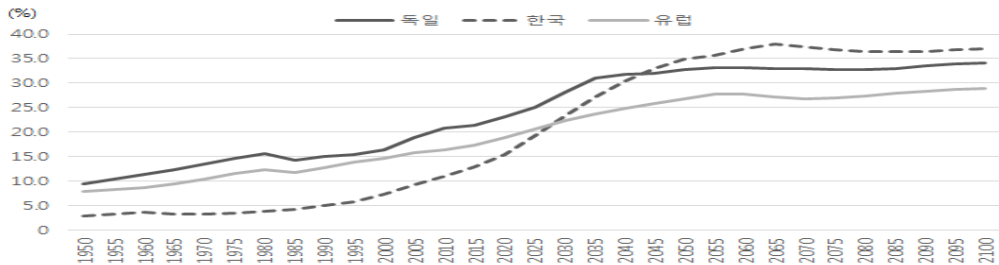
○ 독일은 1932년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

20) OECD(2011).

입하였으며, 1974년 고령사회, 2009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²¹⁾

- 우리나라는 2015년 13.1%이며, 2020년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40년대면 독일의 고령화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됨.

〈그림 1〉 65세 이상 인구 비중



자료: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2 Revision.

■ 장기요양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1970년대부터 20년 이상의 정책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 과정에서 시설과 인력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었음.

○ 제도 도입 이전에는 지방정부와 비영리 민간조직이 빈곤층 대상으로 사회부조 형식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사회보험 방식을 도입함.

■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크게 공적 장기요양보험(Gesetzliche Pflegeversicherung)과 민영 장기요양보험(Private Pflegeversicherung)으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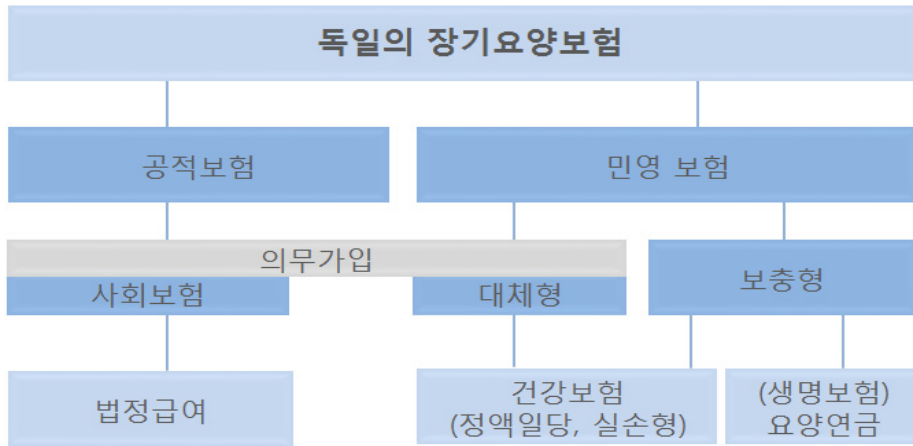
○ 공적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공적 장기요양보험에 자동가입되고, 민영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민영 장기요양보험(Compulsory Private LTCI)에 가입해야 함.

- 독일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는 공적 건강보험 및 공적 장기요양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고소득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공적과 민영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여기에 추가로 공적보험 및 대체형 민영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보장하는 보충형 민영 장기요양보험이 존재함.

21) 유엔은 국가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14%, 20% 이상이면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음.

〈그림 2〉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체계



나. 공적 장기요양보험

■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을 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6개월 이상의 타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독일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전액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보험료 납입 대상 및 보험료율은 직업의 형태와 사회보험제도 대상의 종류, 자녀의 여부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짐.

- 보험료는 2008년 장기요양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이 연간 총 소득의 1.7%에서 1.95%로 0.25%p 상향 조정되었음.²²⁾
 - 자녀가 없는 23세 이상 성인은 0.25%의 추가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총 임금의 2.2%를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함.
 - 2010년 소득의 기여한도는 월 3,750유로임.
- 근로자의 경우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22)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실업보험의 보험료율이 0.3%p 인하되었음.

〈표 1〉 공적 장기요양보험료율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1995. 1. 1	1996. 7. 1	2004. 4. 1	2005. 1. 1	2008. 1. 1
보험료율	1.00	1.70	1.70	1.70/1.95 ²⁾	1.95/2.20 ²⁾
근로자 (무자녀 근로자)	0.50 -	0.85 -	0.85 -	0.85 (1.10)	0.975 (1.225)
고용주	0.50	0.85	0.85	0.85	0.98
노령연금 생활자	0.50/0.50 ¹⁾	0.85/0.85 ¹⁾	1.70	1.70	1.95

주: 1) 노령연금보험자의 보험료율.

2) 자녀가 없는 23세 이상 성인의 보험료.

자료: 이용갑(2009) 재구성.

■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급여대상자를 크게 3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외 일상생활 수행상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0등급으로 추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독일은 장기요양의 필요성을 네 가지 영역(신체청결, 영양, 이동, 가사관리)으로 범주화함.

○ 수발이 필요한 일상생활활동의 종류, 수발빈도, 수발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발 시간량으로 환산하여 3개 요양등급으로 판정함.²³⁾

■ 요양등급별 수급자를 보면, 시설과 재가 모두에서 경중인 1등급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09~2012년 사이 유일하게 비중이 증가하였음.

〈표 2〉 공적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

(단위: 명, %)

구분		2009		2012	
재가	1등급	932,434	(60.6)	1,043,065	(62.6)
	2등급	466,806	(30.4)	483,159	(29.0)
	3등급	138,334	(9.0)	140,884	(8.5)
	합계	1,537,483	(100.0)	1,667,108	(100.0)
시설	1등급	282,236	(40.5)	313,280	(43.0)
	2등급	277,164	(39.7)	273,733	(37.5)
	3등급	138,247	(19.8)	142,533	(19.5)
	합계	697,647	(100.0)	729,546	(100.0)

주: ()안은 등급별 비중.

자료: German Federal Ministry of Health, Selected Facts and Figure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23) 세부적인 판정 기준은 〈부록〉을 참조.

■ 독일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되며, 급여 형태는 현금, 현금, 혼합급여가 있음.

○ 현금급여는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수발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것임.

- 재가서비스 이용자 중 약 80%가 현금급여를 선택하고 있음(2013년 기준).

■ 독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법에 명시된 한도액까지만 보장하는 부분 보험으로 등급별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함.

○ 독일은 조세 보조 없이 전액 장기요양 사회보험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재가 및 현금 급여사용을 우선시함.

- 시설보다 재가급여의 한도가 낮고, 현금 급여는 현금급여의 절반 수준임.

○ 가족을 통한 장기요양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보조한다는 입장에서 제도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도입 초기 급여수준이 낮은 편이었음.

〈표 3〉 장기요양보험 급여별 한도액(2012년 기준)

(단위: 유로/월)

급여종류		등급	일반수급자	일상생활능력이 상당히 제한된 수급자
재가급여	현금급여 (전액)	0등급	-	120
		1등급	235	305
		2등급	440	525
		3등급	700	700
	현물급여	0등급	-	225
		1등급	450	665
		2등급	1,100	1,250
		3등급	1,550	1,550
		최중증	1,918	1,918
시설급여	1등급	1,023		
	2등급	1,279		
	3등급	1,550		
	최중증	1,918		

자료: BMG(2013), Ratgeber zur Pflege, pp. 32~35.

다. 대체형 민영 장기요양보험(Compulsory Private LTCI)

- 대체형 민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대상은 민영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고소득층, 자영업자 그리고 공무원 등의 특수직역임.
- 대체형 민영보험은 건강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2013년 기준 대체형 민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수는 약 9백 5십만 명이며, 수입보험료는 약 20억 유로임.

〈표 4〉 독일의 민영 간병보험 현황(건강보험사 기준)

(단위: 백만 유로, 천 명)

구분	수입보험료			가입자 수	
	건강보험	보충형	대체형	보충형	대체형
2005	25,480	170	1,868	833	9,164
2006	26,612	205	1,871	989	9,277
2007	27,578	260	1,883	1,174	9,320
2008	28,360	322	1,970	1,316	9,374
2009	29,394	380	2,074	1,501	9,534
2010	31,174	439	2,096	1,700	9,593
2011	32,562	497	2,105	1,880	9,667
2012	33,617	576	2,011	2,187	9,620
2013	33,790	745	2,045	2,716	9,537

자료: GDV, Statistical Yearbook 2014.

-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가 소득기준인 반면, 대체형 민영보험은 연령에 비례하여 정해짐.
 -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성별 보험료 차이를 두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음.
 -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서 공·사 보험료 수준을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70세 이상에서 대체형 민영보험의 보험료가 공적 보험의 보험료 상한선보다 높아짐.

〈표 5〉 의무가입 공·사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비교

공적 사회보험		대체형 민영보험			
소득기준(2008년 7월 이후)		연령기준(단위: 유로)			
〈보험료 상한〉 1996 2010 52.15 +40% → 73.13유로(1) +50% → 82.50유로(2)		Age	1996~98	2010	증가율(%)
		30	32.19	18.87	59
		40	40.05	26.07	65
		50	52.45	38.06	73
		60	74.99	59.51	79
		70	122.78	104.01	85
		80	209.04	207.44	99
고용인 부담					
소득의 0.975%		보험료의 50%			

주: 1) 소득의 1.95%

2) 무자녀 혹은 23~65세 성인의 경우 소득의 2.20%

자료: MunichRe(2010).

라.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공·사 역할 분담

■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공적 부분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보장하고 사적 부분이 고소득층, 자영업, 공무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사 간에 위험보장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 공적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2013년 12월 현재 약 6,98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4.5%를 차지하고 있고, 대체형 민영 장기요양보험은 약 953만 명(전체 인구의 11.4%)이 가입하고 있음.

■ 2012년 말 기준 전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약 255만 명에 이르며, 그 중 공적보험 수급자가 약 240만 명이며, 대체형 민영보험의 수급자는 약 15만 명(전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수의 6%)임.

○ 공사보험 모두 수급자의 약 70%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음.

〈표 6〉 의무가입 공·사 장기요양보험 자원 및 급여 비교

연도	대체형 민영보험				공적보험			
	가입자 (천 명)	수입보험료 (백만 유로)	수급자 (천 명)	급여지급액 (백만 유로)	가입자 (천 명)	수입보험료 (십억 유로)	수급자 (천 명)	급여지급액 (십억 유로)
2005	9,164.3	1,867.5	115.9	549.8	-	17.5	1,952	16.9
2009	9,534.1	2,074.2	138.2	667.7	-	21.3	2,235	19.3
2010	9,593.0	2,096.0	142.7	698.8	69,785	21.8	2,288	20.4
2011	9,666.9	2,105.1	145.1	720.5	69,623	22.2	2,315	20.9
2012	9,619.6	2,010.7	151.1	779.3	69,726	23.0	2,397	21.9
2013	9,537.4	2,045.0	-	845.0	69,872	25.0	2,480	23.2

자료: GDV, Statistical Yearbook 2014; German Federal Ministry of Health(2014), Selected Facts and Figure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 2013년 기준 급여지급액 규모는 공적보험이 연간 232억 유로이며, 대체형 민영보험은 8억 4천만 유로임.

- 대체형 민영보험의 급여지급액 규모는 전체 장기요양 급여지급액의 약 27%를 차지함.
- 민영보험이 전체 장기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수급자 수 비중에 비해 급여지급액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급여수준이 높은 2, 3등급이 전체 수급자 중 차지하는 비중에서 민영보험이 공적 보험보다 높기 때문으로 보임.

3.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혁

독일은 급여의 수준과 질 향상 및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오고 있음. 재정안정화를 위해 일괄적인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가입자 특성별로 보험료율 차별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설보다 재가급여와 현금급여를 활성화시키고 있음. 최근에는 치매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음.

■ 독일은 공적 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는데, 2008년 급여 수준과 전달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의 장기요양개혁을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치매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장기요양개정법을 통과시킴.

■ 2008년 개혁의 목표는 재가급여 활성화, 급여수준 인상, 급여의 질 제고를 통한 투명성 강화, 재정안정화 등임.

-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등급판정의 한계, 낮은 급여수준과 질, 의료보험과의 연계부족, 예방과 재활서비스 부족, 요양필요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 2008년 개혁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0.25%p 인상시켰고, 시설보다 급여 수준이 낮은 재가급여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함.

- 재가급여 수준을 201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인상시켰고, 2015년부터는 3년 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함.
 - 하지만 시설급여는 등급이 낮은 1, 2등급은 2015년까지 동결시키고 3등급 이상만 재가급여와 같이 인상시킴.
- 재가급여 활성화를 위해 재가 급여 수급자가 주야간 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혼합급여를 제공함.

■ 2012년 통과된 장기요양개정법의 핵심 내용은 치매환자에 대한 급여개선과 가족수발자에 대한 지원 개선임.

- 2013년 1월 1일부터 새 장기요양 이행법(Pflege-Neuausrichtung-Gesetz)에 따라 치매환자를 포함한 장기요양 0등급 판정자에게 정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 과거 치매환자에 대한 공식 급여는 없었으며, 2004년 ‘장기요양급여 보완법’으로 치매와 정신질환자 가족에게 연간 460유로 정도의 지원금을 보조하는데 그침.
 - 치매환자 등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0등급으로 인정하고 재가급여로 월 120유로의 현금 혹은 월 225유로의 현물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급여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재정안정성을 위한 독일의 제도 개혁의 특징은 일괄적인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보험료율 차별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왔다는 것임.²⁴⁾

- 자녀가 없는 23세 이상 근로자는 보험료를 0.25% 추가 부담함(2005년부터).

24) 이용갑(2009).

- 이 같은 정책은 독일의 전통적인 가족부양 책임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강한 편이어서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미래에 요양필요자가 되었을 때 자식이 돌봄 책임을 국가와 나눠진다는 사회적 규범에 기반한 것임.
- 배우자와 자녀는 공적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고 있음.
- 노령연금 생활자들은 보험료 전액(근로자+고용주 부담)을 부담함(2004년부터).
 - 2004년 이전에는 은퇴한 노령연금 생활자들이 근로자의 보험료율(1.7%의 절반인 0.85%)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하였음.
 - 2008년 이후 인상된 보험료율인 소득의 1.95%를 전액 부담하고 있음.
 - 이 같은 보험료율 정책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대부분이 노령연금 생활자라는 점을 반영한 것임.

4. 한국과 독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 비교

독일의 장기요양 지출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 지출 증가율이 커서 2060년이면 GDP대비 장기요양 지출 비중이 비슷해질 것으로 예측됨. 우리나라는 독일과 비교해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이 낮은 반면, 수급자 1인당 급여수준은 높은 편임.

가.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을 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미만인 자라도 국가가 정한 노인성 질환²⁵⁾을 지니고 있을 때에만 대상으로 인정됨.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재원은 보험료이며 부가적으로 국가지원과 본인일부 부담으로 이루어짐.

25) 치매, 중풍, 파킨슨 병 등 21개 노인성 질환.

-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6.55%)을 곱하여 부과하는 형태이며, 국고에서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본인부담률은 시설이 20%, 재가서비스의 경우 15%를 부과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50%를 경감해주고 있음.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함.

■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은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신설되고, 수급자 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됨.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²⁶⁾에 한하여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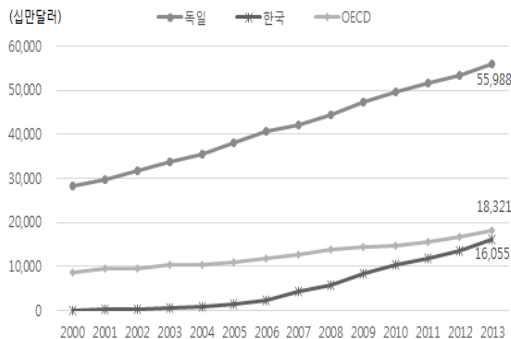
- 현물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가급여는 다시 방문형 급여(방문 간호·목욕·요양 등)와 통원형 급여(주야간 보호, 단기보호센터 이용)로 구분됨.

26)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의 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의 일부를 특별현금급여로 제공.

나. 한국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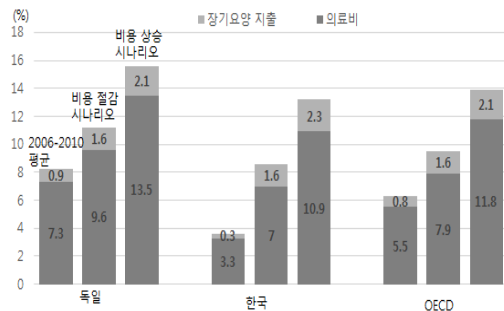
- 독일의 장기요양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56억 달러에 이르며 OECD평균인 18억 달러의 약 세 배에 이름.

〈그림 3〉 장기요양 지출 추이



자료: OECD(2015), <http://stats.oecd.org/>.

〈그림 4〉 GDP대비 의료비 및 장기요양 지출 점유율 추계(2060년)



자료: OECD(2013), A projection method for public health and long-term care expenditures.

-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지출은 2006년 이후 급증하여 2013년 16억 달러로 OECD 평균 지출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 독일의 GDP대비 장기요양 지출 비중은 2006~2010년 기준 0.9%로 우리나라 0.3%의 세 배 수준이나, 2060년이 되면 두 나라가 1.6%로 수렴할 것으로 예측됨.
- 독일과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대비 수급자 비중을 비교해보면, 독일은 12.8%인 반면, 우리나라는 6.6%로 절반 수준임.
 - 8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수급자 비중은 독일이 31.3%, 우리나라가 19%임.
- 독일과 우리나라 모두 최중증 수급자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최경증 수급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수급자 비중의 변화 폭이 독일에 비교해 훨씬 크게 나타남.
 - 독일의 최중증(3등급) 수급자는 1996년 16.6%에서 2011년 11.9%로 감소하였고, 최경증(1등급)은 40.1%에서 56%로 증가함.²⁷⁾

- 우리나라 최중증(1등급) 수급자는 2008년 26.8%에서 2013년 9.9%로 줄어든 반면, 최경증(3등급) 수급자는 동 기간 동안 46%에서 71.1%로 증가함.²⁸⁾

■ 독일과 우리나라의 재가급여 이용 비중은 비슷하지만, 독일은 시설급여 이용자가 주로 중증대상자인 반면, 우리나라는 시설입소자 중 최경증 대상자가 약 50%를 차지함.

- 독일의 재가급여 이용 비중은 67.8%이며 우리나라는 63%임.
- 독일의 요양등급 인정자 중 시설급여 이용비율은 최중증인 3등급이 47.8%, 2등급이 28.6%, 1등급 6.9%임.²⁹⁾

■ 독일과 우리나라의 월 급여한도액 수준을 비교해보면, 독일은 경증(1등급)과 중증(3등급) 간의 월 급여한도액 격차가 큰 반면 우리나라는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음.

- 급여한도액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소득수준대비 등급별 급여액 비중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월 GDP대비 급여한도액이 재가 3등급을 제외하고는 독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³⁰⁾
- 시설급여한도액의 경우 독일의 1인당 월 GDP대비 급여 비중이 1, 2, 3등급 각각 37.7%, 47.1%, 68.1%인 반면 우리나라는 58.9%, 64%, 68.8%로 나타남.

■ 독일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1인당 공적 LTC 지출액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26,833달러로 독일의 15,877달러에 비해 1만 달러 이상 높음.

27) 이호용 외(2012).

28) 선우덕 외(2012).

29) 선우덕 외(2014).

30) 등급별 기본적인 급여액만을 비교하였으며, 기타 여러 부수적인 보조금은 고려하지 않았음. 소득수준은 1인당 GDP를 12로 나눈 값을 이용했고, 각 등급별로 월 급여액의 1인당 월 GDP대비 비중을 계산한 결과를 <표 7>에 보고함.

〈표 7〉 독일과 우리나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비교(2012년)

(단위: 명, 유로, 천 원, %)

구분		수급자 (노인인구대비 비중)		등급별 ¹⁾ 월 급여 한도액 (1인당 GDP대비 비중) ²⁾			1인당 공적 LTC 지출액 ³⁾ (달러)
		65세 이상	80세 이상	1등급	2등급	3등급	
독일	시설	669,868	499,440	1,023 (37.7)	1,279 (47.1)	1,850 (68.1)	-
	재가 ⁴⁾	1,367,595	849,917	450 (16.6)	1,100 (40.5)	1,550 (57.1)	
	총계	2,037,463 (12.8)	1,349,357 (31.3)	-	-	-	15,877
한국	시설	139,384	87,697	1,352 (58.9)	1,466 (63.8)	1,579 (68.8)	-
	재가	231,426	119,790	814.7 (35.5)	971.2 (42.3)	1140.6 (49.7)	
	총계	370,810 (6.6)	207,487 (19.0)	-	-	-	26,833

주: 1) 독일의 등급은 1, 2, 3등급 순으로 중증인 반면, 한국은 3등급, 2등급, 1등급 순임.

2) 2012년 기준 1인당 연간 GDP(독일: 32,600유로, 한국: 2,754.7만 원)를 1/12로 환산하여 계산.

3) 공적 LTC지출 총액을 65세 이상 수급자 수로 나눈 값임.

4) 현물급여 기준임.

자료: OECD, 『장기요양통계』.

5. 시사점

우리나라 공적 장기요양보험은 경증 수급자의 급여액이 독일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이는 경증 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향후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독일이 재정안정화를 위해 추진해온 재가 및 현금급여 활성화 그리고 공·사 역할분담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 인정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 독일의 절반 수준에 그쳐 적용범위 측면에서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이 4.2%였던데서 2013년 6.6% 수준으로 증가함.

■ OECD 장기요양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장기요양 지출에서 공적보험이 차지하는 비

중은 독일과 우리나라가 각각 62.8%와 73%로, 비용측면에서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은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높은 편임.

- 독일의 장기요양 지출은 규모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크지만 이는 고령자와 초고령자 인구비중이 높아 적용대상자가 많기 때문이며, 장기요양 수급자 1인당 급여수준은 우리나라가 더 높은 편임.

■ 우리나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은 낮은 등급의 급여액이 독일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이는 중증 대상자 수가 감소하고 낮은 등급 대상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향후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급여는 독일에 비해 등급 간 급여수준의 차이가 작아 요양필요도가 낮은 등급의 급여한도액이 독일에 비해 높은 편임.

■ 독일이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혁과정에서 추진한 재가급여와 현금급여 활성화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안정화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시설급여보다 재가급여를 활성화하는 것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aging in place 정책에 부합하는 것임.
 - 현재 우리나라 가구구조는 장기요양 필요자(혹은 고령자)의 니즈에 맞지 않아 요양 서비스 갖춘 노인주택의 활성화가 필요함.
 - 요양필요자의 재가 생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현금급여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는 데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급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독일은 현금 급여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현금급여 지급 시 문제가 되는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급여수준 차등화, 서비스 질 관리 등이 필요함.
- 무자녀자와 노령연금 생활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 차등화 정책은 우리와 처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노령연금 생활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노령연금제도가 그만큼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함.

■ 독일은 장기요양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민간과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완화시키고 있음.

- 대체형 민영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의 6%를 보장하면서 총 급여지출의 27%를 분담하고 있으며, 민영보험이 주로 고비용 수급자를 보장함으로써 공적 보험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독일 정부는 2013년부터 일정 기준(월 납입 보험료 10유로 이상 보험가입)을 만족하는 보충형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월 5유로)을 지급함으로써 보충형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음.
 - 이는 독일의 공적 요양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함임.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민간 부의 장기요양보장 역할을 제고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참 고 문 헌〉

- 권순만(2003), 「독일의 장기요양제도」, 『한국노년학연구』, 제12권, pp. 27~47.
- 김석영(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범위 확대와 민영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KIRI Weekly』, 제237호, 보험연구원.
- 선우덕 외(2012),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과제』, 노인인구정보센터.
- _____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승연(2013), 「민영 장기요양보험퍼즐과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보험동향』, 2013년 가을호, 보험연구원.
- 이용갑(2009), 「독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 개혁 논의와 2008년 개혁」, 『사회복지정책』, 36권 제4호, pp. 291~317.
- 이호용 외(2012), 『주요국 장기요양제도 비교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용운 · 김미화(2013), 「민영간병보험의 발전방향」, 『KIRI Weekly』, 제253호, 보험연구원.
- Federal Ministry of Health(2014), “Selected Facts and Figure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 GDV(2014), “Statistical Yearbook of German Insurance”.
- MunichRe(2010), “Long Term Care Insurance International Situation”.
- OECD, 장기요양보험 통계, 각 년도.
- _____ (2011),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Chapter 8.
- SCOR(2012), “Long-Term Care Insurance”, Focus, October 2012.
-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부록 표 1〉 독일 장기요양 등급 구분

등급	주요 내용
0등급	○ 현금급여는 1등급의 40% 수준 ○ 월간 급여한도액은 1등급의 1/3수준 ○ 가족 간호(요양) 수당과 방문요양급여 ○ 연간 요양 수당은 모든 등급과 동일(1,200/2,400 장애가산)
1등급	○ 매일 최소한 90분의 도움 필요 - 이 중 45분 이상의 1), 2), 3)영역의 기본간호(요양)에서 1일 1회 도움 필요 - 4)영역: 여러 번/주 가사지원 ○ 2가지 행위에서 도움 필요 - 1), 2), 3)영역중의 어느 한 개 영역에서 2가지 행위나 - 1), 2), 3)영역 중에 적어도 2가지 행위에서 도움 필요
2등급	○ 매일 최소한 3시간 도움 필요 - 이 중 2시간 이상의 기본간호(요양) 1일 3회 상이한 시간에 도움 필요 - 4)영역: 여러 번/주 가사지원 ○ 1), 2), 3)영역 상이한 시간 도움 필요 - 1), 2), 3)영역에서 1일 3회 상이한 시간 도움 필요
3등급	○ 매일 최소한 5시간 도움 필요 - 이 중 4시간 이상의 기본간호(요양) - 4)영역: 여러 번/주 가사지원 ○ 1), 2), 3)영역에서 거의 하루 종일 도움 필요 - 야간에도 도움 필요

주: 1) 신체위생과 관련한 세수, 샤워, 목욕, 양치질하기, 머리감기, 배변, 배뇨 등.

2) 식사하기와 관련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 섭취하는 것.

3) 동작과 관련한 이동하기, 의복탈착의, 보행, 기립, 외출 등.

자료: <http://www.bmg.bund.de/pflege/zahlen-und-fakten-zur-pflegeversicherung.html>.

Ⅱ.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2015년 2/4분기 선진국 가운데 미국의 경우 전분기보다 경제성장률이 상승하였고, 유로 지역과 일본의 경우 하락함. 한편, 신흥국 중 중국 경제성장률은 소폭 높아짐.

■ 2015년 2/4분기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미국과 중국의 경우 개선되었으나 유로 지역과 일본은 둔화되며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됨.

- 2/4분기 미국 경제는 일시적인 한파 요인이 해소되며 1/4분기보다 3.9%(연율) 성장한 반면, 유로 지역의 경우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지면서 전분기대비 1.4%(연율)의 성장률을 기록함.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생필품 물가 상승과 내구재 소비 부진으로 인한 민간소비 둔화 및 수출 감소 등으로 -1.2%(연율)를 나타냄.
-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중국 정부 미니부양책¹⁾의 가시적인 효과로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1.7%로 집계됨.

1) 중국 정부는 2015년 3월, 5월, 6월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p 인하하였으며, 2015년 6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와 기준율을 동시에 낮춤. 또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2015년 3월 말에는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율을 하향하는 등 부동산 부양정책을 실시함(국제무역연구원(2015. 8)).

〈표 1〉 세계경제성장률¹⁾

(단위: %)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¹⁾	3.4	3.4	n.a.	n.a.	n.a.	n.a.	n.a.	n.a.	n.a.
선진국 ¹⁾	1.4	1.8	n.a.	1.5		2.1		1.9	
신흥국 ¹⁾	5.0	4.6	n.a.	4.6		4.6		3.8	
미국 ²⁾	1.5	2.4	3.8	-0.9	4.6	4.3	2.1	0.6	3.9
유로 ³⁾	-0.3	0.9	0.9	0.8	0.3	1.0	1.6	2.1	1.4
일본 ⁴⁾	1.6	-0.1	-0.9	4.5	-7.6	-1.1	1.3	4.5	-1.2
중국 ⁵⁾	7.8	7.4	1.7	1.6	1.9	1.9	1.5	1.4	1.7

주: 1) 분기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가율,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83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타이완 외 32개국 / 신흥국: 멕시코, 이란 외 149개국.

3) 국가별 분기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5. 10).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5. 9).

3) Eurostat(2015. 10).

4) 일본 내각부(2015. 9).

5) 중국 국가통계국(2015. 7).

■ 2015년 2/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0.2 하락한 99.6을 기록함.

○ 미국과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하락하였으나 유로 지역과 일본의 경우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함.

- 2/4분기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주택허가 및 주식가격 하락으로 미국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나타나며 소폭 낮아짐.

- 유로 지역의 경기선행지수는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며 1/4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100.7을 기록함.

- 2/4분기 일본 경기선행지수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며 1/4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100.0으로 집계됨.

-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부동산 시장 및 투자 위축 지속 전망 등으로 1/4분기보다 0.4 하락한 98.1을 나타냄.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²⁾	100.1	100.1	100.2	100.2	100.2	100.1	100.0	99.8	99.6
선진국 ³⁾	100.1	100.4	100.4	100.4	100.4	100.3	100.3	100.2	100.1
미국	100.3	100.4	100.4	100.4	100.5	100.5	100.3	100.0	99.7
유로	99.6	100.4	100.3	100.6	100.5	100.3	100.3	100.6	100.7
일본	100.7	100.3	101.3	101.1	100.4	99.9	99.9	99.9	100.0
중국	100.7	99.7	100.6	100.3	100.0	99.6	99.0	98.5	98.1

주: 1) 2007.1=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5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표 4〉 참조) 따라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하락하며 1/4분기보다 1.3%p 낮은 1.1%를 기록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1/4분기 3.4%에서 0.7%p 낮아진 2.7%를 나타내었고,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6%p 하락한 -0.5%를 나타내며 마이너스로 전환됨.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1),2),3)}

(단위: %)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2.5	3.3	3.7	2.9	2.9	3.7	3.8	2.4	1.1
선진국	0.5	2.4	2.6	2.4	1.8	2.2	3.3	3.4	2.7
신흥국	4.8	4.2	4.9	3.4	3.8	5.2	4.2	1.1	-0.5

주: 1) 2014년 현재 OECD 국가 중 Luxembourg를 제외한 23개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60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함.

2)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의 분류 기준과 동일.

3) 전년동기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5년 2/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높아진 2.7%를 기록하였고, 원자재가격도 미국 원유생산 전망치 하향조정 등으로 높아짐.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와 동일한 0.2%를 나타낸 반면, 신흥국의 경우는 동 기간 4.7%에서 5.0%로 0.3%p 높아짐.

○ 두바이 현물지수와 WTI 현물지수는 EIA의 미국 원유생산 전망치 하향조정,²⁾ 증동지

역 불안 지속³⁾ 등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16.9%, 23.2% 상승하였고, CRB 상품지수⁴⁾도 에너지를 중심으로 1.3% 높아짐.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²⁾				
	2014			2015			2014			2015	
	연간	3/4	4/4	1/4	2/4		연간	3/4	4/4	1/4	2/4
세계	3.5	2.8	2.7	2.5	2.7	두바이 현물지수	95.1	100.3	69.0	52.3	61.1
선진국	1.4	1.5	1.0	0.2	0.2	WTI 현물지수	91.6	95.1	69.2	48.5	59.8
신흥국	5.1	4.1	4.3	4.7	5.0	CRB 상품지수 ²⁾	288.1	291.3	262.3	220.9	223.8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WEO(2015. 10); 한국은행; Bloomberg.

가. 미국경제

2015년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고용시장 개선, 소비 및 수출 증가 등으로 전분기보다 3.3%p 상승한 3.9%를 나타내며 회복세가 확대됨.

〈경제성장〉

■ 2015년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고용시장 개선에 따른 소비 및 수출 중심의 성장세 회복으로 1/4분기보다 3.3%p 상승한 3.9%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고용 개선 및 자동차 판매 호조 등으로 전분기대비 1.8%p 상승한 3.6%를 나타냄.
- 민간투자의 경우 높아진 주택가격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주택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증가로 전분기대비 5.5% 증가함.

2) EIA는 2015년 미국 원유생산량 전망치를 일평균 923만 배럴에서 919만 배럴로 하향조정함.

3)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군이 예멘 반군과의 휴전을 앞두고 예멘 수도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함에 따라 불안감이 고조됨.

4)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지수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예견되거나 그 상품의 수요 증가를 의미함.

- 수출 증가율은 서부항만 파업사태 해소 등으로 전분기보다 11.1%p 상승한 5.1%를 나타내었고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4.1%p 하락한 3.0%를 기록함.
- 2/4분기 정부지출의 경우 연방 정부 지출 및 투자는 1/4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한 반면, 주·지방 정부 지출 및 투자는 4.3% 증가하며,⁵⁾ 전체적으로는 전분기보다 2.7%p 상승한 2.6% 증가함.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GDP	1.5	2.4	3.8	-0.9	4.6	4.3	2.1	0.6	3.9
민간소비	1.7	2.7	3.5	1.3	3.8	3.5	4.3	1.8	3.6
재화	3.1	3.3	3.1	1.1	6.7	4.1	4.1	1.1	5.5
서비스	1.0	2.4	3.7	1.4	2.4	3.1	4.3	2.1	2.7
민간투자	4.5	5.4	4.2	-2.5	12.6	7.4	2.1	8.6	5.0
설비	3.0	6.2	8.7	8.3	4.4	9.0	0.7	1.6	4.1
주택	9.5	1.8	-8.1	-2.8	10.4	3.4	10.0	10.1	9.3
수출	2.8	3.4	10.9	-6.7	9.8	1.8	5.4	-6.0	5.1
수입	1.1	3.8	1.0	2.8	9.6	-0.8	10.3	7.1	3.0
정부지출	-2.9	-0.6	-2.7	0.0	1.2	1.8	-1.4	-0.1	2.6

주: 전분기대비 연율화.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5. 9),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내수부문〉

- 2015년 2/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1/4분기보다 2.7%p 상승한 1.7%를 나타냄.
- 소매판매 증가율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7월과 8월에는 하락세를 보임.
- 2/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5.1 낮아진 96.2를 기록하였으며 7월에도 91.0로 낮아졌으나 8월에는 101.3으로 높아짐.

5) WSJ(2015. 8. 28).

■ 2015년 2/4분기 신규주택착공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지수도 주택 건설 및 개보수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인해 높아지며 주택경기가 호전됨.

○ 2/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5.7%p 상승한 18.4%를 나타내었으나, 7월과 8월에는 각각 -4.1%, -3.0%로 하락함.

○ 2/4분기 주택가격지수는 주택수요 증가로 전분기보다 3.0% 상승한 179.0을 기록하였고 7월에도 소폭 높아짐.

〈표 6〉 미국의 주요 내수부문 지표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3.9	3.8	0.7	0.6	2.4	0.7	0.5	-1.0	1.7	0.7	0.2
소비자신뢰지수 ²⁾	73.1	86.9	74.0	80.5	83.4	90.9	92.7	101.4	96.2	91.0	101.3
신규주택착공호수 ³⁾ (%)	18.4	7.8	14.6	-7.7	5.4	4.6	2.6	-7.3	18.4	-4.1	-3.0
주택가격지수 ⁴⁾	158.2	170.7	165.8	165.9	170.5	173.5	173.0	173.7	179.0	181.9	n.a.

주: 1)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5년 2/4분기 산업생산증가율과 설비가동률은 전분기대비 하락한 반면,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⁶⁾는 전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였고 경기선행지수는 소폭 상승함.

○ 2/4분기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6%p 하락한 -0.7%를 나타내었으나, 7월에는 0.9%로 상승하였다가 8월에는 -0.4%로 하락함.

- 설비가동률은 2/4분기 77.6을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7월에는 78.0으로 상승하였다가 8월에는 둔화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의 경우 2/4분기에는 전분기와 동일한 52.6을 나타내었고 7월에는 소폭 높아졌으나 8월에는 소폭 하락함.

6)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간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 경기선행지수는 1/4분기대비 소폭 상승하며 2/4분기 122.9를, 7월 123.6을, 8월 123.7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산업생산증가율 ¹⁾ (%)	1.9	3.7	0.9	0.9	1.4	1.0	1.2	-0.1	-0.7	0.9	-0.4
설비가동률 ²⁾	76.7	77.4	77.0	77.3	78.0	78.3	78.8	78.4	77.6	78.0	77.6
ISM제조업PMI	53.8	55.7	56.0	53.5	55.5	56.9	56.9	52.6	52.6	52.7	51.1
경기선행지수 ³⁾	111.1	117.5	113.5	114.5	116.5	118.7	120.5	121.2	122.9	123.6	123.7

주: 1)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값의 증가율.

2) 2007=100

3) 2004=100

자료: 국제금융센터;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고용과 물가〉

- 2015년 2/4분기 취업자 수 증가세는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소폭 하락세를 보임.

- 전분기대비 비농업 취업자 증감은 2/4분기 69만 2,000명으로 전분기보다 10만 6,000명 증가하였으며,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4분기 27만 8,000명으로 전분기보다 1만 5,000명 감소함.

- 2015년 7월과 8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은 완만히 증가하며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임.

- 2/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5.4%를 기록하였고, 7월과 8월에도 5%대를 유지함.

- 포괄적 실업률도 2015년 2/4분기에는 10.7%, 7월과 8월에는 각각 10.8%를 기록함.

- 2015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높아졌으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함.

- 2015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0%를 나타내었고, 7월과 8월 각각 2.0%를 기록함.

- 근원 소비자물가는 2/4분기 전년동기대비 1.8% 상승하였고, 2015년 7월과 8월에도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함.
- 2/4분기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3.4%를 나타내었고, 2015년 7월 -2.6%, 8월 -2.9%로 집계됨.
-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2.1%였으며, 2015년 7월과 8월 각각 2.3%, 2.1%를 기록함.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 · 물가 지표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 ¹⁾ (%)	7.4	6.2	7.0	6.6	6.2	6.1	5.7	5.6	5.4	5.3	5.1
포괄적 실업률(u-6) ²⁾ (%)	13.8	12.0	13.3	12.6	12.1	12.0	11.4	11.1	10.7	10.4	10.3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만 명)	238.8	311.6	65.1	57.9	85.2	71.2	97.3	58.6	69.2	24.5	17.3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만 명)	34.9	30.8	34.3	33.0	31.5	30.0	28.9	29.3	27.8	26.8	27.5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1.5	1.6	1.2	1.4	2.1	1.8	1.3	-0.1	0.0	0.2	0.2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1.8	1.8	1.7	1.6	1.9	1.8	1.7	1.7	1.8	1.8	1.8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1.3	1.9	0.8	1.6	2.8	2.5	0.8	-3.2	-3.4	-2.6	-2.9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1.5	1.9	1.4	1.9	1.8	2.0	2.0	1.9	2.1	2.3	2.1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3) 전분기대비 증감.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나. 유로경제

2015년 2/4분기 유로 지역 경제는 독일, 스페인, 영국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및 이탈리아 경기 둔화로 1/4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성장률을 보임.

〈경제성장〉

- 2015년 2/4분기 유로 지역 경제성장률은 독일, 스페인, 영국의 경우 회복세를 나타내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1/4분기대비 0.1%p 하락한 0.4%를 기록함(〈표 9〉와 〈표 12〉 참조).⁷⁾
 - 2/4분기 유럽 주요 5개국 경제성장률의 경우 독일, 스페인, 영국은 전분기보다 각각 0.1%p, 0.1%p, 0.3%p 상승한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전분기대비 각각 0.7%p, 0.1%p 하락함.
 - 2/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전분기보다 상승하였으나, 독일, 프랑스, 영국의 경우 전분기보다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전분기보다 0.1%p 낮아진 0.4%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의 경우 스페인을 제외한 주요 유로 지역이 낮아지면서 전분기보다 1.9%p 하락한 -0.5%를 나타내었고 정부지출 증가율도 전분기보다 0.3%p 하락한 0.3%를 기록함.
 - 2/4분기 유로 지역 수출 증가율은 모든 주요 유로 지역의 수출 증가로 전분기보다 0.6%p 높아진 1.6%를 기록하였지만,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5%p 하락한 1.0%를 나타냄.

7) Commerzbank에 따르면, 유럽 여러 국가들은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조정과정 진행에 따라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 등 신흥국에서의 수입 감소는 유로화 약세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상쇄한다고 평가됨.

〈표 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EA19 GDP	-0.3	0.9	0.2 (0.9)	0.2 (0.8)	0.1 (0.3)	0.3 (1.0)	0.4 (1.6)	0.5 (2.1)	0.4 (1.4)
민간소비	-0.6	0.9	0.1	0.1	0.2	0.5	0.6	0.5	0.4
고정자본투자	-2.6	1.2	0.5	0.4	-0.5	0.3	0.6	1.4	-0.5
정부지출	0.2	0.8	0.1	0.3	0.2	0.2	0.2	0.6	0.3
수출	2.1	3.9	0.9	0.6	1.2	1.5	0.9	1.0	1.6
수입	1.3	4.2	0.1	0.9	1.2	1.7	0.9	1.5	1.0

주: 전분기대비이며,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5, 10).

〈생산 및 내수부문〉

■ 2015년 2/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5%p 하락한 0.4%를 나타내었으며 7월에도 소폭 낮아지며 0.3%를 나타냄.

○ 2/4분기 유로 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03.7로 전분기보다 상승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104.0, 104.1을 나타내었음.

○ 유로 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2/4분기 -5.3을 나타내며 둔화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7월 -7.2를, 8월 -6.9를 기록함.

■ 2015년 2/4분기 유로 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의 경우 인건비 및 유로화 약세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1/4분기보다 1.2%p 하락한 -0.2%를 기록하였으나, 7월에는 0.6%를 나타냄.

〈표 10〉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유로지역 ESI ¹⁾	93.8	101.6	99.5	101.8	102.5	101.2	100.8	102.6	103.7	104.0	104.1
소매판매 증가율 ²⁾ (%)	-0.8	1.3	-0.3	0.6	0.4	0.1	0.7	0.9	0.4	0.3	n.a.
소비자신뢰지수 ³⁾	-18.7	-10.1	-14.5	-11.3	-7.9	-10.0	-11.3	-6.3	-5.3	-7.2	-6.9
산업생산 증가율 ⁴⁾ (%)	-0.7	0.8	0.6	0.1	0.1	-0.2	0.5	1.0	-0.2	0.6	n.a.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3)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4) 비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자료: Eurostat; Bloomberg.

〈고용과 물가〉

- 2015년 2/4분기 유럽 지역 실업률의 경우 주요국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한 반면, 북유럽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동유럽과 남유럽은 전분기대비 하락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2/4분기 실업률은 1/4분기와 동일한 6.9%를 기록하였으나, 북유럽의 경우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6.9%이었음.
 - 2/4분기 동유럽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8.5%를 나타내었고 남유럽 실업률도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18.2%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지속됨.
- 2015년 2/4분기 모든 주요 유럽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 공산품 및 음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높아짐.
- 2/4분기 유럽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보다 0.3%p 상승한 0.2%를 기록하였으며, 북유럽의 경우도 전분기보다 0.2%p 높아진 0.8%를 나타냄.
 - 또한, 2/4분기 동유럽과 남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분기보다 각각 0.3%p, 0.7%p 상승한 -0.2%를 각각 나타냄.

〈표 1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4년 4/4	7.0	6.7	8.8	19.0	0.6	0.9	0.1	-0.6
2015년 1/4	6.9	6.8	8.7	18.7	-0.1	0.6	-0.5	-0.9
2015년 2/4	6.9	6.9	8.5	18.2	0.2	0.8	-0.2	-0.2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2015. 10).

〈표 12〉 유럽 주요국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독일 GDP	0.3	1.6	0.3	0.7	-0.1	0.2	0.6	0.3	0.4
민간소비	0.6	0.9	-0.4	0.3	-0.1	0.6	1.0	0.4	0.2
고정자본투자	-1.3	3.5	1.7	2.4	-1.5	-0.7	1.3	1.7	-0.4
수출	1.6	4.0	2.0	0.4	0.4	1.5	1.4	1.2	2.2
수입	3.1	3.7	0.6	0.6	0.9	0.4	2.3	1.9	0.8
프랑스 GDP	0.7	0.2	0.2	-0.2	-0.1	0.3	0.1	0.7	0.0
민간소비	0.4	0.6	0.5	-0.4	0.4	0.5	0.2	0.8	0.0
고정자본투자	-0.6	-1.2	0.1	-0.7	-0.6	-0.4	-0.3	0.0	-0.2
수출	1.7	2.4	0.9	0.4	-0.1	1.1	2.9	1.5	2.0
수입	1.7	3.8	0.4	1.0	0.7	1.5	1.8	2.1	0.5
이탈리아 GDP	-1.7	-0.4	0.0	-0.2	-0.2	0.0	0.0	0.4	0.3
민간소비	-2.7	0.4	0.1	0.2	0.1	0.1	0.1	-0.1	0.4
고정자본투자	-6.6	-3.5	-1.3	-1.5	-0.8	-0.9	0.2	1.2	-0.4
수출	0.8	3.1	-0.3	0.3	1.4	0.6	1.9	0.7	1.0
수입	-2.5	2.9	0.0	0.3	0.9	1.3	0.7	2.1	1.8
스페인 GDP	-1.2	1.4	0.3	0.3	0.5	0.5	0.7	0.9	1.0
민간소비	-2.3	2.4	0.3	0.6	1.0	0.8	0.9	0.7	1.0
고정자본투자	-3.8	3.4	0.2	0.4	2.0	1.1	1.4	1.4	2.0
수출	4.3	4.2	-0.2	0.1	0.7	3.9	0.0	0.4	1.6
수입	-0.5	7.6	0.2	1.1	2.1	5.0	-0.6	0.4	2.3
영국 GDP	1.7	3.0	0.4	0.9	0.9	0.7	0.8	0.4	0.7
민간소비	1.7	2.5	0.3	0.6	0.8	1.0	0.5	0.9	0.7
고정자본투자	3.4	8.6	2.3	3.4	1.1	1.8	0.1	2.0	0.9
수출	1.5	0.5	-1.3	1.6	-0.3	-0.8	4.5	0.4	3.9
수입	1.4	2.4	-1.4	1.0	-0.6	1.3	1.6	2.3	0.6

주: 전분기대비.
 자료: Eurostat(2015, 10).

다. 일본경제

2015년 2/4분기 일본 경제는 민간소비 및 수출 감소 등으로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됨.

〈경제성장〉

■ 2015년 2/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수출 감소 등으로 전분기대비 1.4%p 하락한 -0.3%를 기록함.

- 2/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일기불순,⁸⁾ 엔저에 따른 식료품 등 생필품 물가 상승, 자동차 판매 감소 등 내구재 소비 부진 등으로 1/4분기대비 1.1%p 하락한 -0.7%를 기록함.
- 2/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도 수요 둔화로 1/4분기보다 3.5%p 하락한 -0.9%를 나타냄. ⁹⁾
- 반면, 주택투자 증가율은 1/4분기보다 0.2%p 상승한 1.9%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지속됨.
- 2/4분기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소폭 높아졌으며, 공공투자는 전분기대비 3.5%p 상승한 2.1% 증가함.
- 2/4분기 수출과 수입 증가율의 경우 대내외 수요 위축 등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6.0%p, 4.4%p 하락한 4.4%, -2.6%를 나타냄.
 - 중국¹⁰⁾·동남아 등 아시아 신흥국 성장 둔화, 글로벌 IT 수요 약화 등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함.

8) 평년보다 비가 많이 내리고 덜 더운 날씨로 인해 의류 등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9) 2015년 2/4분기에 실시된 단칸서베이에서 2015년 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 증가 전망(12.3%)이 1/4분기 전망(1.3%)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2/4분기 설비투자 부진은 일시적일 것으로 평가되며 기업이익 호조 등에 따른 제조업 투자심리 개선으로 하반기 설비투자 증대가 예상됨.

10) 중국 증시 폭락으로 인한 중국 경제 둔화로 일본의 對중국 수출이 감소함.

〈표 13〉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1.6	-0.1	-0.2 (-0.9)	1.1 (4.5)	-2.0 (-7.6)	-0.3 (-1.1)	0.3 (1.3)	1.1 (4.5)	-0.3 (-1.2)
민간소비	2.1	-1.3	-0.2	2.1	-5.0	0.3	0.3	0.4	-0.7
설비투자	0.4	3.9	1.4	4.9	-4.2	-0.2	0.1	2.6	-0.9
주택투자	8.8	-5.1	2.9	2.0	-10.9	-6.3	-0.6	1.7	1.9
정부지출	1.9	0.2	0.1	-0.2	0.1	0.3	0.3	0.3	0.5
공공투자	8.0	3.8	0.2	-0.8	0.4	1.6	0.2	-1.4	2.1
수출	1.2	8.4	-0.2	5.7	0.6	1.8	2.8	1.6	-4.4
수입	3.1	7.4	2.7	5.9	-3.9	0.9	0.8	1.8	-2.6

주: 전분기대비이며,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5. 9).

〈생산 및 내수부문〉

■ 2015년 2/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전기전자 부진 지속, 내수 및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전분기보다 3.0%p 하락한 -1.4%를 나타냄.

○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對중국 수출 위축으로 총수출이 부진하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7월 -0.8%, 8월 -0.5%로 나타남.

■ 2015년 2/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한 41.5로 집계되었고, 7월과 8월 각각 40.3, 41.7을 기록함.

○ 2015년 2/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1/4분기보다 2.3%p 상승한 0.2%이었고, 7월과 8월 각각 1.4%, 0.0%를 나타냄.

- 2015년 7월 백화점 등 소매업체 재고정리 세일 실시로 소매판매 증가율이 소폭 개선됨.

■ 2015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전분기에 비해 13.0%p 높아진 7.6%이었고 2015년 7월에는 7.4%를, 8월에는 8.8%를 기록함.

○ 2/4분기 민간기계수주액은 주택투자 증가로 전분기대비 2.9% 증가하였으나 7월에는 3.6% 감소함.

〈표 14〉 일본의 주요 내수부문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	-0.6	2.1	1.8	2.3	-3.1	-1.3	0.8	1.6	-1.4	-0.8	-0.5
소매판매 증가율 ²⁾ (%)	1.0	1.7	1.4	3.8	-7.1	3.8	1.0	-2.1	0.2	1.4	0.0
소비자신뢰지수 ³⁾	43.6	39.3	42.1	39.0	38.9	40.5	38.9	40.7	41.5	40.3	41.7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	11.0	-9.0	12.9	3.4	-9.3	-13.6	-13.8	-5.4	7.6	7.4	8.8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	5.8	4.0	4.9	1.2	-7.7	3.8	0.7	6.3	2.9	-3.6	n.a.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전기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분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고용과 물가〉

■ 2015년 2/4분기 실업률은 1/4분기보다 0.2%p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유효구인배율¹¹⁾은 소폭 상승하며 고용시장은 미미한 회복세가 지속됨.

○ 2/4분기 실업률은 엔화 약세와 더불어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인건비 상승, 일본 정부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등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증가로 1/4분기대비 소폭 하락한 3.3%를 기록하였으며 7월에도 3.3%를 나타냄.

○ 또한, 유효구인배율은 2/4분기 1.18로 전분기대비 소폭 높아졌고, 2015년 7월에는 1.21이었음.

■ 2015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비세율 인상효과 소멸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하락함.

○ 2015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비세율 인상효과 소멸 등으로 전분기대비 1.8%p 하락한 0.5%를 나타내었으며 7월에는 0.2%이었음.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2/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1.6%p 하락한 0.5%였으며, 7월에는 0.6%를 기록함.

11) 유효구인배율=구인자 수/구직자 수

〈표 1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	4.0	3.6	3.9	3.6	3.6	3.6	3.5	3.5	3.3	3.3	n.a.
유효구인배율(배) ¹⁾	0.93	1.09	1.00	1.05	1.09	1.10	1.12	1.15	1.18	1.21	n.a.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0.4	2.7	1.4	1.5	3.6	3.3	2.6	2.3	0.5	0.2	n.a.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0.2	1.9	0.5	0.7	2.3	2.3	2.1	2.1	0.5	0.6	n.a.

주: 1) 구인 수/구직자 수

2) 2010=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라. 중국경제

2015년 2/4분기 중국 경제는 추가급락¹²⁾ 등의 영향에 따라 기업 및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는 등 불안한 모습으로 전년동기대비 7.0% 성장하는데 그침.

〈경제성장〉

■ 2015년 2/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1/4분기보다 0.3%p 상승한 1.7%를 기록하였지만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추가급락, 고정투자 둔화 등으로 전분기와 동일한 7.0%를 나타냄.

○ 2/4분기 고정자산투자는 과잉설비 조정, 대외수요 저조 등에 따른 제조업 및 부동산 관련 투자 위축으로 전분기 증가율보다 2.1%p 하락한 11.6% 증가함.

○ 2/4분기 수출 증가율의 경우 글로벌 수요 둔화로 전분기보다 12.0%p 하락한 -2.0%를 나타내었으며, 7월에는 -8.3%를, 8월에는 -5.5%를 기록함.

-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개선 영향도 미미하며, 최대 교역국인 유럽과 일본 등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입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¹³⁾

○ 2/4분기 수입의 경우 전분기보다 감소폭이 줄어들며 13.3% 감소하였고, 2015년 7월 -8.1%, 8월 -13.8%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됨.

12) 2015년 6월 이후 30% 이상 급락하였던 중국 주식시장은 중국 정부 부양조치 이후 일부 회복하였으나, 실물경제 둔화 등의 우려로 다시 하락하는 등 추가변동성이 확대됨.

13) 국제금융센터(2015. 9. 9).

〈표 1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질 GDP(%) ¹⁾	7.8	7.4	1.7 (7.7)	1.6 (7.4)	1.9 (7.5)	1.9 (7.3)	1.5 (7.3)	1.4 (7.0)	1.7 (7.0)	n.a.	n.a.
고정자산투자 ²⁾ (%)	20.3	16.8	19.9	17.8	17.3	16.5	15.8	13.7	11.6	11.2	10.9
수출 증가율(%) ³⁾	8.6	5.5	7.5	-4.7	5.0	13.0	8.7	10.0	-2.0	-8.3	-5.5
수입 증가율(%) ³⁾	7.6	0.9	7.1	2.7	1.4	0.9	-1.6	-17.6	-13.3	-8.1	-13.8

주: 1) 전분기대비, () 안은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내수부문〉

■ 2015년 2/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내수 회복 부진이 지속되며 1/4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였으나, 소비자신뢰지수는 소폭 상승함.

○ 2/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부동산 시장 둔화로 인해 전분기와 동일한 10.2%를 기록하는데 그침.

○ 2/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위안화 평가절하, 중국 정부의 주식 및 부동산 시장 개입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107.7을 기록하였으나, 7월 104.5를 나타냄.

〈표 17〉 중국의 주요 내수관련 지표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3.2	12.0	13.5	12.2	12.3	11.9	11.7	10.2	10.2	10.5	10.8
소비자신뢰지수	101.2	104.4	101.4	104.0	103.9	104.5	104.9	107.5	107.7	104.5	n.a.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생산부문〉

■ 2015년 2/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제조업, 자동차, 기계, 전기 등의 생산 증가로 1/4분기에 비해 상승하였고 구매자관리지수도 소폭 높아짐.

○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7%p 높아진 6.3%를 기록함.

○ 2/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도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50.2를 나타내었으나, 7월 50.0, 8월 49.7로 집계됨.

〈표 18〉 중국의 주요 생산관련 지표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9.7	8.2	10.0	8.8	8.9	8.0	7.6	5.6	6.3	6.0	6.1
구매자관리지수 ²⁾	50.8	50.7	51.3	50.3	50.7	51.3	50.4	49.9	50.2	50.0	49.7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물가〉

■ 2015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하락하며 수요둔화, 과잉설비 등에 따른 하방압력이 지속됨.

○ 2015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보다 0.2%p 높아진 1.4%를 기록하였으며 7월 1.6%, 8월 2.0%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임.

○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 -4.7%를 기록하였으며, 7월과 8월 각각 -5.4%, -5.9%를 나타내며 하락세가 지속됨.

〈표 19〉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6	2.0	2.9	2.3	2.2	2.0	1.5	1.2	1.4	1.6	2.0
생산자물가 상승률(%)	-1.9	-1.9	-1.4	-2.0	-1.5	-1.3	-2.7	-4.6	-4.7	-5.4	-5.9

주: 전년동기(월)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2. 국내경제

2015년 2/4분기 국내경제는 내수부진 완화에도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경제성장〉

■ 2015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 둔화, 수출 감소 등으로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2.2%를 나타냄.

- 민간소비는 2014년 2/4분기 세월호 참사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저효과로 1.7% 증가함.¹⁴⁾
- 설비투자는 수출 감소로 전분기대비 0.8%p 하락한 5.0%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건설투자의 경우 주택건설이 늘어 1.6% 증가함.
- 지식생산물투자는 수출 감소와 기업 수익성 악화, 기업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0.8% 증가하는데 그침.
- 재화수출은 엔저 영향의 본격화, 세계 교역량 둔화¹⁵⁾ 등으로 0.9% 감소하였으며 재화수입은 원유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1.0% 증가하였음.

〈표 20〉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실질 GDP	3.2 (0.9)	3.5 (0.9)	2.9	3.9 (1.1)	3.4 (0.5)	3.3 (0.8)	2.7 (0.3)	3.3	2.5 (0.8)	2.2 (0.3)
민간소비	1.9	2.2	1.9	2.6	1.7	1.5	1.4	1.8	1.5	1.7
설비투자	2.3	11.6	-0.8	7.2	7.7	4.2	4.2	5.8	5.8	5.0
건설투자	7.4	3.5	5.5	4.1	0.2	2.3	-1.4	1.0	0.6	1.6
지식생산물투자	2.1	6.7	4.4	7.2	5.7	4.9	1.1	4.6	1.7	0.8
재화수출(F. O. B)	2.3	3.1	4.5	3.8	3.6	1.6	0.5	2.3	-0.9	-0.9
재화수입	0.7	5.2	1.3	3.1	1.3	1.4	-0.7	1.2	0.1	0.7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14) 메르스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 등 소비 위축 요인에도 민간소비가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2014년 2/4분기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2014년 1/4분기대비 0.4% 감소하였기 때문임. 2015년 2/4분기 민간소비도 전분기대비로는 0.3% 감소하였음.

15) 세계 교역량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014년 1/4분기 3.1 → 2/4분기 2.8 → 3/4분기 3.7 → 4/4분기 3.8 → 2015년 1/4분기 2.4 → 2015년 2/4분기 1.1

〈산업생산·경기〉

■ 2015년 2/4분기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 감소세 확대, 메르스 확산에 따른 서비스업 생산 둔화 등으로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0.7% 증가하였음.

○ 2015년 2/4분기 광공업생산은 수출 감소와 이에 따른 자동차 및 전자제품 재고 증가 등으로 제조업 생산 부진이 심화되어 전년동기대비 1.5% 줄어들었음.

- 7월 광공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 및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생산 감소가 이어지면서 3.2% 줄어들었으나 8월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0.3% 증가하였음.

○ 2015년 2/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메르스 관련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여행·여가 활동 위축으로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2.5% 증가함.

- 7월 서비스업 생산은 메르스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면서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생산 부진이 심화되어 2.3% 증가하는데 그침.

-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소매판매, 여행 및 여가 관련 활동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증시 불안의 영향으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이 위축되면서 2.1% 늘어나는데 그침.

〈표 21〉 생산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²⁾	7월 ²⁾	8월 ²⁾
전산업생산 ³⁾	1.7	0.9	1.7	0.6	1.3	1.0	0.7	0.2	1.3
광공업	0.7	0.5	1.2	-1.9	0.0	-0.9	-1.5	-3.2	0.3
제조업	0.7	0.4	1.2	-1.9	0.1	-1.0	-1.4	-3.5	0.2
자동차	7.6	3.6	2.0	-3.1	2.4	-4.2	2.6	-2.2	5.4
ICT	-1.5	1.6	-1.2	-6.0	-1.8	-1.3	-2.0	-6.5	1.9
서비스업	2.0	1.5	2.6	2.6	2.2	2.8	2.5	2.3	2.1
도매 및 소매업	2.0	1.5	2.6	2.6	2.2	0.3	0.8	0.1	0.0
운수업	0.3	-0.3	0.0	-0.6	-0.2	4.3	0.2	-2.7	2.8
숙박 및 음식점업	-0.2	0.0	1.9	4.7	1.7	-0.6	-2.6	-5.3	-2.5
금융 및 보험업	2.1	0.7	2.1	-0.1	1.2	9.6	10.3	12.1	7.6
부동산 및 임대업	1.5	3.5	6.4	9.0	5.2	5.8	8.4	10.4	9.5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 2015년 2/4분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 생산 및 소매판매 부진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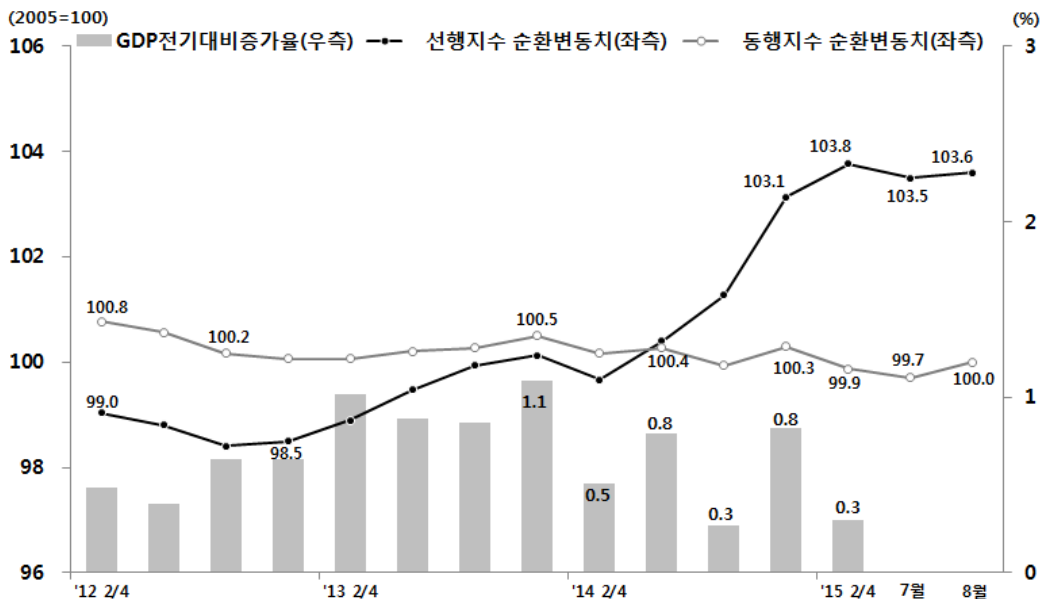
○ 2/4분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스피 지수 및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분기대비 0.7 상승한 103.8을 기록함.

- 7월과 8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중국 증시 불안, 기업 생산 부진 등으로 코스피 지수, 구인구직 비율, 소비자 기대지수가 하락하여 2/4분기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함.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광공업생산 부진 심화와 소매판매 부진 지속 등으로 전분기대비 0.4 하락한 99.9를 기록함.

- 2015년 7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 부진이 지속되면서 99.7까지 하락하였으나 8월 휴가철과 메르스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소멸되면서 전월대비 0.3 상승한 100.0을 나타냄.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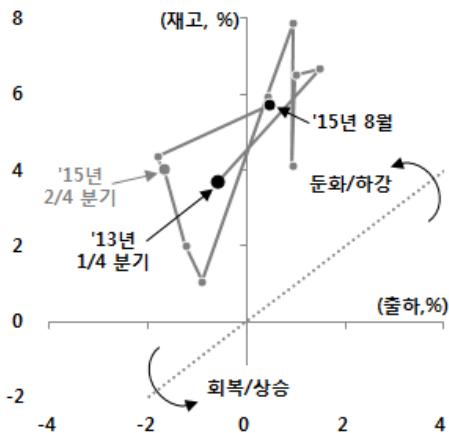
주: 2015년 2/4분기, 7월과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5년 2/4분기 출하는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하였고 재고는 전년동기대비 4.0%p 상승하여 제조업 경기의 둔화/하강국면이 깊어지고 있으며 재고/출하비율의 경우 재고 증가세 확대로 전분기대비 5.1%p 상승한 127.3%를 기록함.¹⁶⁾

○ 7월 출하가 1.8% 감소한 반면 재고는 4.4% 증가하면서 제조업 경기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고/출하비율은 128.6%를 나타냄.

○ 8월 출하는 0.5% 증가하였으나 재고가 5.7% 늘어나면서 재고/출하비율은 전월대비 0.2%p 상승한 128.4%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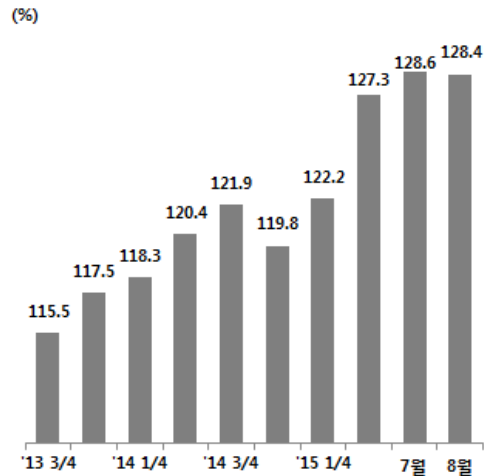
〈그림 2〉 제조업 재고 출하 순환도



주: 재고출하 순환도는 X축에 출하 전년동월비(계절조정), Y축에는 재고 전년동월비(계절조정)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 국면 변환을 판단하는 도표.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그림 3〉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재고율)¹⁾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6) 2015년 4월~2015년 8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내수부문〉

■ 2015년 2/4분기 소매판매는 2014년 2/4분기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한 기저 효과와 내구재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9% 상승하였음.

○ 2015년 2/4분기 내구재 판매는 승용차 판매 증가와 이사철 수요 확대에 8.8%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도 각각 6.7%, 9.4% 증가하였음.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자체 등으로 0.9% 감소하였으며 7월과 8월에도 각각 3.1%, 4.8% 줄어들었음.

○ 2015년 2/4분기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1.4% 증가하였음.

- 7월과 8월 비내구재 판매는 각각 1.4%, 0.4% 늘어남.

〈표 22〉 소비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²⁾	7월 ²⁾	8월 ²⁾
민간소비	2.6	1.7	1.5	1.4	1.8	1.5	1.7	-	-
소매판매	2.4	0.8	1.5	1.9	1.7	1.6	2.9	2.1	1.8
내구재	5.6	2.5	5.7	6.9	5.1	8.0	8.8	6.7	9.4
* 승용차	14.1	15.6	15.2	21.3	16.6	17.4	18.1	13.5	16.0
준내구재	-1.8	-2.2	1.4	0.4	-0.6	-1.6	-0.9	-3.1	-4.8
비내구재	2.6	1.4	-0.5	-0.1	0.8	-0.4	1.4	1.4	0.4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5년 2/4분기 설비투자는 장기간의 투자부진에 따른 노후설비 교체수요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조달 비용 상승 우려 등으로 5.0% 증가하였음.

○ 설비투자지수는 제조업 생산 감소 등으로 전분기대비 3.2%p 하락한 5.2%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는 기저효과로 15.7% 증가하였음.

- 7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어 7.0% 상승하였으며 8월 2014년 8월 투자지수가 9.8% 감소했던 데 대한 기저효과와 기계류투자 확대에 17.1% 증가하였음.

- 국내기계수주는 2014년 2/4분기 큰 폭으로 둔화되었던데 대한 기저효과로 15.7% 증가함.
- 7월 국내기계수주는 자동차, 전자 및 영상음향통신 업종을 중심으로 13.4% 증가함.
- 민간수주(-3.9%) 감소와 2014년 8월 공공부문 수주 급증으로 152.2% 증가했던데 대한 기저효과로 8월 국내기계수주는 59.6% 줄어들었음.

〈표 23〉 투자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²⁾	7월 ²⁾	8월 ²⁾
설비투자	7.2	7.7	4.2	4.2	5.8	5.8	5.0	-	-
설비투자지수	7.5	6.7	1.5	5.4	5.0	8.4	5.2	7.0	17.1
기계류	7.3	3.9	-0.9	5.4	3.9	11.0	3.8	8.2	11.6
운송장비	7.8	14.4	7.8	5.5	8.0	2.1	8.7	4.6	31.5
국내기계수주 ³⁾	18.5	4.0	49.4	-6.3	13.3	-2.6	15.7	13.4	-59.6
건설투자	4.1	0.2	2.3	-1.4	1.0	0.6	1.6	-	-
건설기성(불변)	6.6	0.1	-1.9	-5.9	7.8	-2.0	-3.9	0.3	4.5
건축	17.2	11.9	5.9	-0.9	-16.3	-0.4	-3.7	6.4	7.7
토목	-7.4	-15.4	-13.2	-12.4	0.0	-4.6	-4.3	-10.7	-1.0
국내건설수주(경상)	15.5	25.4	42.8	-7.5	21.5	55.4	50.0	23.5	-3.7
건축	11.2	45.6	61.8	-5.0	-33.1	87.7	50.0	27.1	-7.1
토목	24.0	-11.5	-6.2	-13.1	0.0	-1.5	50.0	9.4	22.7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단,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경우 2013년, 2014년 모두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5년 2/4분기 건설투자는 주택가격 상승세, 시장금리 하락,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완화, 전세가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용건물투자를 중심으로 1.6% 증가하였음.

- 2/4분기 건설기성은 공공청사 이전 마무리 등으로 건축 및 토목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3.9% 줄어들었음.
- 그러나 7월과 8월 주거용 건물 건설 증가로 각각 0.3%, 4.5%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임.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주택경기 회복세 등으로 주택 수주가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발전소 및 도로, 철도 등 토목 건설 수주¹⁷⁾ 및 민간부문의 플랜트 공사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50.0% 늘어남.
- 그러나 7월에는 5~6월 국내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데 대한 기저효과로 건축과 토목 수주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8월 건축 부문 수주가 감소하면서 3.7% 줄어들었음.

〈고용〉

- 2015년 2/4분기 취업자 증가율은 지난 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데 대한 기저효과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내수 부진, 수출 감소와 대내외 불안 요인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둔화되었고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소폭 상승하였음.
- 총취업자 수는 메르스 확산 여파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 둔화로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1.2% 증가하였으며 7월 기저효과로 1.3% 늘어나는데 그침.
- 청년취업자 수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2.3% 증가하였으나 7월과 8월 증가세가 큰 폭으로 줄어 각각 0.5%, 0.9% 늘어나는데 그침.
-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1.7%p 상승한 60.7%를 나타냈으며 7월에도 61.1%를 기록함.
- 2015년 2/4분기 실업률의 경우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3.8%를 기록하였음.
- 2/4분기 청년실업률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9.9%를 기록하였으며 7월에도 9.4%를 나타내는 등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4년 9.0%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지속함.¹⁸⁾

17) 국내건설수주는 5월과 6월 각각 83.7%, 46.7% 늘어났는데 이는 주택건설 수주가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5월 중앙선 복선전철 수주, 6월 신고리 5, 6호기 주설비 수주 등 토목 부문 수주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18)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70%대의 대학 진학률, 취업준비 장기화 등 구조적 요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직적 임금체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등으로 청년 취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 3. 18)). 또한 금융·보험·교육서비스업 등 고학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감소하고 대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토론회(2015. 6. 22)).

〈표 24〉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총취업자 ¹⁾	3.0	1.8	2.0	1.7	2.1	1.4	1.2	1.3	1.0
청년취업자 ¹⁾	2.6	1.4	2.7	1.5	2.0	0.8	2.3	0.5	0.9
고용률 ²⁾	58.8	60.8	60.9	60.4	60.2	59.0	60.7	61.1	60.7
실업률 ³⁾	4.0	3.7	3.3	3.2	3.5	4.1	3.8	3.7	3.4
청년 ⁴⁾ 실업률 ³⁾	9.8	9.4	8.6	8.3	9.0	10.3	9.9	9.4	8.0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1.0	-3.3	-7.0	-7.2	-4.5	-7.4	-7.7	-5.7	-7.1
광공업	2.9	3.2	4.6	2.9	3.4	3.1	3.3	3.9	3.6
제조업	3.0	3.3	4.7	3.0	3.5	3.2	3.4	3.9	3.6
SOC ⁵⁾ 및 기타서비스업	3.2	2.0	2.3	2.1	2.4	1.6	1.5	1.2	1.1
건설업	1.6	0.7	3.3	4.0	2.4	4.3	2.4	1.4	0.6
도·소매, 음식, 숙박	5.5	3.8	4.9	4.2	4.6	2.5	2.2	1.5	0.5
전기, 운수, 통신, 금융	1.9	-0.5	-2.5	-1.3	-0.6	-0.9	-0.1	0.6	2.2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2.4	1.9	2.1	1.5	2.0	1.3	1.3	1.3	1.2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5년 2/4분기 제조업 고용 증가세는 확대된 반면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메르스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가 위축으로 고용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었음.

-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고령화 및 농산물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7.7% 줄어들었으며 7월에도 5.7% 감소하였음.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¹⁹⁾는 수출 부진에 따른 산업생산 감소와 가동률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3.3%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도 각각 3.9%, 3.6% 늘어났음.
- 2/4분기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메르스 확산의 영향으로 도·소매, 음식, 숙박업 및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1.5%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7월과 8월에도 고용 둔화가 지속됨.

19) 제조업 포함.

- 건설업 취업자 수는 1/4분기 4.3% 증가한데 대한 기저효과로 2.4%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2014년 상반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음.
-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의 경우 메르스 확산의 영향으로 2.2%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7월과 8월에도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가 지속됨.
-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취업자 수의 경우 0.1% 감소하였으나 2014년 2/4분기 이후의 감소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7월 0.6%, 8월 2.2% 증가하였음.
- 2015년 2/4분기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수는 전분기와 동일한 1.3% 증가하였으며 7월 1.3%, 8월 1.2% 늘어나는데 그침.

〈대외거래〉

- 2015년 2/4분기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2% 감소한 1,351억 3,945만 달러, 수입은 15.6% 줄어든 1,105억 4,310만 달러를 시현하였고 무역수지는 245억 9,636만 달러 흑자를 나타냄.
 - 수출의 경우, 식료 및 직접소비재(+0.7%)를 제외한 원료 및 연료(-28.2%), 경공업 제품(-9.5%), 중화학 공업품(-4.6%)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음.²⁰⁾
 - 7월과 8월 수출은 유가 하락, 엔화 및 유로화 약세, 수출단가 급락, 중국 경기 위축, 역내 수출경쟁 심화, 신흥시장 수요 위축 등이 지속되면서 각각 5.1%, 14.9% 줄어들었음.
 - 수입의 경우, 석탄, 철강, 원유 등 주요 원자재 단가 하락 지속으로 자본재(-0.7%)와 원자재(-26.6%) 수입이 감소하였음.
 - 7월과 8월 수입도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각각 15.3%, 18.3% 줄어들었음.

20) 특히 4월 석유제품·석유화학 생산시설 정기보수와 석유제품·석유화학 단가하락(유가하락)이 겹쳐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었음(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5. 5. 1)).

〈표 25〉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4.8	4.5	9.4	-2.2	3.9	-3.3	0.7	0.9	-14.6
	원료 및 연료	-7.5	2.9	3.3	-10.9	-3.2	-36.0	-28.2	-28.4	-37.6
	경공업 제품	-2.6	-0.4	-0.1	-0.9	-1.0	-5.3	-9.5	-7.6	-13.2
	중화학 공업품	3.4	3.5	3.9	2.6	3.3	1.8	-4.6	-1.9	-11.6
	전체	1.6	3.2	3.6	0.9	2.3	-3.0	-7.2	-5.1	-14.9
	금액(억 달러)	1,375	1,457	1,418	1,477	5,727	1,334	1,351	457	392
수입	소비재	9.7	12.8	19.0	7.4	12.1	8.1	2.2	-2.6	3.0
	원자재	0.8	0.9	4.8	-8.6	-0.6	-29.3	-26.6	-26.4	-34.3
	자본재	1.9	4.6	1.2	5.2	3.3	6.9	-0.7	2.0	9.7
	전체	2.0	3.3	5.4	-2.8	1.9	-15.5	-15.6	-15.3	-18.3
	금액(억 달러)	1,324	1,310	1,328	1,294	5,255	1,118	1,105	388	350
무역수지(억 달러)		51.7	147.2	89.2	183.5	471.5	216.0	246.0	69.1	42.7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3) 수출과 수입은 2015년 5월까지 확정치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5년 2/4분기 지역별 수출의 경우 엔저 영향 본격화,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성장 둔화 등으로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하였고 수입도 내수부진 지속,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주요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모두 줄어들었음.

○ 2/4분기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세가 확대된 가운데 ASEAN으로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1% 감소하였고, 對일본 수출도 13.0% 줄어들었음.

- 7월과 8월 對중국 및 對일본, 對중동, 對중남미 수출 감소세는 확대되었음.

○ 2/4분기 유가 하락, 수출 부진 지속,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37.5% 줄어들었음.

- 7월과 8월 중국 및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외한 주요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특히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7월 36.1%, 8월 50.3% 줄어들었음.

〈표 26〉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구분		비중 ¹⁾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수출	중국	25.4	-2.8	-1.7	0.4	-0.4	-1.6	-2.7	-6.5	-9.1
	ASEAN	14.8	1.7	3.8	-3.0	3.1	-17.8	-10.1	-1.7	-7.2
	미국	12.3	13.0	15.0	21.9	13.3	13.3	-1.0	1.4	-4.6
	EU	9.0	6.9	4.3	-4.1	5.7	-21.2	-8.5	-6.0	-20.8
	중남미	6.3	-15.5	13.6	14.6	-1.1	18.1	-12.7	-16.7	-21.2
	중동	6.1	6.9	19.0	9.3	7.7	-3.7	-6.7	-18.7	-19.2
	일본	5.6	0.0	-3.5	-13.9	-7.2	-22.2	-13.0	-28.8	-24.7
	전체	100.0	3.2	3.6	0.9	2.3	-3.0	-7.2	-5.1	-14.9
수입	중동	22.7	-1.0	0.8	-18.8	-5.6	-41.6	-37.5	-36.1	-50.3
	중국	17.1	8.2	7.7	12.1	8.5	7.1	-4.1	2.7	5.7
	동남아	13.5	-0.1	5.2	-2.1	1.4	-6.8	-14.0	-9.8	-12.7
	EU	11.9	18.9	11.2	5.5	11.0	-7.8	-4.5	-16.4	-3.4
	일본	10.2	-10.5	-8.9	-8.3	-10.4	-8.9	-13.2	-14.8	-17.9
	미국	8.6	10.8	11.8	4.1	9.1	-7.2	-2.7	6.0	14.8
	호주	3.9	-2.0	-3.5	-11.5	-1.8	-19.3	-22.2	-14.2	-19.9
	전체	100.0	3.3	5.4	-2.8	1.9	-15.5	-15.6	-15.3	-18.3

주: 1) 2014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물가〉

■ 2015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량 증가세 확대에도 수출 감소 및 내수부진 지속에 따른 고용 부진과 명목임금 상승률 하락, 낮은 국제유가 수준과 도시가스요금 인하, 농산물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0.5%를 나타냄.

○ 상품가격 상승률의 경우 유가 및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로 공업제품 및 전기·수도·가스 물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0.8%를 나타냄.

- 전기·수도·가스 가격의 경우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으로 도시가스요금²¹⁾이 세 차례에 걸쳐 인하되었고 7월에는 전기요금도 하향조정²²⁾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음.

○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1.6%를 나타냈으나 7월 시내버스 및 전철 요금 인상²³⁾ 등으로 2.0%를 기록함.

■ 2015년 2/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전분기보다 1.6 하락한 103.0을 나타냈으며 7월 101.9, 8월 103.0을 기록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냄.

〈표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소비자기대지수 ¹⁾	118.4	115.7	114.1	118.4	113.0	104.6	103.0	101.9	103.0
소비자물가 상승률	1.1	1.6	1.4	1.0	1.3	0.6	0.5	0.7	0.7
〈품목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농축수산물	1.0	1.6	1.0	0.2	1.0	-0.7	-0.8	-0.8	-0.8
공업제품	-4.7	-2.2	-3.3	-0.3	-0.6	0.3	2.1	3.7	3.4
전기·수도·가스	1.6	2.0	1.6	-0.1	0.9	-0.4	-0.3	-0.2	-0.1
서비스	5.4	4.2	3.4	2.5	4.5	-3.7	-8.0	-11.3	-11.3
집세	1.3	1.6	1.7	1.6	1.5	1.6	1.6	2.0	2.0
공공서비스	2.5	2.4	2.3	2.2	2.7	2.3	2.4	2.6	2.7
개인서비스	0.7	0.7	0.9	0.7	0.7	0.5	0.5	1.6	1.9
개인서비스	1.2	1.8	1.9	1.8	1.6	1.8	1.9	1.9	1.7

주: 1) 소비자 기대 및 평가지수가 2008년 8월까지 통계청에서 작성된 후 2008년 9월부터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지수로 개편되었으나,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85.0/77.0 × 향후경기전망CSI(Consumer Sentiment Index)'으로 산출함.

2)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21) 2015년 1월 5.9%, 2015년 3월 10.1%, 5월 10.3% 세 차례 인하하였음.

22) 7~9월 주택용 요금 누진 4구간에서 3구간 요금 적용.

23) 시내버스 8.8%, 전철 15.2% 인상되었음.

〈가계소득〉

■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기초연금 도입, 명목임금 상승²⁴⁾ 등으로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2.9% 증가하였으며 월평균소비지출은 전분기대비 0.7%p 상승한 0.7% 늘어났음.

○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7만 1,000원으로 전년동기기에 비해 2.9% 증가하였고 실질소득 증가율도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2.3%을 나타냄.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48만 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하였으며 흑자액은 98만 9,000원으로 9.6% 증가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0.7% 늘어난 249만 4,000원을 기록하였으나 실질소비지출은 0.1% 증가하는데 그쳐 흑자액은 9.6% 증가함.

- 평균소비성향이 71.6%로 전년동기보다 1.7%p 하락하면서²⁵⁾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28.4%로 전년동기대비 1.7%p 상승함.

〈표 28〉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지표

(단위: %, %p)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만 원)	440.3	415.2	438.8	426.4	430.2	451.7	427.1
	증가율	5.0	2.8	3.0	2.4	3.4	2.6	2.9
	실질증가율 ²⁾	3.9	1.1	1.6	1.4	2.1	2.0	2.3
처분가능 소득	금액(만 원)	356.3	338.1	355.0	350.3	349.8	366.8	348.4
	증가율	5.1	2.8	2.8	2.9	3.5	3.0	3.1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만 원)	265.4	247.8	257.6	250.6	255.1	265.3	249.4
	증가율	4.4	3.1	3.3	0.9	2.8	0.0	0.7
	실질증가율 ²⁾	3.2	1.5	1.9	-0.1	1.5	-0.6	0.1
흑자액	금액(만 원)	90.9	90.3	97.4	99.7	94.7	101.5	98.9
	증가율	7.3	2.2	1.6	8.3	5.2	11.6	9.6
평균소비성향 ³⁾		74.5	73.3	72.6	71.5	72.9	72.3	71.6
흑자율 ⁴⁾		25.5	26.7	27.4	28.5	27.1	27.7	28.4

주: 1) 전년동(분)기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24) 명목임금상승률: 2014년 2/4분기 1.8% → 2014년 3/4분기 1.5% → 2014년 4/4분기 4.0% → 2015년 1/4분기 3.1% → 2015년 2/4분기 2.9%

25) 메르스 여파 등으로 소득증가세에 비해 소비지출이 더딘 속도로 증가하면서 소비성향이 하락함(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 8. 22)).

3. 금융경제

2015년 3/4분기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중국 경제 불확실성, 미 연준의 금리인상 동결, 국내 경제지표부진 등의 영향으로 2015년 2/4분기보다 8bp 하락한 1.72%를 나타냄. 2015년 3/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 및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의 요인에 따라 2015년 2/4분기 평균 환율보다 70원 상승한 1,167.8원을 기록함. 2015년 3/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중국 경기 침체, 북한 포격 도발, 국내 경제전망치 하향 조정 등의 하방리스크의 영향으로 전분기 평균 2,094.02보다 하락한 평균 1,986.99를 기록함. 2015년 2/4분기 보험권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31.9% 증가하였고, 금융권 순수신의 경우 은행을 제외한 모든 업권이 감소함.

〈금리〉

■ 2015년 3/4분기 기준금리는 1.50%로 지난 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회복, 국내 경제 회복세를 예상했으나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국 성장세 약화, 국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증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1.5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2015년 3/4분기 평균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중국 경제 불확실성 등 대외 불안 요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국내 경제지표 부진, 미 연준의 금리인상 동결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8bp 하락한 1.72%임.

- 7월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와 2015년 2/4분기 성장률 부진,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지속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2015년 6월 평균 1.77%보다 1bp 상승한 1.78%였음.
- 8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8월 중 수출 감소폭 확대, 중국 위안화 절하 등에 따른 안전자산 매수세 확대, 미 연준 금리인상 기대 약화 등의 요인으로 7월 평균 국고채 금리보다 4bp 하락하여 1.74%를 기록함.
- 9월 국고채 금리는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8bp 하락하여 평균 1.65%를 나타냄.

■ 2015년 3/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1.63%로 5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며, 신용 스프레드

는 전분기대비 2bp 상승함.

- 3/4분기 CD금리는 일부 은행의 저금리 CD 발행, 단기수신의 증가 등의 영향로 전분기 대비 14bp 하락한 평균 1.72%였음.
- 3/4분기 평균 ‘국고채(3년)-CD(91일)’ 간 스프레드는 전분기대비 6bp 상승한 9bp임.
- 회사채 금리는 3/4분기 평균 1.98%로 전분기대비 6bp 하락하였고, 신용 스프레드는 전분기대비 2bp 상승한 평균 26bp임.

〈표 29〉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단위: %, %p)

구분	2014 3/4	2014 4/4	2015 1/4	2015 2/4	2015 3/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기준금리	2.25	2.00	1.75	1.50	1.50	0.00	-0.75
CD(91일)	2.51	2.16	2.07	1.77	1.63	-0.14	-0.88
국고채(3년)	2.50	2.17	1.97	1.80	1.72	-0.08	-0.78
회사채(3년, AA-)	2.89	2.51	2.26	2.04	1.98	-0.06	-0.91
스프레드(국고채-CD)	-0.01	0.01	-0.09	0.03	0.09	0.06	0.10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39	0.34	0.28	0.24	0.26	0.02	-0.13

주: 금리는 분기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환율〉

■ 2015년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안전자산 선호,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70원 상승하여 평균 1,167.8원을 기록함.

- 7월 원/달러 환율은 중국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통화 선호, 미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등으로 인해 6월 평균 원/달러 환율 1,112.6원보다 상승하여 평균 1,143.2원을 기록함.
- 8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강세, 중국 경기둔화 우려, 북한 포격 도발 등의 영향으로 7월 평균 원/달러 환율보다 상승한 1,179.1원이었음.
- 9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글로벌 달러화 강세, 국내 경기둔화 우려 등의 영향을 받아 상승하여 1,184.8원을 나타냄.

〈표 30〉 환율 추이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4		2015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원/달러	1,025.8	1,086.7	1,100.3	1,097.8	1,167.8	1,143.2	1,179.1	1,184.8
엔/달러	103.8	114.5	119.2	121.4	122.2	123.3	123.1	120.2
달러/유로	1.328	1.249	1.127	1.105	1.112	1.100	1.113	1.124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 2015년 3/4분기 달러화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스 정국불안, 중국 경제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강세를 지속함.

○ 7월 달러화는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와 미 경제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엔화에는 약세를 보이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의 영향으로 유로화에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 평균 엔/달러 환율과 달러/유로 환율은 각각 123.3엔, 1.100달러였음.

○ 8월 달러화는 중국발 글로벌 경기둔화, 안전자산수요 증가, 중국 통화 완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엔화와 유로화에 약세를 보이며 평균 엔/달러 환율은 123.1엔으로 전달대비 소폭 하락하고, 평균 달러/유로 환율은 1.113달러로 전달대비 상승함.

○ 9월 달러화는 미국 기준금리 동결, 중국 실물경제지표 부진, 안전자산수요 지속 등의 영향을 받아 엔화와 유로화에 약세를 지속하여 평균 엔/달러, 달러/유로 환율은 각각 120.2엔, 1.124달러를 나타냄.

〈주가지수〉

■ 2015년 3/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중국 경기 침체, 북한 리스크, 국내 경제전망치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평균 2,094.02보다 하락한 평균 1,986.99를 기록함.

○ 7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한국은행 경제전망치 하향조정, 외국인 순매도 지속의 영향으로 2015년 6월 2,063.69에 비해 하락한 2,058.03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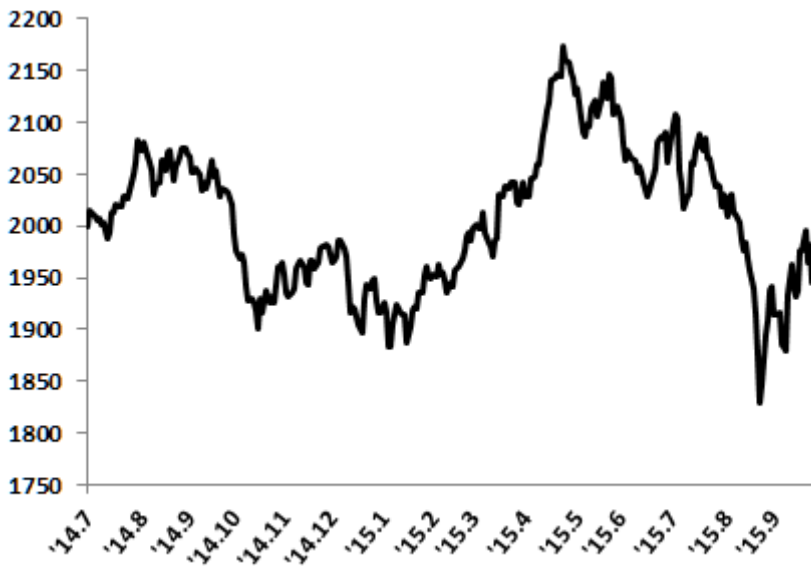
- 한국은행은 7월 9일 '2015년 한국 경제전망치'를 3.1%에서 2.8%로 약 0.3%p 하향 조정함.

○ 8월 종합주가지수는 중국 증시 급락,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 북한 포격도발, 국제유가

하락 등의 다양한 하방리스크가 작용하여 평균 1,952.55를 기록함.

- 9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외국인 매수세 전환, S&P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 주가 상승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하락,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의 2015년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의 영향을 받아 1,939.73로 하락함.

〈그림 4〉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금흐름〉

- 2015년 2/4분기 보험권 총 순수신은 18조 4,247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31.9% 증가함.
 - 2/4분기 생명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8.9% 증가한 11조 4,114억 원임.
 - 수입보험료는 27조 8,525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1.9% 증가한 반면 지급보험금은 16조 4,412억 원으로 2.4% 감소함.
 - 2/4분기 손해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약 3조 5,355억 원이 늘어난 7조 133억 원임.
 - 원수보험료와 원수손해액 모두 전분기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원수손해액 증가율을 상회하며 순수신이 증가함.

■ 2015년 2/4분기 금융권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은행을 제외한 증권, 자산운용 모두 감소함.

- 은행의 경우 전분기대비 신탁계정은 감소하였으나, 일반계정이 대폭 증가하여 각각 감소하고, 신탁계정이 증가하여 총 순수신이 전분기대비 23조 1,920억 원 증가한 37조 258억 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은 전분기대비 약 29조 8,584억 원이 증가하였고, 신탁계정은 전분기대비 약 6조 6,664억 원 감소하면서 각각 32조 7,515억 원, 4조 2,743억 원을 시현함.
- 증권사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14.9% 감소한 5조 5,742억 원임.
- 자산운용업의 총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11조 5,990억 원 감소한 16조 3,004억 원을 기록함.
 - 주식형펀드는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을 위한 환매규모 증가로 감소함.
 - MMF는 기타 단기금융상품대비 금리메리트가 축소되었으며, 일부 은행의 자금 인출 등의 영향으로 감소함.

〈표 31〉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3/4	4/4	1/4	2/4	3/4	4/4	1/4	2/4	3/4
보험 ¹⁾	138,497	167,547	133,551	145,570	135,769	196,083	139,618	184,247	-
- 생보	108,554	135,447	101,936	110,963	104,478	165,865	104,840	114,114	-
수입보험료	240,001	287,363	257,467	264,960	255,554	327,771	273,358	278,525	-
지급보험금	131,447	151,916	155,531	153,998	151,076	161,906	168,518	164,412	-
- 손보	29,943	32,100	31,615	34,607	31,291	30,218	34,778	70,133	-
원수보험료	171,156	192,842	183,082	180,217	179,023	223,433	193,204	385,360	-
원수손해액	141,213	160,742	151,466	145,610	147,732	193,215	158,425	315,227	-
은행	-31,782	229,979	272,496	250,005	76,442	391,862	138,338	370,258	407,283
- 일반 ²⁾	-40,955	128,580	199,612	231,527	32,411	314,189	28,931	327,515	338,489
- 신탁	9,173	101,399	72,884	18,478	44,031	77,673	109,407	42,743	68,794
증권 ³⁾	-5,597	-47,513	6,904	19,088	53,478	-6,648	65,495	55,742	-3,238
자산운용 ⁴⁾	-9,264	-41,835	96,918	16,946	196,161	160,044	278,994	163,004	80,769
종금 ⁵⁾	1,082	2,444	8,863	2,733	826	3,420	-	6,816	8,403

주: 1)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총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 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 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2015년 2/4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5.1%, 6.6%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5.7% 늘어난 47조 682억 원을 시현함.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늘어나 전분기대비 1.1% 증가한 903조 3,075억 원을 기록함. 한편, 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2.5%를 나타냄.

가. 수입보험료

■ 2015년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성장하며 전년동기대비 5.7% 늘어난 47조 682억 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모두 성장하여 5.1% 증가한 27조 8,525억 원임.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과 퇴직연금 호조에 힘입어 6.6% 증가한 19조 2,156억 원을 기록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1),2)}

(단위: 조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⁴⁾	1/4	2/4	3/4	4/4 ³⁾	연간 ⁵⁾	1/4	2/4
생명보험	28.7	77.2	25.7	26.5	25.6	32.8	110.6	27.3	27.9
	(-8.3)	(-8.0)	(-17.8)	(8.1)	(6.5)	(14.1)	(1.9)	(6.2)	(5.1)
손해보험	19.3	53.8	18.3	18.0	17.9	22.3	76.6	19.3	19.2
	(6.8)	(4.2)	(8.0)	(3.8)	(4.6)	(15.9)	(8.3)	(5.5)	(6.6)
합계	48.0	130.4	44.1	44.5	43.5	55.1	187.2	46.7	47.1
	(-2.8)	(-3.4)	(-8.8)	(6.4)	(5.7)	(14.8)	(4.4)	(5.9)	(5.7)

주: 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5) 2014년은 2014년 1~12월 말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 2015년 2/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만기보유 금융자산의 증가 등에 따라 전분기대비 1.1% 늘어난 903조 3,075억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 총자산 규모는 만기보유증권과 당기손익인식증권 증가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0.8% 증가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만기보유 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2.1% 늘어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1),2)}

(단위: 조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⁴⁾	1/4	2/4
생명보험	597.5	597.5	609.2	625.0	640.4	662.1	662.1	685.7	691.0
	(2.3)	(9.1)	(2.0)	(2.6)	(2.5)	(3.4)	(10.8)	(3.6)	(0.8)
손해보험	170.6	170.6	176.9	185.1	191.4	200.3	200.3	207.9	212.3
	(3.3)	(12.4)	(3.7)	(4.6)	(3.4)	(4.7)	(17.4)	(3.6)	(2.1)
합계	768.0	768.0	786.1	810.2	831.8	862.4	862.4	893.6	903.3
	(2.5)	(9.8)	(2.4)	(3.1)	(2.7)	(3.7)	(12.3)	(3.6)	(1.1)

주: 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음.

2)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수치와 비교함.

4) 2014년은 2014년 12월 말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2월 말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익성

■ 2015년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의 경우 생명보험은 상승하고, 손해보험(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제외)은 하락하여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2.5%임.

○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의 경우 당기순이익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한 2.4%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 증가율이 당기순이익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한 2.8%를 나타냄.

〈표 3〉 보험산업 자본이익률^{1),2)}

(단위: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1/4	2/4	3/4	4/4 ³⁾	연간	1/4	2/4
생명보험	0.7	4.0	1.9	2.0	2.0	0.3	5.9	2.1	2.4
손해보험	1.5	6.7	2.6	3.0	2.2	0.9	8.7	2.8	2.8
합계	0.9	4.7	2.1	2.3	2.0	0.4	6.6	2.3	2.5

주: 1)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농협생명·화재보험의 진입으로 FY2012 1/4분기부터 각각 24개, 18개 국내외 보험 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FY2013 3/3분기 이후 생명보험회사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진입으로 25개 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3)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4)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2015년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한 27조 8,525억 원을,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0.8% 증가한 691조 113억 원을 기록함. 2015년 2/4분기 당기순이익은 투자영업이익은 감소하였으나 보험영업이익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43.9% 증가한 1조 5,175억 원을 나타냈으며, 운용자산 이익률과 자본이익률은 각각 4.29%, 2.43%임. 2015년 2/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임직원 채널을 제외한 모든 채널이 상승하였으며, 모집조직은 전분기대비 대리점만 감소함.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개요〉

■ 2015년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5.1% 늘어난 27조 8,525억 원을 기록함(〈표 4〉 참조).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 종목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인 퇴직연금 성장에 힘입어 13.5% 늘어남.

■ 2015년 2/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만기보유증권과 당기손익인식증권 증가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0.8% 증가한 691조 113억 원을 시현함.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1),2),3)}

(단위: 조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1/4	2/4
수입보험료 ²⁾	28.7	77.2	25.7	26.5	25.6	32.8	110.6	27.3	27.9
	(-8.3)	(-8.0)	(-17.8)	(8.1)	(6.5)	(14.1)	(1.9)	(6.2)	(5.1)
총자산	597.5	597.5	609.2	625.0	640.4	662.1	662.1	685.7	691.0
	(2.3)	(2.3)	(2.0)	(2.6)	(2.5)	(3.4)	(3.4)	(3.6)	(0.8)

주: 1) () 안은 수입보험료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하였고,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 특별계정 보험종목인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 퇴직연금을 포함한 실적임.

3)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5)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2015년 2/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모든 종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신계약 보험료인 초회보험료가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 가장 낮은 수치인 0.8% 증가에 그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마케팅 강화와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겸비된 연금 선지급형 종신보험이 인기를 끌면서 7.7% 늘어남.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2014년 2/4분기 성장세로 전환된 뒤로 5분기 연속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2/4분기 3.6% 증가하며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변액보험의 경우 시중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변액연금을 제외한 변액보험 전 종목이 증가하면서 최근 가장 큰 폭인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함.

■ 2015년 2/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사적연금시장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초회보험료와 계속보험료 모두 증가하면서 2014년 45.8% 성장하였으며, 2015년 들어서도 1/4분기 22.0%, 2/4분기 15.6% 성장함.
- 반면 일반단체보험의 경우 기업들의 퇴직급여 재원마련을 위한 복지비용 축소에 따라 2014년 2.5% 감소하였으며, 2015년 들어서도 1/4분기 3.4%, 2/4분기 4.9% 감소세를 보임.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1/4	2/4
생존	보험료	55,496	162,636	58,006	60,647	58,776	62,910	240,340	62,882	61,157
	증가율	-39.2	-32.0	-40.6	14.1	8.9	13.4	-7.6	8.4	0.8
	구성비	19.3	21.1	22.5	22.9	23.0	19.2	21.7	23.0	22.0
사망	보험료	80,289	238,660	81,286	82,133	83,131	85,238	331,788	89,041	88,434
	증가율	4.0	3.8	3.6	4.1	4.6	6.2	4.6	9.5	7.7
	구성비	27.9	30.9	31.6	31.0	32.5	26.0	30.0	32.6	31.8
생사 혼합	보험료	45,910	139,738	50,697	51,639	49,171	49,038	200,544	51,932	53,500
	증가율	-13.2	-9.0	-25.5	8.5	6.4	6.8	-3.5	2.4	3.6
	구성비	16.0	18.1	19.7	19.5	19.2	15.0	18.1	19.0	19.2
변액 보험	보험료	51,498	155,443	51,884	51,246	51,622	51,957	206,709	51,122	53,539
	증가율	-2.5	-0.9	-6.2	-2.5	0.5	0.9	-1.9	-1.5	4.5
	구성비	17.9	20.1	20.2	19.3	20.2	15.9	18.7	18.7	19.2
개인계	보험료	233,194	696,477	241,873	245,665	242,701	249,143	979,382	254,977	256,631
	증가율	-15.0	-10.6	-19.2	5.8	5.0	6.8	-1.7	5.4	4.5
	구성비	81.1	90.2	93.9	92.7	95.0	76.0	88.6	93.3	92.1
단체	보험료	54,169	75,891	15,594	19,295	12,853	78,629	126,371	18,381	21,895
	증가율	38.6	25.7	13.2	51.2	43.5	45.2	45.8	17.9	13.5
	구성비	18.9	9.8	6.1	7.3	5.0	24.0	11.4	6.7	7.9
합계	보험료	287,363	772,367	257,467	264,960	255,554	327,771	1,105,753	273,358	278,525
	증가율	-8.3	-8.0	-17.8	8.1	6.5	14.1	1.9	6.2	5.1

주: 1) 단체보험에는 특별계정의 퇴직보험, 퇴직연금 포함됨.

2)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3)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FY2013은 2013년 4~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수치와 비교함.

5)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2015년 2/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사망보험과 단체보험 비중이 소폭 확대됨.

○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은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9%p, 0.3%p 하락하여 각각 22.0%, 19.2%를 기록하였으며, 사망보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0.8%p 상승한 31.8%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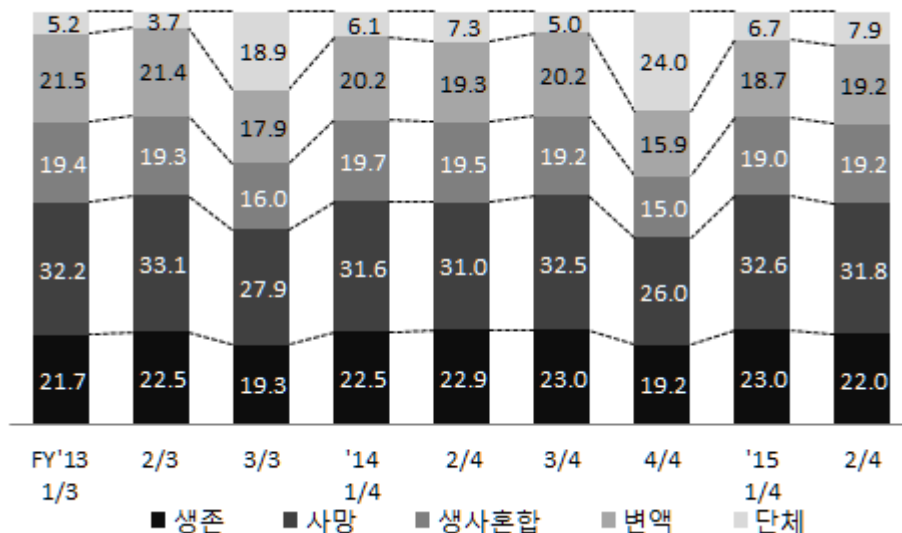
- 2013년 2/4분기부터 9분기 연속 사망보험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마케팅 강화 전략의 영향임.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19.2%임.

○ 개인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높은 단체보험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0.6%p 상승하며 7.9%를 나타냄.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5년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상위 3사는 하락하였고, 중·소형사는 상승하였으며, 외국사는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함.

○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은 46.4%로 전년동기 48.2%에 비하여 1.8%p 하락함.

○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1.7%p 상승한 39.9%를 기록함.

○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인 13.7%를 기록함.

■ 2015년 2/4분기 허핀달 지수는 0.1061로 전년동기대비 0.0027p 하락하면서 시장집중도가 하락함.

〈표 6〉 생명보험시장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¹⁾

(단위: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⁵⁾	1/4	2/4	3/4	4/4	연간 ⁵⁾	1/4	2/4
상위 3사	53.2	49.6	47.5	48.2	48.0	51.7	49.0	47.1	46.4
국내중·소형사 ²⁾	31.3	33.5	38.6	38.2	37.8	37.2	37.9	39.7	39.9
외국사 ³⁾	15.6	16.9	13.9	13.7	14.2	11.1	13.1	13.1	13.7
허핀달 지수 ⁴⁾	0.1284	0.1140	0.1070	0.1088	0.1082	0.1315	0.1138	0.1074	0.1061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국내 중·소형사(15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정의하며 2013년 말 ING생명이 국내법인에 매각되어 2014년 1/4분기부터 국내 중·소형사에 포함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으로 2015년 6월 말 알리안츠생명 등 8개사임.

4)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5) FY2013은 2013년 4~12월 말 수치이며, 2014년은 2014년 1~12월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2015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한 59.0%를 나타냄.

- 생존보험은 지급보험금이 15.1% 증가하면서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7.0%p 상승한 56.5%임.
- 사망보험은 지급보험금이 2.0% 증가하였으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지급보험금 증가율을 상회하였고, 생사혼합보험은 지급보험금이 1.1% 감소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7%p, 2.6%p 하락하여 각각 47.9%, 55.5%를 기록함.
- 변액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5.1%p 상승한 69.5%를 나타냄.
- 단체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지급보험금 증가율보다 높아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6.7%p 하락한 94.2%임.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의 비율인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1.3%p 하락한 13.7%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0.3%p 하락한 4.6%를 기록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1/4	2/4
보험금 지급률 ¹⁾	52.9	54.2	60.4	58.1	59.1	49.4	56.3	61.6	59.0
개인	57.8	54.6	57.0	54.8	56.2	54.3	55.6	56.8	56.0
생존	53.8	50.7	53.1	49.5	52.8	53.3	52.2	53.7	56.5
사망	55.1	54.4	55.8	50.6	51.3	51.1	52.2	50.5	47.9
생사혼합	60.4	57.6	64.8	58.1	59.3	58.1	60.1	63.0	55.5
변액	64.1	56.1	55.5	64.4	65.1	57.0	60.5	65.1	69.5
단체	31.7	51.3	113.7	100.9	113.5	33.9	62.1	129.5	94.2
사업비율 ²⁾	14.0	14.8	14.1	15.0	14.6	12.7	14.0	14.0	13.7
해지율 ³⁾	7.2	7.2	2.6	4.9	7.0	8.9	8.9	2.4	4.6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3)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4) FY2013은 2013년 4~12월 말 누계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총비용〉

■ 2015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이익은 감소하였으나 보험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3.9% 증가한 1조 5,175억 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은 전 종목 수입보험료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하였고 투자영업이익은 1.4% 감소함.

○ 책임준비금전입액이 증가하였으나 법인세가 소폭 감소하였음.

〈표 8〉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⁴⁾	1/4	2/4
총수익	보험영업	18,694	55,616	19,541	19,932	19,606	20,239	79,319	20,910	20,803
	투자영업	6,180	18,473	6,120	7,059	5,410	7,172	25,761	6,974	6,766
	영업외	1,079	3,102	1,031	1,027	1,159	1,098	4,315	1,109	1,119
	소 계	25,953	77,190	26,693	28,018	26,175	28,509	109,395	28,993	28,689
총비용	보험영업	14,893	42,804	15,370	14,870	14,739	15,302	60,281	15,659	15,136
	투자영업	1,175	3,397	900	1,461	191	1,645	4,197	1,253	1,246
	영업외	301	695	204	161	204	269	839	186	155
	소 계	16,369	46,896	16,474	16,493	15,134	17,215	65,317	17,098	16,537
수지차	보험영업	3,801	12,812	4,171	5,062	4,868	4,937	19,038	5,250	5,667
		(-55.4)	(-40.7)	(-57.8)	(13.8)	(6.7)	(29.9)	(-16.2)	(25.9)	(12.0)
	투자영업	5,005	15,076	5,220	5,598	5,219	5,527	21,564	5,721	5,520
		(6.3)	(6.0)	(3.4)	(10.9)	(3.9)	(10.4)	(7.2)	(9.6)	(-1.4)
책임준비금전입	영업외	778	2,407	828	866	954	829	3,476	924	964
	소 계	9,584	30,294	10,218	11,526	11,041	11,293	44,079	11,896	12,151
	법인세	135	740	182	277	258	90	807	332	252
	당기순이익	337	2,093	941	1,055	1,085	156	3,237	1,281	1,518
당기순이익		(-52.2)	(-15.4)	(29.7)	(24.1)	(19.8)	(-53.8)	(14.8)	(36.2)	(43.9)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3) FY2013은 2013년 4~12월 말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말 수치와 비교함.

4)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며,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부채 및 자본〉

■ 2015년 2/4분기 총부채는 계약자지분조정과 기타부채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총자본은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가로 13.9% 증가함.

○ 총부채 항목 중 계약자지분조정과 기타부채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18.7%, 19.1% 증가하였고, 총자본 항목 중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각각 12.6%, 28.7% 증가함.

- 계약자지분조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가는 시중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증가에 기인함.

〈표 9〉 생명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3/3	1/4	2/4	3/4	4/4	1/4	2/4
책임준비금	금액	421	431	441	451	462	472	483
	증가율	11.3	9.3	9.4	9.3	9.6	9.7	9.5
계약자지분조정	금액	7	7	8	8	9	11	9
	증가율	-21.0	-25.6	4.6	6.1	29.5	51.3	18.7
기타부채	금액	13	13	13	14	15	18	16
	증가율	-9.6	-11.7	-5.0	5.5	17.4	34.7	19.1
특별계정부채	금액	106	107	109	112	117	121	122
	증가율	12.6	11.0	14.3	11.3	10.3	12.5	11.6
부채총계	금액	547	558	571	584	603	622	630
	증가율	10.3	8.4	9.8	9.5	10.2	11.3	10.2
자본금	금액	10	10	10	10	10	10	10
	증가율	2.8	2.8	3.3	1.3	1.3	1.3	1.2
자본잉여금	금액	6	6	6	6	6	6	6
	증가율	2.4	1.8	1.4	1.4	2.3	2.3	1.6
이익잉여금	금액	23	23	24	25	25	26	27
	증가율	10.4	8.8	11.9	12.3	11.6	11.0	12.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13	14	15	17	20	24	20
	증가율	-22.5	-28.9	12.1	18.7	48.7	77.7	28.7
자본총계	금액	50	51	54	56	59	64	61
	증가율	-3.1	-6.9	8.8	10.7	17.9	25.8	13.9
부채 및 자본총계	금액	597	609	625	640	662	686	691
	증가율	9.1	6.9	9.7	9.6	10.8	12.6	10.6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 운용〉

■ 2015년 2/4분기 운용자산 이익률은 4.29%로 전년동기대비 0.25%p 하락하였고, 일반계정 자산이익률은 4.06%로 역시 전년동기보다 0.26%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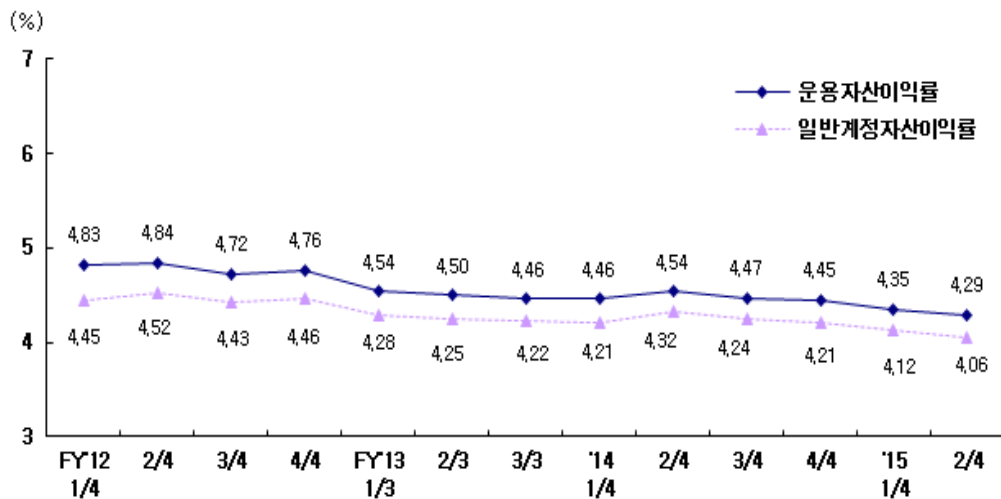
○ 운용자산 중 비중이 가장 큰 매도가능증권은 비중이 늘어나는 동시에 이익률이 전년 동기대비 0.26%p 하락한 4.09%로 나타남.

○ 2015년 2/4분기 기준금리는 1.50%로 2014년 2/4분기 기준금리 2.50%보다 1.00%p 하락함.

■ 2015년 2/4분기 일반계정 중 운용자산 비중은 유가증권 72.9%, 대출채권 17.4%, 부동산 2.6%, 현금과 예금 2.2%이며 비운용 자산 비중은 4.8%임.

○ 2014년 2/4분기와 비교해서 유가증권 비중은 1.9%p 상승하였고, 대출채권, 부동산, 현금과 예금의 비중은 각각 0.4%p, 0.3%p, 0.7%p 하락함.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1),2),3)} 추이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 환산)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10〉 생명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2014						2015			
	2/4		3/4		4/4		1/4		2/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4.32	100.0	4.24	100.0	4.21	100.0	4.12	100.0	4.06
운용자산 계	94.5	4.54	94.8	4.47	95.0	4.45	95.0	4.35	95.2	4.29
현금과 예금	2.9	2.98	2.8	3.26	3.0	3.24	2.3	2.94	2.2	3.17
유가증권	71.0	4.29	71.4	4.18	71.7	4.15	72.6	4.15	72.9	4.06
○ 당기손익인식증권 ³⁾	2.5	3.48	2.9	3.43	3.1	2.95	3.1	4.15	3.1	3.15
- 주식	0.1	0.41	0.1	5.82	0.1	-1.07	0.1	24.56	0.1	17.1
- 채권 등	0.7	4.20	0.8	4.61	0.8	4.34	0.7	6.63	0.7	5.01
- 수익증권	1.7	3.34	2.0	2.82	2.2	2.58	2.3	2.50	2.4	2.01
○ 매도가능증권	49.1	4.35	49.3	4.17	52.5	4.04	52.0	4.16	51.1	4.09
- 주식	4.1	6.75	3.8	4.89	3.9	3.44	4.0	5.04	3.7	3.14
- 채권 등	41.8	4.07	42.2	4.05	45.2	4.06	44.4	4.06	43.6	4.06
- 수익증권	3.2	4.86	3.2	4.90	3.4	4.63	3.5	4.42	3.8	5.45
○ 만기보유증권	17.8	4.42	17.6	4.47	14.5	4.84	15.9	4.27	17.1	4.28
- 채권 등	17.8	4.42	17.6	4.47	14.5	4.84	15.9	4.27	17.1	4.28
- 수익증권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6	2.47	1.7	2.43	1.7	2.65	1.6	2.83	1.6	2.60
대출채권	17.8	5.93	17.8	5.94	17.7	5.94	17.5	5.55	17.4	5.56
부동산	2.9	3.41	2.8	3.56	2.7	4.15	2.6	3.36	2.6	3.35
비운용자산	5.5	0.73	5.2	0.43	5.0	0.05	5.0	-0.22	4.8	-0.44
총자산	100.0	3.90	100.0	4.00	100.0	3.81	100.0	4.93	100.0	4.31
일반계정	82.7	4.32	82.7	4.24	83.1	4.21	82.5	4.12	82.5	4.06
특별계정	17.3	1.85	17.3	2.87	16.9	1.84	17.5	8.83	17.5	5.52
총자산 규모	6,250,250		6,403,859		6,620,752		6,856,606		6,910,114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본이익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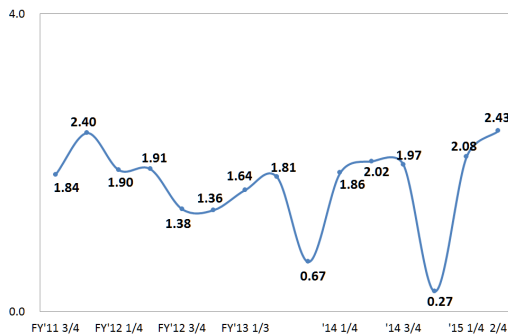
■ 2015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²⁾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인 2014 2/4분기대비 0.41%p 상승한 2.43%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3.9% 증가하고 총자본(자본총계)은 전년 동기대비 13.9% 증가하면서 자본이익률이 상승함.

○ 1개의 외국사, 3개의 중·소형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음(-)의 자본이익률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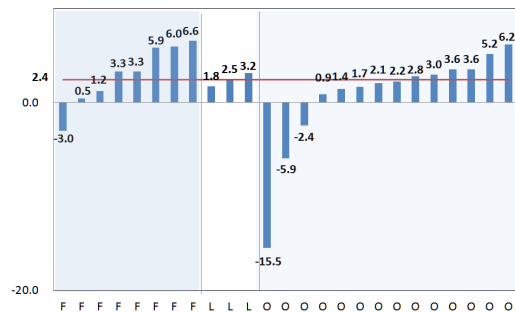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4〉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F, L, O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생명보험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5년 2/4분기 자본이익률은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모두 전년동기대비 상승함.

○ 대형사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며 전년동기에 비하여 0.09%p 상승한 2.17%을 나타냄.

○ 중·소형사의 경우 3개의 회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그 외의 회사는 모두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중·소형사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83%p 상승한 2.18%을 기록함.

○ 외국사의 경우 당기순이익 증가율 74.6%로 총자본 증가율인 12.8%를 크게 상회하며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2%p 상승한 4.02%임.

1)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E_t^o)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FY2012 1/4분기 농협생명보험, FY2013 3/3분기 교보라이프플래닛이 포함되어 25개 생명보험회사임.

2) 2015년 회계연도부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로 분류되었던 회사 분류를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로 분류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거 통계치도 동일하게 수정함.

〈표 11〉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¹⁾

(단위: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²⁾	1/4	2/4
대형사	0.60	3.49	2.08	2.08	1.75	0.27	5.93	2.10	2.17
중·소형사	0.64	2.97	1.01	1.35	2.05	0.33	4.66	1.70	2.18
외국사	1.02	6.36	1.47	2.82	3.30	-0.32	6.32	2.15	4.02
전체	0.67	4.00	1.86	2.02	1.97	0.27	5.92	2.08	2.43

주: 1)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2) FY2013는 2013년 4~12월 말, 2014는 2014 1~12월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2015년 2/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임직원 채널의 큰 폭 감소로 나머지 판매 채널이 상승함.

- 2015년 2/4분기 임직원 판매비중은 임직원 판매채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퇴직연금 초회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4%p 하락한 10.6%를 나타냄.
- 설계사와 대리점의 판매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4%p, 0.5%p 상승한 20.2%와 6.5%를 기록함.
- 방카슈랑스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2.2%p 상승한 62.2%를 기록함.

〈표 12〉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²⁾	1/4	2/4
임직원	27.8	17.3	15.5	17.0	13.4	50.8	28.2	14.8	10.6
설계사	18.9	20.3	18.0	16.8	20.9	12.7	16.4	20.1	20.2
대리점	7.2	6.7	5.7	6.0	7.4	4.5	5.7	6.4	6.5
중개사	0.0	0.0	0.0	0.0	0.1	0.0	0.0	0.1	0.0
방카슈랑스	45.8	55.4	60.5	60.0	58.0	31.8	49.6	58.3	62.2
기타	0.3	0.3	0.3	0.1	0.2	0.2	0.2	0.3	0.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8,030	100,570	39,751	42,865	35,463	66,558	184,637	44,865	38,191

주: 1)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2) FY2013은 2013년 4~12월 수치이며,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2015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 모집조직의 경우 전분기대비 임직원 및 설계사 수는 증가하고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17명 증가한 2만 7,538명임.
- 설계사의 경우 교차설계사는 증가하고 전속설계사가 감소하면서 전체설계사 수는 461명 증가한 12만 9,796명으로 나타남.
- 대리점 수는 법인대리점과 개인대리점이 모두 감소하며 전분기대비 133개 감소한 6,266개임.

〈표 13〉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3	2014				2015	
	3/3	1/4	2/4	3/4	4/4	1/4	2/4
임직원	30,380	30,453	28,532	27,288	28,111	27,521	27,538
설계사	143,075	139,161	136,028	132,900	130,366	129,335	129,796
- 전속	135,729	131,899	128,866	125,309	122,965	120,949	120,933
- 교차	7,346	7,262	7,162	7,591	7,401	8,386	8,863
대리점	7,035	7,062	7,187	7,113	6,867	6,399	6,266
- 개인	3,855	3,820	3,876	3,768	3,616	3,171	3,081
- 법인	3,180	3,242	3,311	3,345	3,251	3,228	3,185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개요〉

■ 2015년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 역성장과 일반손해보험 저성장에
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과 퇴직연금이 호조세를 보여 전체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한 19
조 2,156억 원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상해, 장기질병, 장기운전자 보험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여 5.6% 늘어난 11조 5,648억 원을 나타냄.
- 전체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10.5% 증가한 1조 7,855억 원을 시현하였는데, 개인연금
은 2.3% 감소한 반면, 퇴직연금은 IRP 확대 등에 힘입어 32.8% 증가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상, 대물담보 가입금액 확대 등으로 10.7% 증가한 3
조 7,269억 원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보험 및 해상보험 감소세로 2.5% 증가에 그친 2
조 1,401억 원을 나타냄.

■ 2015년 2/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전분기대비 2.1%
증가한 212조 2,961억 원을 나타냄.

- 일반계정 자산은 만기보유 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늘어나 전분기대비
2.3% 증가하였으며, 특별계정 자산은 전분기대비 0.1% 감소함.

〈표 1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1/4	2/4
원수보험료	53.8 (4.2)	18.3 (8.0)	18.0 (3.8)	17.9 (4.6)	22.3 (15.9)	76.6 (8.3)	19.3 (5.5)	19.2 (6.6)
장기손보	31.5 (5.6)	11.1 (7.5)	11.0 (6.1)	11.1 (4.9)	11.2 (5.9)	44.4 (6.1)	11.6 (5.1)	11.6 (5.6)
연금부문 ²⁾	6.3 (6.3)	2.0 (29.5)	1.6 (-4.3)	1.4 (9.9)	5.5 (65.7)	10.5 (34.2)	2.0 (4.0)	1.8 (10.5)
자동차	9.7 (0.4)	3.2 (3.2)	3.4 (4.1)	3.4 (6.4)	3.5 (6.9)	13.5 (5.2)	3.5 (9.0)	3.7 (10.7)
일반손해	6.2 (1.5)	2.0 (1.5)	2.1 (-1.2)	1.9 (-3.5)	2.1 (1.9)	8.1 (-0.3)	2.1 (3.9)	2.1 (2.5)
총자산 ³⁾	170.6 (12.4)	176.9 (3.7)	185.1 (4.6)	191.4 (3.4)	200.3 (4.7)	200.3 (17.4)	207.9 (3.8)	212.3 (2.1)
일반계정	164.0 (12.3)	169.3 (3.3)	177.4 (4.8)	183.7 (3.5)	191.1 (4.0)	191.1 (16.6)	196.2 (2.7)	200.6 (2.3)
특별계정	6.6 (14.4)	7.6 (14.7)	7.7 (1.3)	7.7 (0.3)	9.2 (19.6)	9.2 (39.4)	11.7 (26.9)	11.7 (-0.1)

주: 1) () 안의 경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고,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5)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1) 장기손해보험

■ 2015년 2/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저축성보험은 감소하였으나 장기상해, 장기질병, 장기운전자 보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5.6% 늘어난 11조 5,648억 원을 기록함.

○ 장기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9.1% 감소하였는데, 이는 신규판매가 저

금리 지속에 따른 판매 부담 확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증가 등으로 각각 12.1%, 16.9% 늘어남.
-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의 경우 소비자 관심 확대와 손해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³⁾ 노력 등에 힘입어 각각 9.0%, 6.3% 증가함.

■ 2015년 2/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 초회보험료가 증가세를 보였으나 저금리 지속으로 장기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대비 14.0% 줄어든 5,070억 원을 기록함.

- 장기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자동차 사고 관련 법률 비용에 대한 우려 확대 등으로 신규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3.1% 증가함.
- 장기손해보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이 장기재물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기재물보험 초회보험료는 20.3% 증가함.
- 장기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공시이율 하락과 저금리로 인한 판매 부담 증가 등으로 19.4% 감소함.

〈표 15〉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³⁾	1/4	2/4
원수 보험료	상해	보험료	81,024	28,306	29,114	29,999	30,946	118,365	31,889	32,644
		증가율	13.3	9.8	9.9	11.4	12.1	10.8	12.7	12.1
	운전자	보험료	18,694	6,386	6,438	6,624	6,787	26,235	6,919	7,020
		증가율	1.4	4.2	4.6	6.3	7.6	5.7	8.3	9.0
	재물	보험료	28,198	9,258	9,344	9,380	9,494	37,476	9,692	9,929
		증가율	0.1	-0.1	-1.1	-0.4	1.8	0.0	4.7	6.3
	질병	보험료	61,290	22,382	23,243	24,181	25,062	94,868	26,055	27,174
		증가율	20.1	21.2	19.9	18.1	17.0	18.9	16.4	16.9
	저축성	보험료	89,300	32,267	28,991	28,642	27,718	117,617	29,513	26,345
		증가율	-4.3	3.3	-1.2	-6.6	-5.3	-2.4	-8.5	-9.1
	통합형	보험료	36,821	12,216	12,358	12,378	12,370	49,321	12,410	12,512
		증가율	2.2	0.5	0.2	0.9	1.2	0.7	1.6	1.2
	자산	보험료	151	42	39	37	35	154	22	24
		증가율								

3) 장기손해보험 내 상품별 비중이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구분			FY2013	2014					2015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³⁾	1/4	2/4
	연계형	증가율	-49.1	-42.5	-30.4	-26.5	-20.8	-31.6	-47.8	-37.5
	소계	보험료	315,478	110,858	109,526	111,241	112,412	444,037	116,499	115,648
		증가율	5.6	7.5	6.1	4.9	5.9	6.1	5.1	5.6
초회 보험료	상해	보험료	1,503	600	628	638	724	2,589	683	548
		증가율	-17.6	-34.2	40.6	32.4	26.1	7.3	13.9	-12.7
	운전자	보험료	378	115	121	188	155	579	134	136
		증가율	20.1	10.1	4.4	36.0	24.6	19.9	16.6	13.1
	재물	보험료	836	225	256	254	273	1,008	318	307
		증가율	-15.6	-13.0	-27.5	1.4	17.6	-7.9	41.1	20.3
	질병	보험료	1,651	620	523	557	617	2,318	607	587
		증가율	40.2	-4.6	9.2	-5.1	5.6	0.7	-2.1	12.1
	저축성	보험료	10,989	5,946	4,311	4,251	3,870	18,379	4,883	3,474
		증가율	-56.2	8.9	10.0	5.4	27.5	11.7	-17.9	-19.4
	통합형	보험료	217	86	57	59	74	275	30	17
		증가율	-48.8	-62.6	-15.1	-22.1	-2.4	-38.5	-65.3	-69.7
	자산 연계형	보험료	0	0	0	0	0	0	0	0
		증가율	-	-	-	-	-	-	-	-
	소계	보험료	15,574	7,592	5,895	5,948	5,713	25,148	6,654	5,070
		증가율	-47.8	-0.3	9.6	6.8	23.5	8.4	-12.4	-14.0
계속 보험료	상해	보험료	79,521	27,707	28,486	29,360	30,223	115,776	31,206	32,096
		증가율	14.1	11.4	9.3	11.0	11.8	10.9	12.6	12.7
	운전자	보험료	18,315	6,271	6,317	6,436	6,632	25,656	6,784	6,883
		증가율	1.1	4.1	4.6	5.6	7.3	5.4	8.2	9.0
	재물	보험료	27,362	9,033	9,088	9,126	9,221	36,468	9,374	9,622
		증가율	0.7	0.3	-0.1	-0.4	1.4	0.3	3.8	5.9
	질병	보험료	59,639	21,762	22,720	23,624	24,445	92,550	25,448	26,587
		증가율	19.7	22.1	20.1	18.7	17.3	19.5	16.9	17.0
	저축성	보험료	78,311	26,321	24,679	24,391	23,847	99,238	24,630	22,872
		증가율	14.8	2.1	-3.0	-8.5	-9.1	-4.7	-6.4	-7.3
	통합형	보험료	36,604	12,130	12,302	12,319	12,296	49,047	12,380	12,495
		증가율	2.8	1.8	0.3	1.1	1.3	1.1	2.1	1.6
	자산 연계형	보험료	151	42	39	37	35	154	22	24
		증가율	-49.1	-42.5	-30.4	-26.6	-20.8	-31.6	-47.8	-37.5
	소계	보험료	299,904	103,266	103,631	105,293	106,699	418,889	109,845	110,579
		증가율	11.5	8.1	5.9	4.8	5.1	5.9	6.4	6.7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3)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2/4분기 장기손해보험 누적 해지율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상해보험 해지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한 5.8%를 기록함.

- 장기상해보험 해지율은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 증가율이 보유계약액 증가율보다 더 크게 나타나 0.2%p 상승한 6.2%를 나타냄.
-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 해지율은 신계약액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 0.2%p, 0.1%p 하락한 5.7%와 7.3%를 기록함.
- 장기저축성보험 해지율은 효력상실액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0.4%p 하락한 4.9%를 시현함.

〈표 16〉 장기손해보험 해지율^{1),2)}

(단위: %)

구분	FY2013	2014				2015	
	2013 ³⁾	1/4	2/4	3/4	4/4	1/4	2/4
상해	12.1	3.3	6.0	8.5	10.5	3.3	6.2
운전자	10.9	3.2	5.9	8.1	9.6	3.1	5.7
재물	12.9	4.1	7.4	10.3	12.6	3.9	7.3
질병	10.7	2.6	4.9	6.9	8.1	2.5	4.8
저축성	11.0	3.0	5.3	7.7	9.6	2.6	4.9
통합형	9.4	2.4	4.5	6.5	8.0	2.0	3.9
계	11.5	3.1	5.7	8.1	9.9	3.0	5.8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3) 2014년과의 비교를 위하여 2013년 1~12월까지의 누적 해지율을 계산한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2015년 2/4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0.5% 늘어난 1조 7,855억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신규수요 감소세로 인해 2.3% 줄어든 1조 15억 원을 시현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32.8% 증가한 7,840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퇴직연금에 대한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 신설로 IRP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표 17〉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⁴⁾	1/4	2/4
개인 연금	보험료	31,829	10,349	10,247	10,200	10,295	41,090	10,066	10,015
	증가율	3.1	-2.6	-3.5	-3.5	-3.2	-3.2	-2.7	-2.3
	구성비	50.5	52.9	63.4	70.9	18.8	39.2	49.5	56.1
퇴직 연금	보험료	31,152	9,209	5,905	4,195	44,408	63,718	10,270	7,840
	증가율	9.8	106.1	-5.5	66.0	98.5	78.9	11.5	32.8
	구성비	49.5	47.1	36.6	29.1	81.2	60.8	50.5	43.9
합계	보험료	62,991	19,558	16,153	14,395	54,703	104,809	20,336	17,855
	증가율	6.3	29.5	-4.3	9.9	65.7	34.2	4.0	10.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4)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2015년 2/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14년 하반기 시행된 요율 인상의 영향과 고가차량 비중 확대⁴⁾에 따른 대물·자차담보 가입금액⁵⁾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한 3조 7,269억 원을 기록함.

○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중 확대⁶⁾ 등으로 4.4% 감소한 7,503억 원을 나타냄.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요율 인상분⁷⁾ 반영과 수입차 및 국산 중·대형차량 비중 증가에 따른 대물·자차담보 가입금액 증가세 확대로 15.3% 늘어난 2조 7,768억 원을 나타냄.

4) 고가차량 비중((승용일반형 외산 소계 + 국산 3000CC 이상 승용차 합계) / 승용차 합계)은 2014년 1월 8.4%에서 2015년 1월 9.5%로 상승하였으며, 2015년 7월 10.0%를 기록하고 있음.

5) 가입금액 2~5억 원 구간 비중이 2010년 12.1%에서 2014년 48.9%로 증가함(자료: 보험개발원).

6) 자동차보험 온라인채널 비중은 개인용(플러스 개인용) 보종 대인 I 기준 평균유효대수 대상으로 2014년 말 42.3%를 나타냄.

7) 2014년 이후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기 시작하였으며, 갱신 시기가 도래한 가입자에게는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되고 있음.

〈표 18〉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1/4	2/4
대인 I		23,759 (-1.6)	7,606 (-2.1)	7,849 (-1.8)	7,896 (0.6)	7,798 (-1.5)	31,149 (-1.2)	7,495 (-1.5)	7,503 (-4.4)
종합 보험	대인 II	9,960 (0.9)	3,270 (2.2)	3,366 (2.1)	3,431 (4.9)	3,614 (6.5)	13,681 (4.0)	3,630 (11.0)	3,998 (18.8)
	대물	33,227 (7.2)	11,011 (6.5)	11,583 (6.0)	11,869 (8.3)	12,414 (9.4)	46,877 (7.6)	12,314 (11.8)	13,012 (12.3)
	자차	21,523 (-7.8)	7,505 (2.7)	7,630 (6.8)	7,749 (8.1)	7,973 (10.6)	30,857 (7.0)	8,479 (13.0)	9,062 (18.8)
	자손	3,635 (5.6)	1,220 (8.9)	1,275 (9.3)	1,345 (12.9)	1,407 (10.2)	5,248 (10.3)	1,383 (13.4)	1,446 (13.4)
	무보험	695 (-7.8)	220 (-3.3)	225 (-2.7)	233 (0.0)	235 (1.3)	912 (-1.2)	231 (5.3)	250 (11.3)
	소계	69,041 (0.9)	23,225 (4.7)	24,079 (5.8)	24,627 (7.9)	25,644 (9.3)	97,575 (6.9)	26,037 (12.1)	27,768 (15.3)
	외화표시	91 (5.3)	20 (-17.2)	29 (-14.8)	23 (-0.6)	42 (23.7)	114 (-1.2)	33 (61.1)	36 (25.4)
이륜자동차 ²⁾		635 (-0.8)	167 (9.8)	257 (3.1)	240 (12.8)	189 (9.2)	853 (8.3)	190 (13.6)	304 (18.3)
기타 ³⁾		3,909 (3.8)	1,358 (9.4)	1,452 (11.4)	1,473 (14.7)	1,511 (14.3)	5,794 (12.5)	1,543 (13.6)	1,658 (14.2)
합계		97,435 (0.4)	32,377 (3.2)	33,665 (4.1)	34,259 (6.4)	35,183 (6.9)	135,484 (5.2)	35,298 (9.0)	37,269 (10.7)

주: 1) ()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5)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2/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인배상 I 손해율 상승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0.4%p 높아진 84.8%를 나타냄.

○ 대인배상 I 손해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⁸⁾ 영향이 줄어들면서 전년동기 대비 4.0%p 상승한 69.5%를 기록함.

- 종합보험 손해율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영향 감소로 발생손해액 증가 폭이 줄어든 반면, 고가차 증가 및 자동차보험 요율 인상으로 경과보험료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9%p 하락한 90.4%를 나타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소멸되면서 대인Ⅱ 손해율은 0.5%p 하락한 135.3%를 기록함.
 - 대물담보 손해율은 발생손해액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0.6%p 상승한 88.4%를 나타냄.

〈표 19〉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¹⁾

(단위: %)

구분	FY2013	2014					2015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1/4	2/4
대인Ⅰ	88.5	69.8	65.5	68.6	77.3	70.3	65.9	69.5
종합보험	대인Ⅱ	91.3	113.6	135.8	137.4	146.6	133.7	144.2
	대물	92.4	85.2	87.8	92.3	97.3	90.8	86.4
	자차	82.1	86.5	80.7	89.1	92.2	87.2	82.3
	자손	82.6	77.5	64.2	69.5	78.7	72.5	72.5
	무보험	63.3	115.7	91.5	77.8	69.0	88.4	104.1
	소계	88.1	89.6	91.3	96.4	101.5	94.8	92.7
외화표시	66.1	77.9	83.3	72.3	70.5	76.0	74.8	66.2
이륜자동차 ²⁾	93.3	79.4	104.3	107.8	111.1	101.0	91.7	108.4
기타 ³⁾	81.5	72.8	70.3	80.3	90.6	78.8	72.1	66.2
합계	87.9	84.0	84.4	89.3	95.5	88.5	85.6	84.8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Ⅰ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8) 대인Ⅰ에서 지급하는 상해 항목인 척추 염좌가 8등급(최대 보상금 240만 원)에서 12등급(최대 보상금 8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인Ⅰ발생손해액은 감소하고 대인Ⅱ발생손해액은 증가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4년 2월 7일 시행).

4) 일반손해보험

■ 2015년 2/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보험 및 해상보험 감소세로 전체 전년동기대비 2.5% 증가에 그친 2조 1,401억 원을 기록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특별한 시장 확대 요인이 없는 가운데 공장 화재보험 물건 감소와 요율 하락 등으로 0.4% 줄어든 736억 원을 나타냄.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각각 7.8%, 20.5%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4.7% 줄어든 1,837억 원을 기록함.

〈표 20〉 일반손해보험¹⁾ 종목별 원수보험료²⁾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⁴⁾	1/4	2/4
화재	보험료	2,413	759	739	703	905	3,106	728	736
	증가율	-2.9	-6.1	-2.1	-4.3	-1.9	-3.6	-4.0	-0.4
	구성비	3.9	3.7	3.5	3.7	4.3	3.8	3.5	3.4
해상	보험료	6,016	1,747	1,927	1,839	1,830	7,343	1,880	1,837
	증가율	-10.7	17.0	-9.2	-18.5	11.7	-2.2	7.6	-4.7
	구성비	9.8	8.6	9.2	9.6	8.7	9.0	8.9	8.6
보증	보험료	11,238	3,842	3,651	3,611	4,048	15,152	3,898	4,054
	증가율	-4.8	-4.3	-3.9	4.3	1.8	-0.6	1.5	11.0
	구성비	18.2	18.9	17.5	18.9	19.2	18.6	18.5	18.9
특종	보험료	37,172	12,566	13,099	11,533	12,793	49,991	13,347	13,651
	증가율	2.4	2.6	0.3	-1.2	2.9	1.2	6.2	4.2
	구성비	60.3	61.9	62.8	60.3	60.5	61.4	63.3	63.8
해외 원보험	보험료	4,840	1,376	1,455	1,442	1,559	5,832	1,217	1,122
	증가율	40.0	-3.0	4.7	-14.6	-11.5	-6.8	-11.5	-22.9
	구성비	7.8	6.8	7.0	7.5	7.4	7.2	5.8	5.2
합계	보험료	61,679	20,289	20,873	19,128	21,135	81,424	21,071	21,401
	증가율	1.5	1.5	-1.2	-3.5	1.9	-0.3	3.9	2.5

주: 1)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4)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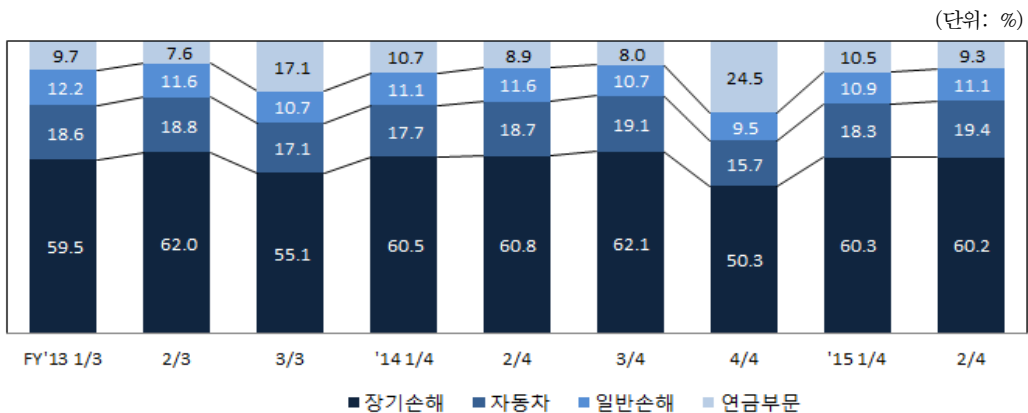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2014년 2/4분기 3.9% 감소했던데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11.0% 증가한 4,054억 원을 나타냄.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책임보험, 상해보험, 기타 특종보험이 늘어나 전체 4.2% 증가한 1조 3,651억 원을 기록함.
 - 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영업 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5.3% 증가하였으며,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단체상해보험과 여행자보험이 늘어나 5.8% 증가함.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2015년 2/4분기 자동차보험과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확대된 반면,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축소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분 반영에 따른 원수보험료 증가 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7%p 확대된 19.4%를 나타냄.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4%p 확대된 9.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퇴직연금 원수보험료가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퇴직연금과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비중 확대에 의해 각각 0.6%p, 0.5%p 감소한 60.2%, 11.1%를 나타냄.

〈그림 5〉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5년 2/4분기 상위 4사⁹⁾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반면, 국내 중·소형사, 전업사, 외국사 시장점유율은 상승하였으며, 허핀달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0037 감소한 0.1387을 기록함.

- 상위 4사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7%p 축소된 68.7%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부 대형사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임.
- 국내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대부분이 양호한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시현함에 따라 0.5%p 확대된 26.9%를 기록함.
- 전업사와 외국사 시장점유율은 보증보험과 자동차보험 실적 개선에 힘입어 각각 0.1%p씩 상승함.

〈표 21〉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FY2013	2014					2015	
	연간 ⁶⁾	1/4	2/4	3/4	4/4	연간 ⁶⁾	1/4	2/4
상위 4사 ²⁾	70.1	67.4	69.4	69.4	71.2	69.4	67.7	68.7
국내 중·소형사 ²⁾	25.7	28.4	26.4	26.3	25.2	26.5	28.2	26.9
전업사 ³⁾	2.1	2.1	2.0	2.0	1.8	2.0	2.0	2.1
외국사 ³⁾	2.1	2.1	2.2	2.3	1.8	2.1	2.1	2.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⁴⁾	2.0	2.1	2.1	2.2	1.8	2.0	2.3	2.3
허핀달 지수 ⁵⁾	0.1453	0.1386	0.1424	0.1435	0.1541	0.1446	0.1378	0.1387

주: 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2) 상위 4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회사, 국내 중·소형사는 국내 온라인사를 포함한 8개 회사를 의미함.

3)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하며, 외국사는 외국계 온라인사를 포함함.

4)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5) 허핀달 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이면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6)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며, 2014는 2014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9)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손해보험회사를 의미함.

〈손해율과 합산비율〉

■ 2015년 2/4분기 전체 손해보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과 보증보험 손해율이 악화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7%p 상승한 82.3%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자동차사고 발생 증가로 인해 대인배상 I 손해율이 상승함에 따라 0.4%p 높아진 84.8%를 나타냄.

○ 보증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42.9%나 상승한 50.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인 2014년 2/4분기 일회성 요인¹⁰⁾이 소멸되었기 때문임.

〈표 22〉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¹⁾

(단위: %)

구분		FY2013	2014					2015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⁴⁾	1/4	2/4
손 해 율	장기손해보험 ²⁾	83.8	85.1	84.4	85.2	86.1	85.2	86.0	84.5
	자동차보험	87.9	84.0	84.4	89.3	95.5	88.5	85.6	84.8
	화재보험	33.8	73.2	50.2	53.4	45.4	55.4	66.6	43.5
	해상보험	57.7	89.5	18.5	44.3	85.4	59.8	55.1	70.1
	보증보험	76.5	72.5	7.4	70.8	41.6	47.9	81.5	50.3
	특종보험	65.8	69.2	71.0	67.7	66.5	68.5	65.1	67.1
	해외원보험	79.1	64.6	89.4	98.1	124.7	94.8	84.2	135.0
	해외수재보험	57.6	72.9	45.1	67.1	83.2	66.3	50.2	61.7
	전체	82.3	83.3	80.6	83.9	85.6	83.4	83.6	82.3
사업비율		19.7	19.1	18.7	18.8	19.4	19.0	19.6	18.9
합산비율		102.0	102.3	99.3	102.7	105.1	102.4	103.2	101.1

주: 1) 손해율, 사업비율 그리고 합산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을 고려한 재무손해율임.

3)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을 일부 제외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며, 2014는 2014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0) 2014년 2/4분기 보증보험 손해율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 관련 대규모 손실 반영에 따른 출재보험금 유입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

■ 2015년 2/4분기 전체 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사업비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18.9%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사업비 증가로 0.1%p 상승한 18.1%를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사업비율의 경우 실적부진으로 보유보험료 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사업비도 증가하여 0.7%p 상승한 21.7%를 시현함.

■ 2015년 2/4분기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1.8%p 악화된 101.1%를 기록함.

나. 경영수지

〈총수익·총비용〉

■ 2015년 2/4분기 전체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의 경우 보험영업 적자규모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한 8,531억 원 흑자를 나타냄.

- 보험영업 적자규모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보증보험 손해율이 전년동기대비 상승¹¹⁾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216억 원 확대된 4,606억 원을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유가증권처분이익과 배당이익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577억 원 증가한 1조 6,025억 원 흑자를 기록함.
- 한편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¹²⁾의 당기순이익(B)은 투자영업이익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한 6,273억 원 흑자를 기록함.

11) 2014년 2/4분기 보증보험 손해율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 관련 대규모 손실 반영에 따른 출재보험금 유입으로 7.4%의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2015년 2/4분기에는 50.3%로 상승함.

12)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 분석대상은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회사임.

〈표 23〉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¹⁾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1/4	2/4
총수익	보험영업	49,484	16,835	16,921	17,150	17,489	68,397	17,579	17,740
	투자영업	5,276	1,780	1,979	1,523	2,251	7,532	2,174	2,213
	기타	1,419	245	361	161	1,247	2,015	516	419
	소계	56,179	18,860	19,261	18,835	20,988	77,944	20,270	20,372
총비용	보험영업	51,062	17,415	17,060	17,831	18,602	70,908	18,359	18,201
	투자영업	1,524	394	634	39	724	1,790	449	610
	기타	1,587	286	422	202	1,270	2,180	395	441
	소계	54,172	18,095	18,117	18,071	20,595	74,878	19,203	19,252
수지차	보험영업	-1,578	-580	-139	-680	-1,113	-2,512	-779	-461
	투자영업	3,752	1,386	1,345	1,484	1,527	5,742	1,725	1,603
	기타	-167	-40	-61	-40	-22	-164	121	-22
	소계	2,007	765	1,145	764	392	3,066	1,067	1,120
법인세		515	194	282	176	83	735	245	267
당기순이익(A) ²⁾		1,492	571	863	587	309	2,330	822	853
		(-23.2)	(31.2)	(96.7)	(-13.6)	(-17.2)	(20.2)	(43.9)	(-1.1)
당기순이익(B) ³⁾		1,212	460	558	439	185	1,661	611	627
		(-19.8)	(31.5)	(8.1)	(3.2)	(-31.5)	(6.4)	(30.5)	(12.4)

주: 1) 기간별 수치는 특별계정을 제외한 실적이고, ()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2)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포함한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임.

3)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5)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총부채·총자본〉

■ 2015년 2/4분기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총계는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한 212조 2,961억 원을 기록함.

○ 총부채의 경우 보험료적립금이 늘어나 책임준비금이 증가하고 퇴직연금 호조세로 특별 계정 부채도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5.0% 증가함.

○ 총자본의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증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2.8% 증가함.

〈표 24〉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1/4	2/4
책임준비금	금액	135.8	141.1	145.8	150.2	154.6	160.1
	증가율	17.5	16.7	15.8	15.2	13.8	13.4
기타부채	금액	10.7	11.4	11.9	12.0	13.3	12.4
	증가율	-3.0	0.1	13.4	15.3	24.3	9.0
특별계정부채	금액	7.6	7.6	7.6	9.3	9.2	9.3
	증가율	21.5	24.6	23.4	25.3	20.9	22.0
부채총계	금액	154.2	160.2	165.3	173.4	179.3	184.2
	증가율	16.0	15.7	16.0	17.1	16.3	15.0
자본금	금액	2.3	2.3	2.3	2.4	2.4	2.5
	증가율	7.5	12.8	12.6	3.3	6.1	8.2
자본잉여금	금액	2.1	2.3	2.3	2.4	2.3	2.4
	증가율	9.7	10.4	9.3	13.7	9.5	2.8
이익잉여금	금액	15.8	16.7	17.2	17.6	17.7	18.5
	증가율	9.9	13.7	12.7	12.3	12.0	11.1
자본조정	금액	-1.0	-0.7	-0.8	-0.9	-0.9	-1.0
	증가율	72.4	33.1	26.9	-2.1	-2.1	29.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3.5	4.4	5.0	5.5	7.1	5.7
	증가율	-38.0	21.6	35.2	65.2	99.9	29.8
자본총계	금액	22.8	24.9	26.1	26.9	28.6	28.1
	증가율	-3.4	14.1	15.7	20.0	25.5	12.8
부채 및 자본총계	금액	176.9	185.1	191.4	200.3	207.9	212.3
	증가율	13.1	15.5	15.9	17.4	17.5	14.7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 2015년 2/4분기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15%p 상승한 4.08%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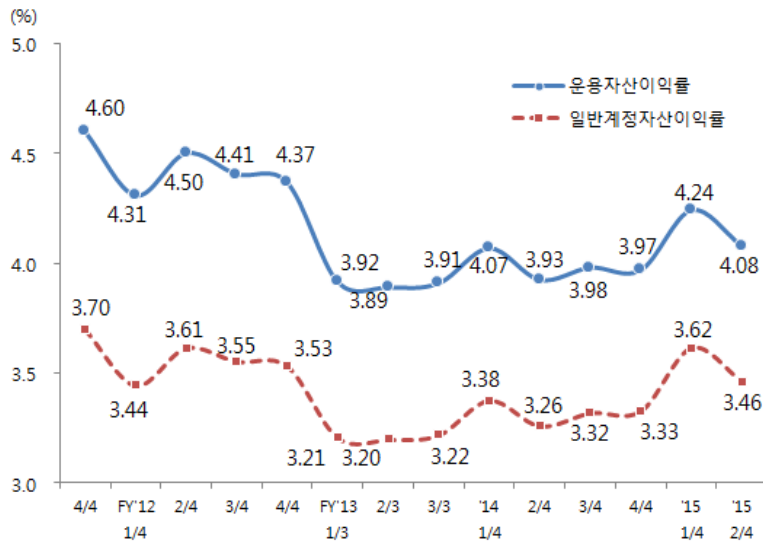
○ 현금과 예금 이익률은 0.90%p 상승한 2.93%를 기록한 반면, 유가증권 이익률은 0.30%p 상승한 4.26%를 나타냄.

○ 대출채권 이익률은 0.44%p 하락한 4.31%를 나타냈으며, 부동산 이익률은 0.09%p 하락한 1.09%를 기록함.

■ 2015년 2/4분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55.8%, 대출채권 22.0%, 현금과 예금 4.1%, 부동산 3.2% 순으로 나타남.¹³⁾

○ 현금과 예금은 전년동기와 동일하였으며,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비중은 각각 1.2%p, 1.4%p 상승하였고, 부동산 비중은 0.4%p 하락함.

〈그림 6〉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1),2)}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3) 일반계정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수치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25〉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2014						2015			
	2/4		3/4		4/4		1/4		2/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3.3	100.0	3.3	100.0	3.3	100.0	3.6	100.0	3.5
운용자산 계	82.9	3.9	83.9	4.0	84.8	4.0	85.1	4.2	85.1	4.1
현금과 예금	4.1	2.0	4.3	2.7	4.7	3.0	3.9	2.2	4.1	2.9
유가증권	54.6	4.0	55.2	4.0	54.8	4.0	56.3	4.6	55.8	4.3
○ 당기손익인식증권	4.2	3.3	4.4	3.6	3.8	3.6	4.2	4.5	3.6	3.5
- 주식	0.1	9.1	0.1	14.9	0.1	4.0	0.1	26.4	0.1	25.6
- 채권 등	2.3	4.1	2.1	4.6	2.1	4.3	1.9	5.6	1.9	3.0
- 수익증권	1.8	1.8	2.2	1.7	1.6	2.2	2.2	2.1	1.6	2.3
○ 매도가능증권	42.0	4.1	42.4	4.1	42.5	4.2	44.5	4.7	43.7	4.5
- 주식	3.4	2.4	3.2	2.4	3.2	1.6	3.2	5.9	3.1	4.4
- 채권 등	34.3	4.3	34.5	4.3	34.2	4.4	36.0	4.3	34.8	4.2
- 수익증권	4.4	4.0	4.6	4.3	5.1	4.2	5.3	6.4	5.8	6.2
○ 만기보유증권	6.7	3.7	6.7	3.8	6.7	3.9	5.9	3.9	6.7	3.8
- 채권 등	6.7	3.7	6.7	3.8	6.7	3.9	5.9	3.9	6.7	3.8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7	1.8	1.7	1.6	1.8	1.1	1.8	3.6	1.8	2.0
대출채권	20.6	4.8	20.9	4.7	21.9	4.6	21.6	4.3	22.0	4.3
부동산	3.6	1.2	3.5	1.2	3.4	1.1	3.3	1.2	3.2	1.1
비운용자산	17.1	0.1	16.1	0.0	15.2	0.0	14.9	0.1	14.9	0.0
총자산	100.0	3.1	104.2	3.2	104.8	3.1	106.0	3.4	105.8	3.3
일반계정	95.9	3.3	96.0	3.3	95.4	3.3	94.4	3.6	94.5	3.5
특별계정	4.1	0.0	4.0	0.0	4.6	0.0	5.6	0.0	5.5	0.0
총자산 규모	1,851,278		1,913,805		2,003,076		2,078,896		2,122,961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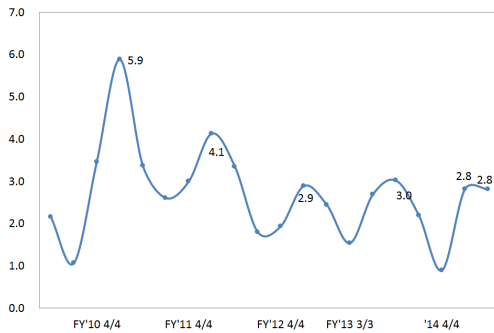
〈자본이익률¹⁴⁾〉

■ 2015년 2/4분기 손해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기중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한 2.8%를 기록함.

○ 중·소형사와 전업사 자본이익률은 대부분 전체 손해보험 평균(2.8%)보다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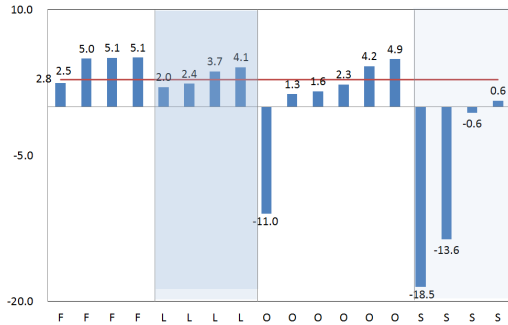
〈그림 7〉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8〉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5년 2/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의 경우 대형사와 전업사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나, 중·소형사와 외국사 자본이익률은 상승함.

○ 대형사 자본이익률의 경우 기중자본 증가율이 당기순이익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2.8%를 나타냄.

○ 전업사 자본이익률의 경우 기중자본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줄어들고 당기순이익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1%p 하락한 -3.9%를 시현함.

○ 중·소형사와 외국사 자본이익률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0.7%p, 2.7%p 상승한 3.0%, 4.8%를 기록함.

14)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E_t^o)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FY2012 1/4분기부터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되어 18개 회사임.

〈표 26〉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추이

(단위: %)

구분	FY2013	2014					2015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²⁾	1/4	2/4
대형사	7.7	3.2	3.2	2.5	1.4	10.2	3.0	2.8
중·소형사	4.3	0.6	2.3	1.0	-0.2	3.5	1.5	3.0
외국사	10.1	-0.7	2.1	6.7	3.1	16.4	7.3	4.8
전업사	-17.3	-1.2	0.1	-8.2	-18.0	-27.4	1.5	-3.9
전체	6.7	2.6	3.0	2.2	0.9	8.7	2.8	2.8

주: 1)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2) FY2013 연간수치는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며, 2014 연간수치는 2014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2015년 2/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의 경우 임직원과 대리점 채널 비중이 전년동기보다 확대되었으나,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축소됨.

- 임직원 채널과 대리점 채널 비중은 주요 판매상품인 자동차보험과 퇴직연금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각각 1.2%p, 2.6%p 확대된 14.9% 43.8%를 기록함.
- 설계사 채널과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주요 판매상품인 장기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 신규판매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3.1%p, 0.9%p 축소된 28.7%, 11.3%를 나타냄.

〈표 2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³⁾	1/4	2/4
임직원	83,888	27,340	24,779	24,529	63,198	139,845	30,640	28,715
	15.6	14.9	13.7	13.7	28.3	18.3	15.9	14.9
설계사 ²⁾	159,889	53,797	57,315	48,191	54,038	213,341	53,503	55,140
	29.7	29.4	31.8	26.9	24.2	27.9	27.7	28.7
대리점	226,884	74,999	74,286	83,329	82,712	315,326	82,251	84,084
	42.2	41.0	41.2	46.5	37.0	41.2	42.6	43.8
중개사	4,377	1,206	1,614	1,590	1,765	6,176	1,397	1,921
	0.8	0.7	0.9	0.9	0.8	0.8	0.7	1.0
방카슈랑스	61,941	25,602	21,967	21,148	21,313	90,030	25,096	21,790
	11.5	14.0	12.2	11.8	9.5	11.8	13.0	11.3
공동인수	602	138	256	236	407	1,036	316	509
	0.1	0.1	0.1	0.1	0.2	0.1	0.2	0.3
전체	537,582	183,082	180,217	179,023	223,433	765,754	193,204	192,1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하는 분기 기준 원수보험료 실적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며, 2014는 2014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2015년 2/4분기 말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임직원 수와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정규직 직원 수 감소로 전분기대비 548명 줄어든 3만 2,750명을 기록함.
- 설계사 수의 경우 교차설계사 수는 증가하였으나 전속설계사 수가 더 많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198명 줄어든 15만 5,854명을 나타냄.
-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36개 늘어난 3만 2,511개를 기록하였는데, 개인대리점 수는 158개 줄어들어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법인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194개 증가함.

〈표 28〉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3	2014				2015	
	3/3	1/4	2/4	3/4	4/4	1/4	2/4
임직원	33,479	33,320	33,286	33,256	33,047	33,298	32,750
설계사	164,253	161,131	157,335	156,958	156,662	156,052	155,854
- 전속	90,167	86,988	83,630	82,504	82,299	81,073	80,400
- 교차	74,086	74,143	73,705	74,454	74,363	74,979	75,454
대리점	36,952	36,559	33,586	33,170	32,995	32,475	32,511
- 개인	23,244	22,702	22,632	22,349	22,057	21,717	21,559
- 법인	13,708	13,857	10,954	10,821	10,938	10,758	10,952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글로벌 생명보험 시장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모두 성장세를 보임. 미국 생명보험 신규 보험료는 전 종목 신규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총 8% 성장하였고,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는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4.9% 늘어남. 일본 생명보험 신규보험료는 개인보험 신규계약 성장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5.1% 성장하였으며, 중국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건강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3.4% 성장함. 글로벌 손해보험 시장은 일본과 중국 수입보험료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각각 3.8%, 9.3% 성장함. 미국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보험 및 투자영업이익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1.1% 증가함.¹⁾

1. 미국 동향²⁾

가. 생명보험

■ 2015년 1/4분기 미국 생명보험시장 신규보험료는 신규 연납화 보험료³⁾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8% 증가함.

○ 2015년 1/4분기 생명보험은 전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음.

○ 유니버설보험은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Indexed UL) 수입보험료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함.

- 장기보장성 유니버설보험(lifetime guarantee UL)은 전년동기대비 1% 성장에 그쳤으나,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1% 성장함.

○ 변액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는 저금리 환경과 주식 시장 회복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1) 미국은 2015년 1/4분기, 영국은 2015년 2/4분기, 중국은 2015년 2/4분기, 일본은 FY2014 4/4분기 기준임.

2)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3)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대비 21% 증가하였음.

- 정기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 늘어남.
- 종신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9%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18분기 중 가장 높은 성장률임.
- 저금리에 따른 종신보험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2014년 종신보험 성장률은 3%에 그쳤으나 2015년 1/4분기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

■ 2015년 1/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전분기대비 유니버설보험은 소폭 하락하고, 종신보험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정기보험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1/4분기 유니버설보험 비중은 37%로 생명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은 전분기대비 1%p 하락함.
-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신규보험료는 증가하였으나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신규보험료의 비중은 각각 22%, 34%임.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23	-7	40	-15	-8	2	18	-1	38	7	37
기타변액	0	0	0	11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설	36	24	6	20	42	22	7	17	7	21	7
정기	-1	3	22	-4	-2	0	1	-1	22	2	22
종신	3	4	32	-3	5	6	5	3	33	9	34
계	-8	0	100	-7	1	4	9	1	100	8	100
연납화 보험료	2,667	10,010		2,286	2,496	2,374	2,826	9,982		2,458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5, 5),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5년 1/4분기 미국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변액연금과 정액연금의 신규보험료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5% 줄어든 544억 달러임.

○ 변액연금과 정액연금 신규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5.3%, 8.3% 감소하여 각각 324억 달러와 220억 달러를 기록함.

- 변액연금은 저금리 환경의 영향으로 6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임.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변액연금	보험료	36.4	145.4	34.2	36.2	35.5	34.2	140.1	32.4
	증가율	4.0	-1.4	-3.1	-4.7	-0.6	-6.0	-3.6	-5.3
	비중	59.2	63.3	58.8	59.0	61.0	58.9	59.4	59.6
정액연금	보험료	25.1	84.4	24.0	25.2	22.7	23.9	95.8	22.0
	증가율	41.8	16.7	4.5	34.0	-5.0	-4.8	13.5	-8.3
	비중	40.8	36.7	41.2	41.0	39.0	41.1	40.6	40.4
합계	보험료	61.5	229.7	58.2	61.4	58.2	58.1	235.9	54.4
	증가율	16.7	4.6	12.4	8.1	-2.3	-5.5	2.7	-6.5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5, 5), *U.S. Individual Annuities*.

■ 2015년 1/4분기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의 경우 독립중개인이 2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속설계사가 20.2%, 독립설계사가 16.9%, 은행, 증권중개인, 직접판매가 각각 16.2%, 11.8%, 8.1%의 비중을 차지함.

〈표 3〉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4/4	1/4	2/4	3/4	4/4	1/4
은행	16.0	16.3	16.6	16.0	14.9	16.2
전속설계사	20.5	20.5	19.9	19.8	20.6	20.2
직접판매	8.5	7.3	7.0	7.0	7.2	8.1
독립중개인	22.6	23.9	25.7	26.1	24.7	24.3
독립설계사	17.6	16.6	16.3	15.6	16.8	16.9
증권중개인	12.5	13.5	12.1	13.1	13.2	11.8
기타	2.3	1.9	2.4	2.4	2.6	2.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LIMRA(2015. 5),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5년 1/4분기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는 Non-cancellable⁴⁾와 Guaranteed Renewable⁵⁾ 신규보험료가 모두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3.7% 성장한 1억 3,102만 달러를 기록함.

○ Guaranteed Renewable의 신규보험료는 2014년 4/4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5년 1/4분기에 성장세로 전환하여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함.

○ Non-cancellable 신규보험료는 6,723만 달러로 Multilife⁶⁾ 보험 판매의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8% 성장함.

4)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5)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6) Multilife 보험은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부부 둘을 모두 보장하는 상품임.

〈표 4〉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계약 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수	73.6	310.6	101.8	62.8	67.4	66.6	298.7	108.6
		증가율	-5.5	-5.3	5.7	-3.8	-10.5	-9.5	-3.8	6.7
		구성비	63.1	66.8	75.8	64.0	60.8	60.3	65.8	76.3
	Non- cancellable	건수	43.0	154.3	32.5	35.3	43.5	43.9	155.1	33.7
		증가율	0.5	1.0	-6.4	-2.6	7.8	1.9	0.5	3.8
		구성비	36.9	33.2	24.2	36.0	39.2	39.7	34.2	23.7
	전체	건수	116.7	464.9	134.3	98.1	110.9	110.5	453.9	142.4
		증가율	-3.3	-3.3	2.5	-3.2	-4.3	-5.3	-2.4	6.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 규 보 험 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49.8	201.3	60.3	41.3	44.5	43.9	190.0	63.8
		증가율	-2.9	-5.0	4.1	-8.1	-8.6	-11.9	-5.6	5.8
		구성비	36.6	38.8	47.7	35.8	34.1	32.9	37.6	48.7
	Non- cancellable	보험료	86.1	318.1	66.1	74.3	86.1	89.4	315.8	67.2
		증가율	4.2	1.0	-4.5	-5.0	1.7	3.8	-0.7	1.8
		구성비	63.4	61.2	52.3	64.2	65.9	67.1	62.4	51.3
	전체	보험료	135.9	519.4	126.4	115.6	130.6	133.2	505.8	131.0
		증가율	1.5	-1.4	-0.5	-6.1	-2.0	-2.0	-2.6	3.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5. 5),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Sales.

라. 손해보험

■ 2015년 1/4분기 미국 손해보험 총보험영업이익은 원수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73.5% 늘어난 약 41억 달러를 기록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고용지표 등의 주요 경제지표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한 1,259억 달러임.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회사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대비 약 2.4% 성장함.

○ 지급보험금은 겨울 폭한으로 인한 대재해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1.7%밖에 증가하지 않은 약 819억 달러임.

- ISO에 따르면 2015년 1/4분기 대재해 관련 피해규모는 3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2억 달러가 늘어난 규모임.

■ 총투자영업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이익과 실현자본이익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6.0% 늘어난 약 164억 달러임.

○ 투자영업이익과 실현자본이익은 각각 117억 달러, 4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6%, 59.2% 증가함.

- 연간 투자이익률과 운용자산이익률은 각각 3.1%와 2.9%임.

■ 손해보험산업의 2015년 1/4분기 당기순이익은 총보험영업이익과 총투자영업이익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1.1% 증가한 182억 달러임.

○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8.4%에서 2.8%p 상승한 10.8%를 나타냄.

■ 2015년 1/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97.1%에서 약 1.4%p 하락한 95.7%로 개선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회사의 합산비율은 94.7%로 전년동기대비 0.4%p 개선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손해보험회사의 합산비율은 95.1%로 전년동기대비 2.9%p 개선됨.

○ 자기자본은 약 6,717억 달러로 전분기대비 약 30억 달러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규모임.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¹⁾		2013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원수보험료	금액	114,090	477,042	121,427	124,983	130,567	119,603	496,580	125,863
	증가율	5.6	4.5	3.6	4.2	3.6	4.8	4.1	3.7
지급보험금	금액	79,475	315,053	80,507	87,605	84,982	81,628	334,722	81,865
	증가율	-12.0	-5.5	8.2	4.8	9.5	2.7	6.2	1.7
보험영업이익	금액	6,212	17,761	3,022	-1,801	4,232	9,294	14,747	4,822
	증가율	-175.9	-233.5	-40.5	-2.5	-49.5	49.6	-17.0	59.6
계약자 배당금	금액	1,252	2,514	668	270	261	1,264	2,463	738
	증가율	25.1	18.4	20.4	-40.0	0.0	1.0	-2.0	10.5
충보험영업이익	금액	4,960	15,247	2,354	-2,071	3,971	8,030	12,284	4,085
	증가율	-154.0	-198.9	-47.9	-9.9	-51.1	61.9	-19.4	73.5
투자영업이익	금액	13,060	47,342	11,168	11,793	11,331	11,861	46,153	11,685
	증가율	3.2	-1.2	-2.1	-0.3	3.0	-9.2	-2.5	4.6
실현자본이익	금액	5,363	11,369	2,936	4,234	1,593	1,301	10,064	4,674
	증가율	65.9	83.9	111.7	70.2	-25.5	-75.7	-11.5	59.2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18,423	58,711	14,103	16,027	12,923	13,162	56,215	16,359
	증가율	16.0	8.5	10.2	12.0	-1.7	-28.6	-4.3	16.0
세전영업이익 ²⁾	금액	18,599	64,076	13,775	10,133	12,714	19,017	55,639	15,608
	증가율	411.9	83.7	-12.8	1.2	-35.4	2.2	-13.2	13.3
당기순이익	금액	20,704	63,427	13,856	12,124	11,672	17,849	55,501	18,172
	증가율	185.5	80.8	-3.3	19.6	-36.2	-13.8	-12.5	31.1
자기자본(Surplus)	금액	653,380	653,380	661,601	671,575	673,929	674,714	674,714	671,726
	증가율	11.3	11.3	8.5	9.5	8.0	3.3	3.3	1.5
지급준비금	금액	573,406	573,406	573,725	578,342	579,056	575,607	575,607	575,256
	증가율	-0.6	-0.6	-0.5	0.2	1.0	0.4	0.4	0.3
자기자본이익률		13.0	10.2	8.4	7.3	6.9	10.6	8.4	10.8
합산비율		97.2	96.2	97.1	100.6	95.5	94.9	97.0	95.7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세전영업이익 = 충보험영업이익 + 총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자료: ISO(2015. 7), Property/Casualty Insurance Results: Forst-Quarter 2015; I.I.I.(2015. 7), 2015-First Quarter Results.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 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 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85개사	80%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0개사	96%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9개사	-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 동향⁷⁾

〈생명보험 전체〉

■ 2015년 2/4분기 영국 생명보험 보험료 규모는 신규보험료⁸⁾ 기준으로 전년동기보다 24.9% 증가한 222억 1,712만 파운드였음.

○ 신규보험료 중 비중이 가장 큰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28.1% 증가하면서 생명보험 전체 신규보험료도 큰 폭으로 증가함.

■ 2015년 2/4분기 정기납 신규보험료는 17억 2,712만 파운드로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함.

○ 정기납 보험료 중 비중이 가장 큰 Work-based Pensions 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정기납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 2015년 2/4분기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204억 9,000만 파운드로 전년동기대비 28.1% 증가함.

○ 일시납 보험료 비중이 가장 큰 퇴직연금 보험료가 38.6% 증가하고 두 번째로 비중이 큰 퇴직연금계좌 보험료도 16.7% 늘어나면서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전체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섬.

7)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1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8)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표 6〉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정기납 신규보험료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투자 및 저축보험	금액	8.8	8.9	7.5	33.1	8.4	7.6
	증가율	-12.4	-34.1	-7.9	-17.9	5.5	-13.5
	구성비	0.5	0.5	0.4	0.5	0.5	0.4
퇴직연금계좌	금액	1,242.3	1,127.9	1,009.2	4,549.2	1,044.6	1,137.5
	증가율	6.5	13.1	-16.2	0.6	-10.7	-8.4
	구성비	69.1	67.5	59.0	66.4	59.7	65.9
Individual Pension	금액	78.1	73.5	72.9	292.6	80.4	95.6
	증가율	-9.5	1.3	-5.6	-7.8	18.3	22.4
Personal Pension	금액	46.2	44.1	45.1	174.7	48.6	59.9
	증가율	-15.3	8.3	11.0	-2.4	23.9	29.6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금액	13.3	12.2	12.1	49.6	12.8	14.8
	증가율	-3.6	-7.8	3.0	-8.3	7.5	11.3
Work-based Pensions	금액	1,164.2	1,054.4	936.4	4,256.5	962.3	1,042.0
	증가율	7.8	14.0	-16.9	1.2	-12.6	-10.5
Group Personal Pension	금액	1,024.1	921.6	827.2	3,702.7	851.3	918.1
	증가율	13.1	15.1	-17.0	1.6	-8.5	-10.3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금액	140.2	132.8	109.2	553.8	111.0	123.0
	증가율	-20.0	7.3	-16.8	-1.2	-35.4	-12.3
퇴직연금	금액	287.2	277.1	446.8	1,235.0	435.5	312.4
	증가율	-57.1	13.9	89.3	-16.9	94.5	8.8
	구성비	16.0	16.6	26.1	18.0	24.9	18.1
Defined Contributions(DC)	금액	150.1	87.4	83.9	426.3	84.5	96.4
	증가율	-41.8	7.0	-26.3	-48.6	-19.5	-35.8
보장성보험	금액	260.7	257.4	240.4	1,029.3	259.7	269.6
	증가율	-6.1	0.3	-4.1	-0.3	-4.0	3.4
	구성비	14.5	15.4	14.4	15.0	14.9	15.6
소계(A)	금액	1,799.2	1,671.7	1,704.0	6,846.6	1,746.2	1,722.1
	증가율	-15.3	10.6	0.3	-3.3	4.5	-4.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시납 신규보험료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투자 및 저축보험	금액	1,941.9	2,287.4	2,125.5	8,315.2	1,922.0	2,247.2
	증가율	-3.0	9.9	-11.0	-2.9	-2.0	15.7
	구성비	12.2	17.9	11.8	13.2	15.6	11.0
역외영업	금액	868.1	1,116.5	710.1	3,698.3	745.8	874.8
	증가율	-16.9	7.4	-31.3	-10.6	-7.4	0.8
변액연동채권	금액	506.9	506.4	475.0	2,075.3	459.8	463.7
	증가율	-8.0	-10.2	-20.0	-13.6	-16.3	-8.5
보증/배당채권	금액	10.4	9.4	768.7	794.9	712.8	903.5
	증가율	-97.4	-98.0	39.4	-58.7	10837.0	8611.4
퇴직연금계좌	금액	3,428.3	2,927.7	3,373.6	13,052.6	4,102.9	4,788.7
	증가율	-12.9	-9.2	4.5	-8.6	21.6	16.7
	구성비	21.6	22.9	18.7	20.8	33.1	23.4
Individual Pension	금액	1,982.1	1,954.6	2,016.3	7,872.7	3,114.3	3,645.6
	증가율	9.7	27.4	17.9	15.6	62.2	83.9
Personal Pension	금액	1,146.5	1,113.7	1,241.3	4,599.9	1,535.5	1,675.5
	증가율	-5.6	8.0	22.7	6.1	39.8	46.1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금액	113.7	77.7	79.9	376.5	128.4	135.7
	증가율	3.1	32.9	26.7	2.9	22.0	19.3
SIPP	금액	708.1	750.3	683.1	2,837.6	1,436.5	1,816.5
	증가율	52.1	75.1	10.3	39.7	106.4	156.6
Work-based Pensions	금액	1,446.3	973.1	1,357.3	5,179.9	988.6	1,143.1
	증가율	-32.2	-42.4	-10.6	-30.6	-29.5	-21.0
Group Personal Pension	금액	1,361.9	921.0	1,306.0	4,901.3	918.2	1,075.3
	증가율	-33.8	-43.6	-10.3	-30.3	-30.0	-21.0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금액	84.4	52.2	51.3	278.7	70.4	67.8
	증가율	14.6	-11.5	-16.0	-8.7	-22.5	-19.6
퇴직연금	금액	8,028.0	5,288.5	10,661.4	31,768.3	4,646.0	11,127.0
	증가율	99.2	-38.6	93.0	33.4	-40.4	38.6
	구성비	50.5	41.4	59.0	50.6	36.9	54.3
Trustee Investment Plans	금액	4,884.5	2,095.3	5,636.1	15,001.6	3,053.2	2,960.2
	증가율	87.4	-25.6	107.0	22.4	28.0	-39.4
Bulk Buyouts	금액	2,882.2	1,732.4	4,742.8	13,904.8	982.9	7,085.2
	증가율	151.9	-67.7	148.0	47.4	-78.4	145.8
보장성보험	금액	29.6	36.6	40.1	149.5	34.2	32.8
	증가율	-32.9	-33.1	-19.6	-24.3	-20.9	11.0
	구성비	0.2	0.3	0.2	0.2	0.3	0.2
퇴직소득보험	금액	2,562.2	2,330.8	1,954.4	9,897.8	1,768.8	2,294.3
	증가율	-27.3	-31.0	-38.1	-27.1	-42.0	-10.5
	구성비	15.5	17.5	10.3	15.2	14.1	11.2
소계(B)	금액	15,989.9	12,871.0	18,154.9	63,183.4	12,541.5	20,490.0
	증가율	18.1	-25.8	28.4	4.5	-22.4	28.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총계(A+B)	금액	17,789.2	14,542.7	19,858.8	70,030.1	14,287.8	22,217.1
	증가율	13.6	-22.8	25.3	3.7	-19.1	24.9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n.a.는 통계집계방식 변경에 의해 자료가 없는 경우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투자 및 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2015년 2/4분기 투자 및 저축 신규보험료는 역외영업 보험료가 저성장하였으나 투자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신규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함.
 - 일시납 투자 및 저축 보험종목은 투자 보험료가 27.8% 증가하였으며 역외영업 보험료도 0.8% 증가하면서 전체 신규보험료가 15.7% 확대됨.
 - 정기납 투자 및 저축 보험료는 생사혼합보험이 29.9% 증가하였으나 역외영업 보험료가 57.9% 감소하면서 전체 보험료가 13.5% 감소하였음.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2015년 2/4분기 퇴직연금계좌⁹⁾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정기납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가 8.4% 감소하였으나 일시납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가 39.7%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26.9% 늘어남.
- 2015년 2/4분기 정기납 퇴직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계좌(Individual Pension)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단체개인연금계좌(Work-based Pension)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함.
 - 정기납 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Personal Pension이 전년동기대비 29.6% 증가하고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도 9.0%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22.1% 확대됨.
 - 단체개인연금계좌(Work-based Pensions) 보험료는 Group Personal Pension의 판매가 10.3% 감소하고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도 11.6%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10.5% 축소됨.
- 2015년 2/4분기 일시납 퇴직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전분기와 같이 단체개인연금계좌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개인연금계좌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9.7% 확대됨.
 - 일시납 개인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규모가 가장 큰 Personal Pension 보험료가 전년

9) 퇴직연금계좌는 개인연금계좌(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 등)와 단체개인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s, Group SIPP 등)로 구분됨.

동기대비 46.1% 늘어나고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19.3%, 156.5%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83.9% 확대됨.

- 일시납 단체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1.0% 축소되었는데, 이는 규모가 가장 큰 Group Personal Pension 보험료가 21.0% 감소하고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보험료도 19.6% 줄어들었기 때문임.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2015년 2/4분기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¹⁰⁾ 전체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7.6% 증가한 114억 3,933만 파운드로 집계됨.

■ 2015년 2/4분기 정기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한 3억 1,236만 파운드임.

- 이는 정기납 퇴직연금에서 가장 비중이 큰 DC형 퇴직연금 신규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35.8%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종목들의 보험료가 증가한 데 기인함.

■ 한편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8.6% 확대된 111억 2,697만 파운드로 집계됨.

- 가장 비중이 큰 TIPs가 39.4% 감소하였으나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Bulk Buyouts¹¹⁾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348.1%, 377.9%, 145.8% 증가함.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2015년 2/4분기 보장성보험 전체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한 3억 244만 파운드로 집계됨.

■ 정기납 보장성보험료¹²⁾는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한 2억 6,961만 파운드임.

10) 퇴직연금은 Defined Benefits, Defined Contributions, Group AVCS, TIPs(Trustee Investment Plans), Buyouts 등으로 구분함.

11) DB형 퇴직연금 관리를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좌임.

12) 정기납 보장성보험(Protection Products)은 개인보험인 정기생명보험(Term Life), 종신보험(Whole Life), CI(Critical

- 모기지관련 정기보험이 11.8% 감소하였으나 종신보험이 20.1% 증가하면서 개인 보장성보험은 1.8% 늘었으며, 단체 보장성 신규보험료도 6.0%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확대됨.

■ 일시납 보장성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0% 증가한 3,283만 파운드였으며, 증가세로 전환됨.

〈퇴직소득보험 신규보험료〉

■ 2015년 2/4분기 일시납 퇴직소득보험¹³⁾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5% 감소한 22억 9,430만 파운드임.

- 소득인출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69.4% 증가하였으나, 규모가 큰 종신연금 신규보험료가 44.6%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 2015년 2/4분기 정기납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의 경우, 독립 자문 채널의 비중이 가장 크고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이었으며, 전년동기대비 독립 자문 비중만 확대됨.

- 전체 중 독립 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보다 6.3%p 증가한 74.8%였으며, 종목별로는 퇴직연금계좌의 독립 자문 채널 비중이 86.5%로 가장 컸음.
- 無자문 채널의 정기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전년동기대비 4.5%p 감소한 15.9%였으며,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 중 無자문 채널 비중이 68.4%로 가장 컸음.
- 제한적 자문 채널의 정기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전년동기보다 1.7%p 감소한 9.4%를 차지했으며, 종목별로는 보장성보험 중 비중이 15.4%로 가장 컸음.

■ 2015년 2/4분기 일시납 보험료 모집형태별 채널 비중 크기는 독립 자문,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동기대비 제한적 자문 비중만 감소함.

Illness), 소득보장(Income Protection)과 단체보험인 단체생명보험(Group Life), 단체CI(Group Critical Illness), 단체소득보장(Group Income Protection)보험으로 구분함.

13) 퇴직소득(Retirement Income)보험은 일시납 수령형태만 있으며, 종신연금(Pension Annuities),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나뉨.

- 일시납 전체 판매 중 독립 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3.8%p 늘어난 60.7%였으며, 종목별로 살펴보면 보장성보험 87.1%, 투자 및 저축보험 76.0%로 비중이 크고, 퇴직연금의 비중이 52.5%로 가장 작았음.
- 無자문 채널의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29.6%로 전년동기대비 3.6%p 증가하였으며, 종목별로는 동 채널의 비중이 퇴직연금의 경우 38.0%, 퇴직소득보험의 경우 36.4%를 차지함.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채널의 판매비중은 9.7%로 전년동기보다 7.4%p 감소했고,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중 동 채널의 비중이 21.7%로 비교적 컸고 퇴직연금계좌의 경우에는 2.7%로 가장 작았음.

〈표 7〉 2015년 2/4분기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독립 자문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 ¹⁾ (Restricted Advice)		無자문 ²⁾ (Non-advised)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투자 및 저축보험	19.2	76.0	12.4	21.7	68.4	2.3
퇴직연금계좌	86.5	74.2	8.1	2.7	5.4	23.1
퇴직연금	35.1	52.5	8.6	9.5	56.3	38.0
보장성보험	72.8	87.1	15.4	9.3	11.8	3.5
퇴직소득보험	-	53.0	-	10.6	-	36.4
전체 ³⁾	74.8	60.7	9.4	9.7	15.9	29.6

주: 1) 독립중개인(WoM), 단일 전속(Single Tied)과 다중 전속(Multi Tied)설계사 포함.

2) 보험회사의 직접 판매와 제3자 판매를 포함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3) 각 채널별 신규보험료를 합산하여 재계산함.

4) 비중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는 채널 파악이 안 된 경우로 보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2015년 2/4분기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신규보험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21.3% 감소한 2억 4,938만 파운드였음.

- 방카슈랑스를 통한 정기납 보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50.4% 축소된 1,578만 파운드였는데, 이는 보장성보험 보험료가 51.1% 감소하고 퇴직연금계좌 보험료도 49.6% 줄어든데 기인함.
-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 중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8.1% 감소한 2억 3,361만 파운드였으며, 이는 비중이 가장 큰 투자 및 저축 보험료가 2.7% 증가하였으나 역외영업 보험료가 19.9% 감소한데 기인함.

〈표 8〉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방카슈랑스 판매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정기납						일시납					
	2014				2015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2/4	3/4	4/4	연간	1/4	2/4
투자 및 저축보험	0.0 (6.1)	0.0 (-109.1)	0.1 (-11.4)	0.6 (-7.3)	0.1 (-55.7)	0.2 (-5.2)	4.3 (-96.3)	5.3 (-95.7)	124.7 (-2.8)	138.4 (-79.1)	117.9 (2815.4)	112.3 (2.7)
퇴직연금계좌	7.9 (-28.2)	6.2 (-70.4)	6.8 (-31.1)	32.8 (-36.1)	3.3 (-68.0)	4.0 (-49.6)	32.2 (2.0)	18.4 (-35.9)	17.1 (-46.2)	95.9 (-29.1)	16.8 (-40.7)	17.2 (-46.6)
퇴직연금	0.0 (n.a)	0.0 (0.0)	0.0 (0.0)	0.0 (1167)	0.4 (-)	0.0 (-57.1)	40.5 (4.3)	5.5 (-89.6)	3.7 (92.9)	104.5 (-48.0)	0.0 (-100.0)	2.6 (-91.1)
역외영업	0.0 (1.8)	0.1 (28.9)	0.0 (15.2)	0.2 (14.5)	0.0 (-11.1)	0.0 (-32.1)	76.6 (-15.3)	70.5 (-17.5)	72.1 (-40.4)	313.6 (-18.2)	62.6 (-33.6)	91.1 (-19.9)
보장성보험	23.7 (-20.4)	22.3 (-19.1)	17.0 (-38.2)	89.8 (-25.5)	16.1 (-40.0)	11.6 (-51.1)	5.9 (35.8)	4.0 (-32.7)	3.5 (-42.0)	17.8 (-17.5)	3.8 (-13.9)	3.6 (14.9)
퇴직소득보험 ¹⁾	-	-	-	-	-	-	20.7 (-53.5)	22.2 (-55.2)	15.7 (-64.5)	90.9 (-55.2)	8.9 (-72.2)	6.8 (-67.3)
전체	31.8 (-22.9)	28.5 (-41.5)	23.9 (36.2)	123.4 (-28.5)	20.5 (-47.7)	15.8 (-50.4)	180.1 (-44.6)	126.0 (-63.7)	236.8 (-38.4)	760.9 (-52.6)	210.0 (-3.6)	233.6 (-18.1)

주: 1) 별도 취합된 퇴직소득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를 합침.

2) () 안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통계집계변경으로 인해 2014년 1/4분기부터 표시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연간자료만 발표)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역외영업의 경우 투자·저축성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표시하지 않음.

○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은 퇴직자의 연금재원이 분배되는 단계의 보험으로서 종신연금(Pension Annuity)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보험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 동향¹⁴⁾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5 1/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은 개인연금 및 단체보험 신규계약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험 신규계약액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5.1% 성장하며 20조 7,104억 엔을 나타냄.

- 1/4분기 개인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생존보험은 줄어들었지만,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함.
 - 사망보험의 경우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신규계약액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8%, 10.9% 증가하며 성장세가 지속됨.
 - 생사혼합보험인 양로보험(정기양로보험 포함)과 기타 생사혼합보험의 신규계약액도 각각 전년동기대비 3.7%, 53.1% 증가한 반면, 생존보험의 신규계약액은 전년동기대비 32.5% 감소함.
- 한편, 1/4분기 개인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변액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액연금보험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5.7%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됨.
 - 1/4분기 변액연금보험 계약은 전년동기대비 21.8% 증가하였지만, 정액연금보험 계약은 전년동기대비 10.8% 감소함.
- 1/4분기 단체보험 신규계약액도 단체신용생명보험 계약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9.6% 감소한 9,383억 엔을 기록함.
 - 1/4분기 단체정기보험(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¹⁵⁾ 포함)의 신규계약액은 전년동기대비 72.8% 증가한 반면, 단체신용생명보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69.2% 감소함.

14)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1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15)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은 임직원 사망 시 또는 고도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을 말함.

〈표 9〉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

구분 ¹⁾		FY2014					FY2015
		1/4	2/4	3/4	4/4	연간	1/4
개 인	금액	165,379	173,735	177,931	181,996	699,041	177,605
	증가율	4.8	-0.2	-0.3	9.1	3.2	7.4
	구성비	83.9	86.5	87.1	85.1	85.6	85.8
사 망	금액	139,541	147,363	152,700	156,296	595,900	147,699
	증가율	7.1	2.2	5.3	10.1	6.1	5.8
	구성비	70.8	73.4	74.7	73.0	73.0	71.3
	정기보험	금액	71,808	78,434	80,119	80,630	310,991
	증가율	8.0	5.8	5.2	8.8	6.9	3.8
	종신보험	금액	33,940	36,711	39,048	42,385	152,084
	증가율	5.2	-8.1	7.1	15.8	4.7	10.9
	생사 혼합	금액	20,790	21,617	21,006	21,284	84,697
	증가율	-20.6	-24.2	-33.7	-6.8	-22.5	27.5
	구성비	10.5	10.8	10.3	9.9	10.4	12.8
양로보험 ²⁾	금액	11,691	12,518	11,138	11,442	46,789	12,120
	증가율	-14.6	-15.2	-16.2	-10.1	-14.1	3.7
	기타	금액	8,063	8,041	8,625	8,450	33,179
	증가율	-31.0	-37.5	-50.5	-7.5	-35.1	53.1
	구성비	2.6	2.4	2.1	2.1	2.3	1.6
생 존	금액	5,048	4,755	4,225	4,416	18,444	3,405
	증가율	260.6	230.2	159.4	120.4	184.9	-32.5
	구성비	2.6	2.4	2.1	2.1	2.3	1.6
	개인연금	금액	21,340	21,640	21,917	21,656	86,553
	증가율	34.0	21.1	14.2	-19.0	8.6	-5.7
	구성비	10.8	10.8	10.7	10.1	10.6	9.7
	정액연금	금액	18,011	17,075	17,782	17,151	70,019
	증가율	35.3	6.9	4.4	-29.2	-0.7	-10.8
	변액연금	금액	3,329	4,565	4,134	4,505	16,534
	증가율	27.2	139.6	92.5	78.6	79.9	21.8
단체보험	금액	10,376	5,380	4,529	10,324	30,609	9,383
	증가율	-0.5	32.6	-54.7	-49.2	-31.7	-9.6
	구성비	5.3	2.7	2.2	4.8	3.8	4.5
	단체정기 ³⁾	금액	4,358	4,360	3,326	8,843	20,888
	증가율	-56.4	26.8	-54.8	-38.4	-40.6	72.8
	단체신용생명	금액	6,018	1,020	1,203	1,481	9,722
	증가율	1,312.7	65.0	-54.6	-75.1	0.7	-69.2
	합계	금액	197,095	200,755	204,377	213,977	816,204
	증가율	7.0	2.4	-1.5	0.1	1.8	5.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생명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 구성비임.

2) 양로보험은 정기양로보험을 포함함.

3) 단체정기보험은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을 포함함.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5 1/4분기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규모는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매입금전채권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전신탁, 유가증권 등 주요 자산 규모 증가로 인해 전분기대비 0.4% 증가한 368조 6,683억 엔을 기록함.

〈표 10〉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1),2)}

(단위: 억 엔, %)

구분 ^{1),2)}	FY2014								FY2015	
	1/4		2/4		3/4		4/4		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41,816	-5.3	47,833	14.4	47,921	0.2	56,080	17.0	43,772	-21.9
단기자금	26,923	0.8	26,645	-1.0	31,163	17.0	36,730	17.9	29,610	-19.4
매입금전채권	26,559	2.7	26,923	1.4	27,738	3.0	27,908	0.6	27,724	-0.7
금전신탁	28,909	17.6	29,906	3.4	33,016	10.4	33,326	0.9	35,572	6.7
유가증권	2,864,775	0.5	2,928,616	2.2	2,990,051	2.1	2,994,295	0.1	3,027,827	1.1
- 국채	1,489,079	-0.6	1,495,263	0.4	1,490,328	-0.3	1,487,617	-0.2	1,491,066	0.2
- 지방채	140,116	0.0	139,861	-0.2	140,332	0.3	138,686	-1.2	137,297	-1.0
- 회사채	246,686	-0.9	247,828	0.5	249,524	0.7	248,553	-0.4	244,657	-1.6
- 주식	182,800	1.4	192,412	5.3	208,477	8.3	226,979	8.9	237,381	4.6
- 외화증권	638,222	3.9	688,462	7.9	737,440	7.1	732,805	-0.6	762,245	4.0
대출금	378,104	-0.8	373,651	-1.2	374,598	0.3	368,103	-1.7	365,089	-0.8
부동산	62,560	0.3	63,141	0.9	62,777	-0.6	62,410	-0.6	62,566	0.2
운용자산 ³⁾	3,457,515	0.3	3,525,635	2.0	3,597,370	2.0	3,609,993	0.4	3,623,009	0.4
비운용자산	62,650	8.4	60,185	-3.9	63,332	5.2	62,559	-1.2	63,674	1.8
총자산 ⁴⁾	3,520,165	0.4	3,585,820	1.9	3,660,702	2.1	3,672,552	0.3	3,686,683	0.4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전분기대비 증가율.

3)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4)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 1/4분기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매입금전채권 등의 자산 규모는 각각 전분기보다 21.9%, 19.4%, 0.7% 감소함.

○ 반면, 1/4분기 금전신탁은 전분기대비 6.7% 성장하였으며, 운용자산도 전분기대비 0.4% 증가함.

- 1/4분기 유가증권은 지방채와 회사채를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1.1% 성장하며 302조 7,827억 엔을 나타냄.
- 1/4분기 주식 규모의 경우 기업실적 개선 및 엔화 약세로 인해 4.6% 증가함.
- 반면, 국채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0.2% 증가하였지만 지방채와 회사채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1.0%, 1.6% 감소함.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5 1/4분기 손해보험의 경우 운송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원수보험료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8% 성장한 2조 3,367억 엔으로 집계됨.
- 1/4분기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였고,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5.8% 성장하며 증가세가 가속화됨.
- 동 기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1조 141억 엔으로 집계되었고,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5% 성장한 2,698억 엔으로 집계됨.
- 1/4분기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보험 수요가 회복하며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한 2,888억 엔이었음.
- 특종보험 중 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하였지만 이익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하며,¹⁶⁾ 특종보험 전체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한 3,089억 엔으로 집계됨.

16) 일본손해보험협회 자료.

〈표 11〉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엔, %)

구분 ^{2),3)}		FY2014					FY2015
		1/4	2/4	3/4	4/4	연간	1/4
화재	보험료	3,624	3,482	4,140	3,902	15,148	3,777
	증가율	5.6	-0.4	7.4	4.3	4.3	4.2
	구성비	16.1	16.2	18.6	17.8	17.2	16.2
해상	보험료	569	539	545	573	2,227	602
	증가율	1.2	2.1	2.6	5.1	2.8	5.8
	구성비	2.5	2.5	2.4	2.6	2.5	2.6
운송	보험료	172	152	157	160	642	172
	증가율	0.0	0.0	0.0	-1.8	-0.3	0.0
	구성비	0.8	0.7	0.7	0.7	0.7	0.7
자동차	보험료	9,740	9,417	9,714	9,768	38,639	10,141
	증가율	3.5	4.2	0.6	3.8	3.0	4.1
	구성비	43.3	43.9	43.6	44.5	43.8	43.4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582	2,487	2,549	2,671	10,289	2,698
	증가율	1.7	-3.8	1.2	3.4	0.6	4.5
	구성비	11.5	11.6	11.4	12.2	11.7	11.5
상해	보험료	2,824	2,643	2,639	2,267	10,373	2,888
	증가율	1.9	1.7	8.3	-2.5	2.4	2.3
	구성비	12.5	12.3	11.8	10.3	11.8	12.4
특종	보험료	3,004	2,737	2,535	2,622	10,898	3,089
	증가율	6.2	7.4	0.9	1.0	3.9	2.8
	구성비	13.3	12.8	11.4	11.9	12.4	13.2
합계	보험료	22,517	21,458	22,279	21,963	88,217	23,367
	증가율	3.7	2.4	2.8	2.8	3.0	3.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5 1/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현금 및 예금, 매입금전채권, 부동산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기자금과 환매조건부채권의 자산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분기대비 1.0% 성장한 31조 2,570억 엔으로 집계됨.

〈표 12〉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4								FY2015	
		1/4		2/4		3/4		4/4		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6,734	-21.8	9,175	36.2	9,507	3.6	9,288	-2.3	9,227	-0.7
단기자금		5,135	27.0	4,822	-6.1	3,363	-30.3	3,199	-4.9	4,422	38.2
환매조건부채권		3,294	21.6	5,059	53.6	6,674	31.9	1,735	-74.0	5,549	219.9
매입금전채권		1,617	16.9	1,800	11.3	2,137	18.7	4,453	108.4	3,785	-15.0
금전신탁		985	-17.5	1,145	16.2	1,291	12.7	1,353	4.8	1,391	2.8
유가 증권	국채	67,608	2.4	66,050	-2.3	65,576	-0.7	64,809	-1.2	61,555	-5.0
	지방채	3,368	-2.7	3,270	-2.9	3,213	-1.7	3,192	-0.6	3,073	-3.8
	회사채	24,688	-5.7	24,079	-2.5	24,287	0.9	24,075	-0.9	23,595	-2.0
	주식	68,727	2.1	72,069	4.9	75,959	5.4	82,164	8.2	84,334	2.6
	외화증권	53,696	1.5	55,551	3.5	57,514	3.5	58,968	2.5	59,564	1.0
	기타증권	2,329	-5.7	2,334	0.2	2,339	0.2	2,315	-1.0	2,560	10.6
	소계	220,416	0.9	223,353	1.3	228,889	2.5	235,523	2.9	234,680	-0.4
대출금		16,121	-0.8	15,743	-2.3	15,822	0.5	18,624	17.7	18,219	-2.2
부동산		10,150	-0.7	9,975	-1.7	9,895	-0.8	9,836	-0.6	9,777	-0.6
운용자산		264,453	0.6	271,072	2.5	277,578	2.4	284,011	2.3	287,050	1.1
비운용자산 ²⁾		25,736	-2.9	24,271	-5.7	25,461	4.9	25,593	0.5	25,519	-0.3
총자산		290,190	0.3	295,344	1.8	303,039	2.6	309,605	2.2	312,570	1.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 전분기대비 증가율로서,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1/4분기 현금 및 예금은 전분기대비 0.7% 감소한 9,227억 엔이었으며, 매입금전채권도 전분기대비 15.0% 감소한 3,785억 엔으로 집계됨.
- 반면, 단기자금과 환매조건부채권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38.2%, 219.9% 증가한 4,422억 엔, 5,549억 엔을 기록하였고 금전신탁 규모도 2.8% 증가함.
- 유가증권의 경우 1/4분기 주식과 외화증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채와 지방채, 회사채 등의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0.4% 줄어들음.
 - 1/4분기 국채와 지방채는 전분기대비 각각 5.0%, 3.8% 줄어들며 감소폭이 커졌으며, 회사채도 전분기대비 2.0% 감소함.
 - 주식의 경우 기업실적 개선 및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전분기대비 2.6% 성장하였고, 외화증권도 전분기대비 1.0% 증가함.
- 1/4분기 대출금은 일반대출금이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2.2% 감소하였고, 부동산은 전분기대비 0.6% 감소하며 감소세가 지속됨.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資金運用状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4. 중국 동향¹⁾

가. 중국 보험산업 총괄

〈수지상황〉

■ 2015년 2/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5,27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7.6% 증가함.

-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전체 수입보험료는 고성장세를 지속함.

■ 2015년 2/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한 1,893억 위안, 사업비는 21.0% 증가한 794억 위안으로 집계됨.

- 손해보험 및 인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모두 축소되면서 전체 지급보험금 증가율도 하락함.

〈표 13〉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수입보험료	금액	7,000	4,489	4,445	4,301	20,235	8,425	5,277
	증가율 ³⁾	35.9	2.9	13.4	13.5	17.5	20.4	17.6
인보험	금액	5,243	2,623	2,726	2,439	13,031	6,446	3,238
	증가율 ³⁾	44.1	-4.5	12.4	10.9	18.4	22.9	23.4
손해보험	금액	1,757	1,866	1,719	1,862	7,203	1,979	2,039
	증가율 ³⁾	16.1	15.6	15.0	17.0	16.0	12.6	9.3
지급보험금	금액	1,859	1,672	1,706	1,978	7,216	2,311	1,893
	증가율 ³⁾	24.9	13.4	10.3	16.1	16.1	24.3	13.2
인보험	금액	1,025	793	778	832	3,428	1,397	973
	증가율 ³⁾	35.2	11.7	13.0	34.8	23.6	36.3	22.7
손해보험	금액	834	879	928	1,147	3,788	915	920
	증가율 ³⁾	14.2	14.9	8.2	5.5	10.2	9.7	4.7
사업비	금액	613	656	671	857	2,796	699	794
	증가율 ³⁾	12.3	12.1	12.4	10.9	11.9	14.0	21.0

주: 1) 기간별 실적치 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7)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자산운용〉

- 2015년 2/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5.1% 증가한 11조 4,297억 위안으로 나타남.
 - 이 중 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4.8% 증가한 10조 3,685억 위안, 비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8.7% 증가한 1조 612억 위안임.
- 운용자산 중 예치금의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줄어든 반면, 투자금의 비중은 늘어났는데, 이는 중국 보험회사들이 주식과 대체자산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기 때문임.
 - 예치금은 2조 6,791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1.5% 증가하였으나 총자산대비 예치금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0.9%p 감소한 23.4%를 기록함.
 - 투자금은 7조 6,894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6.0%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66.7%에서 67.3%로 상승함.
 - 2015년 2/4분기 총자산대비 주식과 대체자산의 비중은 각각 13.6%, 22.7%로 전분기에 비해 1.5%p, 0.6%p 상승함.

〈표 14〉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운용자산계	금액	82,228	85,907	87,677	93,314	93,314	98,941	103,685
	증가율 ³⁾	7.0	4.5	2.1	6.4	21.4	6.0	4.8
	구성비	91.9	91.6	91.3	91.9	91.9	91.0	90.7
예치금	금액	25,031	25,618	25,095	25,311	25,311	26,386	26,791
	증가율 ³⁾	10.6	2.3	-2.0	0.9	11.8	4.2	1.5
	구성비	28.0	27.3	26.1	24.9	24.9	24.3	23.4
투자금	금액	57,197	60,288	62,582	68,004	68,004	72,555	76,894
	증가율 ³⁾	5.5	5.4	3.8	8.7	25.4	6.7	6.0
	구성비	63.9	64.3	65.1	66.9	66.9	66.7	67.3
비운용자산계 ⁴⁾	금액	7,231	7,831	8,399	8,277	8,277	9,762	10,612
	증가율 ³⁾	20.2	8.3	7.3	-1.5	37.6	17.9	8.7
	구성비	8.1	8.4	8.7	8.1	8.1	9.0	9.3
총자산	금액	89,459	93,737	96,076	101,591	101,591	108,703	114,297
	증가율 ³⁾	7.9	4.8	2.5	5.7	22.6	7.0	5.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분기대비.

4) 비운용자산은 미수금,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¹⁸⁾

〈수입보험료〉

■ 2015년 2/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3,23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3.4% 증가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축소되었으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도 확대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의 증가세는 확대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4년 2/4분기 10.8% 감소한 기저효과로 19.1% 증가하여 2,477억 위안을 기록함.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8.1% 증가한 594억 위안,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8.3% 증가한 168억 위안이었음.

■ 2015년 상반기 중국 자본시장의 호황으로 변액보험 및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은 모두 플러스로 나타남.

- 화바오증권(Hwa Securities)에 따르면 199개 변액보험 투자계정의 평균수익률은 25.0%로 나타남.
- ICBC-AXA Life 및 MetLife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연금보험¹⁹⁾의 수익률은 각각 9.9%와 9.1%였음.

18)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중국의 생명보험은 크게 전통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음. 배당금이 없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은 전통형 상품으로 통칭되며 투자형 상품은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 등이 해당됨.

19) 변액연금보험은 중국에서 2011년 8월부터 출시되었는데, 현재 이를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ICBC-AXA Life 및 MetLife 2개사가 있음.

〈표 15〉 인보험 수입보험료^{1),2),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보험료	5,243	2,623	2,726	2,439	13,031	6,446	3,238
	증가율 ⁴⁾	44.1	-4.5	12.4	10.9	18.4	22.9	23.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생명보험	보험료	4,607	2,080	2,216	1,998	10,902	5,633	2,477
	증가율 ⁴⁾	42.9	-10.8	9.0	8.9	15.7	22.3	19.1
	구성비	87.9	79.3	81.3	81.9	83.7	87.4	76.5
건강보험	보험료	492	401	367	327	1,587	652	594
	증가율 ⁴⁾	66.8	37.3	35.6	22.9	41.3	32.5	48.1
	구성비	9.4	15.3	13.5	13.4	12.2	10.1	18.3
상해보험	보험료	144	142	143	114	543	161	168
	증가율 ⁴⁾	21.0	14.5	17.5	17.5	17.6	11.8	18.3
	구성비	2.7	5.4	5.2	4.7	4.2	2.5	5.2

주: 1) 기간별 실적치 기준.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15년 2/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97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7% 증가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지급보험금은 각각 778억 위안, 162억 위안, 3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1.8%, 30.6%, 13.3% 증가함.

〈표 16〉 인보험 지급보험금^{1),2),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보험금	1,025	793	778	832	3,428	1,397	973
	증가율 ⁴⁾	35.2	11.7	13.0	34.8	23.6	36.3	22.7
생명보험	보험금	863	639	604	623	2,728	1,195	778
	증가율 ⁴⁾	34.0	7.6	8.1	36.4	21.1	38.5	21.8
건강보험	보험금	133	124	140	173	571	169	162
	증가율 ⁴⁾	49.4	34.8	38.3	34.9	38.9	27.1	30.6
상해보험	보험금	29	30	34	35	128	33	34
	증가율 ⁴⁾	16.0	25.0	18.2	11.9	17.3	13.8	13.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적치.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5년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1/4분기와 비교할 때 소폭 하락한 데 반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상승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4.4%로 전분기에 비해 0.2%p 하락하였으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5.4%에서 5.6%로 상승함.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ICBC-AXA Life, AIA China, Generali China로 나타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²⁰⁾의 시장점유율은 57.2%로 전분기에 비해 3.1%p 하락함.

20)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는 중국런쥔생명, 중국핑안생명, 중국타이핑양생명, 신화생명, 중국국민인생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5.9%, 13.5%, 7.9%, 6.6%, 3.2%임(2015년 2/4분기 기준).

〈표 17〉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사	65.8	58.9	60.7	61.1	62.5	60.3	57.2
		중·소형사 ³⁾	30.5	33.9	32.3	31.7	31.8	34.3	37.3
		소계	96.3	92.8	93.0	92.7	94.2	94.6	94.4
	외국계		3.7	7.2	7.0	7.3	5.8	5.4	5.6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 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5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 2015년 2/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03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함.

○ 손해보험 주력상품인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축소되면서 손해보험 수입보험의 증가율도 하락하였음.

- 2015년 2/4분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은 -1.0%로 전분기 3.9%에 비해 4.9%p 하락하였음.

〈표 18〉 손해보험 수입보험료^{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료 ³⁾	1,757	1,866	1,719	1,862	7,203	1,979	2,039
	증가율 ⁴⁾	16.1	15.6	15.0	17.0	16.0	12.6	9.3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15년 2/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92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함.

- 기업재산보험, 농업보험 등 비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축소되면서 전체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도 전분기에 비해 축소됨.

〈표 19〉 손해보험 지급보험금^{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금 ³⁾	834	879	928	1,147	3,788	915	920
	증가율 ⁴⁾	14.2	14.9	8.2	5.5	10.2	9.7	4.7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5년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1/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 데 반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상승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0.2%p 하락한 97.9%로 나타났으나,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1.9%에서 2.1%로 상승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상위 3사²¹⁾의 시장점유율은 64.2%로 전분기에 비해 0.8%p 하락함.
-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AXA Tianping P&C, AIG, Groupama-Avic로 조사됨.

21)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중국런민재산, 중국핑안재산, 중국타이핑양재산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3.5%, 19.9%, 11.6%임(2015년 1/4분기 기준).

〈표 20〉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사	65.5	64.8	65.8	62.8	64.7	65.0	64.2
		중·소형사 ³⁾	33.3	32.5	32.0	34.4	33.1	33.1	33.8
		소계	98.9	97.3	97.8	97.1	97.8	98.1	97.9
	외국계		1.1	2.7	2.2	2.9	2.2	1.9	2.1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 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3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라. 연금보험²²⁾

■ 2015년 2/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24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75.9% 크게 증가하였고, 누적 운용보험료는 3,837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10.3% 증가함.

○ 2014년 2/4분기 연금보험회사 수탁보험료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는 2015년 2/4분기 연금보험회사 수탁보험료 증가율이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표 21〉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수탁보험료 ²⁾	금액	166	141	133	168	607	256	248
	증가율 ²⁾	-0.6	-3.4	0.1	17.4	3.1	54.2	75.9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2,648	2,804	2,949	3,160	3,160	3,479	3,837
	증가율 ³⁾	6.1	5.9	5.2	7.2	26.6	10.1	10.3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수탁보험료는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3) 전분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2) 중국은 2004년 4월부터 연금보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연금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연금보험회사를 정식으로 허용함. 현재까지 중국 내에 설립된 연금보험회사는 타이핑, 평안, 린쇼우, 장장, 타이강 등 5개 회사임.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투자형 상품인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형 상품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신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다를 수 있음.

부 록 I. 통계표

〈부록 표 I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3/4	4/4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성장률		3.2	3.5	3.9	3.4	3.3	2.7	2.5	2.2
경상수지		22,250	23,936	15,186	24,240	22,566	27,228	23,455	28,863
수출		136,791	146,367	137,536	145,672	141,759	147,697	133,439	135,139
수입		126,034	133,062	132,366	130,957	132,840	129,351	111,843	110,543
실업률		3.0	2.8	4.0	3.7	3.3	3.2	4.1	3.8
금리	국고채(3년)	2.92	2.90	2.87	2.82	2.50	2.17	1.98	1.80
	회사채(3년)	3.33	3.33	3.30	3.25	2.89	2.51	2.26	2.04
소비자물가지수		107.87	107.84	108.76	109.13	109.36	108.90	109.37	109.71
환율	원/달러	1,112.18	1,062.10	1,069.01	1,030.38	1,025.76	1,086.72	1,100.26	1,097.77
	원/엔화	1,124.22	1,058.26	1,039.62	1,008.72	988.33	949.95	923.39	904.73
KOSPI		1,917.71	2,009.31	1,946.13	1,993.47	2,041.86	1,948.13	1,964.87	2,094.02
외환보유고		336,922	346,460	354,341	366,546	364,407	363,593	362,750	374,749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분기평균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부록 표 I-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3/4	4/4	1/4	2/4	3/4	4/4	1/4	2/4	3/4
보험 ¹⁾	138,497	167,547	133,551	145,570	135,769	196,083	139,618	184,247	-
- 생보	108,554	135,447	101,936	110,963	104,478	165,865	104,840	114,114	-
수입보험료	240,001	287,363	257,467	264,960	255,554	327,771	273,358	278,525	-
지급보험금	131,447	151,916	155,531	153,998	151,076	161,906	168,518	164,412	-
- 손보	29,943	32,100	31,615	34,607	31,291	30,218	34,778	70,133	-
원수보험료	171,156	192,842	183,082	180,217	179,023	223,433	193,204	385,360	-
원수손해액	141,213	160,742	151,466	145,610	147,732	193,215	158,425	315,227	-
은행	-31,782	229,979	272,496	250,005	76,442	391,862	138,338	370,258	407,283
- 일반 ²⁾	-40,955	128,580	199,612	231,527	32,411	314,189	28,931	327,515	338,489
- 신탁	9,173	101,399	72,884	18,478	44,031	77,673	109,407	42,743	68,794
증권 ³⁾	-5,597	-47,513	6,904	19,088	53,478	-6,648	65,495	55,742	-3,238
자산운용 ⁴⁾	-9,264	-41,835	96,918	16,946	196,161	160,044	278,994	163,004	80,769
종금 ⁵⁾	1,082	2,444	8,863	2,733	826	3,420	-6,816	8,403	5,195

주: 1)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총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 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 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부록 표 I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 추이^{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1/4	2/4
생존	보험료	55,496	162,636	58,006	60,647	58,776	62,910	240,340	62,882	61,157
	증가율	-39.2	-32.0	-40.6	14.1	8.9	13.4	-7.6	8.4	0.8
	구성비	19.3	21.1	22.5	22.9	23.0	19.2	21.7	23.0	22.0
사망	보험료	80,289	238,660	81,286	82,133	83,131	85,238	331,788	89,041	88,434
	증가율	4.0	3.8	3.6	4.1	4.6	6.2	4.6	9.5	7.7
	구성비	27.9	30.9	31.6	31.0	32.5	26.0	30.0	32.6	31.8
생사 혼합	보험료	45,910	139,738	50,697	51,639	49,171	49,038	200,544	51,932	53,500
	증가율	-13.2	-9.0	-25.5	8.5	6.4	6.8	-3.5	2.4	3.6
	구성비	16.0	18.1	19.7	19.5	19.2	15.0	18.1	19.0	19.2
변액 보험	보험료	51,498	155,443	51,884	51,246	51,622	51,957	206,709	51,122	53,539
	증가율	-2.5	-0.9	-6.2	-2.5	0.5	0.9	-1.9	-1.5	4.5
	구성비	17.9	20.1	20.2	19.3	20.2	15.9	18.7	18.7	19.2
개인계	보험료	233,194	696,477	241,873	245,665	242,701	249,143	979,382	254,977	256,631
	증가율	-15.0	-10.6	-19.2	5.8	5.0	6.8	-1.7	5.4	4.5
	구성비	81.1	90.2	93.9	92.7	95.0	76.0	88.6	93.3	92.1
단체	보험료	54,169	75,891	15,594	19,295	12,853	78,629	126,371	18,381	21,895
	증가율	38.6	25.7	13.2	51.2	43.5	45.2	45.8	17.9	13.5
	구성비	18.9	9.8	6.1	7.3	5.0	24.0	11.4	6.7	7.9
합계	보험료	287,363	772,367	257,467	264,960	255,554	327,771	1,105,753	273,358	278,525
	증가율	-8.3	-8.0	-17.8	8.1	6.5	14.1	1.9	6.2	5.1

주: 1) 단체보험에는 특별계정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됨.

2)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3)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FY2013은 2013년 4~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수치와 비교함.

5)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I-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1),2),3)}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1/4	2/4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29,850	82,379	30,778	30,000	31,034	33,554	125,365	33,783	34,524
	증가율	3.0	1.0	7.4	15.0	17.4	12.4	12.9	9.8	15.1
	지급률	53.8	50.7	53.1	49.5	52.8	53.3	52.2	53.7	56.5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44,217	129,944	45,364	41,527	42,686	43,569	173,147	44,961	42,363
	증가율	4.6	1.7	-1.3	-3.1	-0.4	-1.5	-1.6	-0.9	2.0
	지급률	55.1	54.4	55.8	50.6	51.3	51.1	52.2	50.5	47.9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27,710	80,527	32,856	30,000	29,169	28,512	120,537	32,693	29,682
	증가율	19.6	4.1	18.9	8.5	15.9	2.9	11.4	-0.5	-1.1
	지급률	60.4	57.6	64.8	58.1	59.3	58.1	60.1	63.0	55.5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32,989	87,188	28,805	32,993	33,595	29,620	125,012	33,278	37,211
	증가율	6.8	-1.5	-5.0	26.0	19.9	-10.2	6.4	15.5	12.8
	지급률	64.1	56.1	55.5	64.4	65.1	57.0	60.5	65.1	69.5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34,766	380,038	137,803	134,520	136,484	135,255	544,062	144,715	143,780
	증가율	7.5	1.3	4.0	9.6	11.4	0.4	6.1	5.0	6.9
	지급률	57.8	54.6	57.0	54.8	56.2	54.3	55.6	56.8	56.0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17,151	38,964	17,728	19,478	14,592	26,651	78,449	23,803	20,631
	증가율	-5.1	-10.6	21.8	51.6	62.8	55.4	46.6	34.3	5.9
	지급률	31.7	51.3	113.7	100.9	113.5	33.9	62.1	129.5	94.2
전체	지급보험금	151,916	419,002	155,531	153,998	151,076	161,906	622,511	168,518	164,412
	증가율	5.9	0.0	5.7	13.5	14.9	6.6	10.0	8.4	6.8
	지급률	52.9	54.2	60.4	58.1	59.1	49.4	56.3	61.6	59.0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4) FY2013은 2013년 4~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5) 2014년 연간치 증가율은 2013년 1~12월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1),2),3),4)}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⁶⁾	1/4	2/4	3/4	4/4	연간 ⁷⁾	1/4	2/4
생존 보험	사업비	8,742	24,530	7,572	8,116	7,566	8,482	31,737	7,907	7,623
	증가율	-13.9	-16.0	-27.2	3.3	-4.6	-3.0	-9.1	4.4	-6.1
	사업비율	15.8	15.1	13.1	13.4	12.9	13.5	13.2	12.6	12.5
사망 보험	사업비	25,309	72,174	23,332	25,941	24,297	27,531	101,100	25,238	25,608
	증가율	7.1	6.5	-7.7	12.1	2.4	8.8	3.7	8.2	-1.3
	사업비율	31.5	30.2	28.7	31.6	29.2	32.3	30.5	28.3	29.0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4,908	14,148	4,378	4,505	4,400	4,548	17,830	4,102	3,977
	증가율	-19.6	-20.3	-26.4	-4.4	-2.9	-7.3	-11.3	-6.3	-11.7
	사업비율	10.7	10.1	8.6	8.7	8.9	9.3	8.9	7.9	7.4
개인 보험계	사업비	38,958	110,852	35,282	38,562	36,263	40,560	150,667	37,247	37,209
	증가율	-2.3	-3.4	-15.2	8.0	0.2	4.1	-1.2	5.6	-3.5
	사업비율	16.7	15.9	14.6	15.7	14.9	16.3	15.4	14.6	14.5
단체 보험계	사업비	1,334	3,422	1,059	1,267	994	1,127	4,447	986	958
	증가율	17.4	-1.3	-13.3	26.1	-8.1	-15.5	-4.2	-6.8	-24.4
	사업비율	2.5	4.5	6.8	6.6	7.7	1.4	3.5	5.4	4.4
전체	사업비	40,292	114,274	36,341	39,830	37,257	41,687	155,115	38,234	38,167
	증가율	-1.8	-3.3	-15.2	8.5	0.0	3.5	-1.3	5.2	-4.2
	사업비율	14.0	14.8	14.1	15.0	14.6	12.7	14.0	14.0	13.7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율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임.

4)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6) FY2013은 2013년 4~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7) 2014년 연간치 증가율은 2013년 1~12월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추이^{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⁴⁾	1/4	2/4
화재	보험료	2,413	759	739	703	905	3,106	728	736
	증가율	-2.9	-6.1	-2.1	-4.3	-1.9	-3.6	-4.0	-0.4
	구성비	0.4	0.4	0.4	0.4	0.4	0.4	0.4	0.4
해상	보험료	6,016	1,747	1,927	1,839	1,830	7,343	1,880	1,837
	증가율	-10.7	17.0	-9.2	-18.5	11.7	-2.2	7.6	-4.7
	구성비	1.1	1.0	1.1	1.0	0.8	1.0	1.0	1.0
자동차	보험료	97,435	32,377	33,665	34,259	35,183	135,484	35,298	37,269
	증가율	0.4	3.2	4.1	6.4	6.9	5.2	9.0	10.7
	구성비	18.1	17.7	19.1	19.1	15.7	17.7	18.3	19.4
보증	보험료	11,238	3,842	3,651	3,611	4,048	15,152	3,898	4,054
	증가율	-4.8	-4.3	-3.9	4.3	1.8	-0.6	1.5	11.0
	구성비	2.1	2.1	2.1	2.0	1.8	2.0	2.0	2.1
특종 ²⁾	보험료	37,172	12,566	13,099	11,533	12,793	49,991	13,347	13,651
	증가율	2.4	2.6	0.3	-1.2	2.9	1.2	6.2	4.2
	구성비	6.9	6.9	7.3	6.4	5.7	6.5	6.9	7.1
해외 원보험	보험료	4,840	1,376	1,455	1,442	1,559	5,832	1,217	1,122
	증가율	40.0	-3.0	4.7	-14.6	-11.5	-6.8	-11.5	-22.9
	구성비	0.9	0.8	0.8	0.8	0.7	0.8	0.6	0.6
장기 손해	보험료	315,478	110,858	109,526	111,241	112,412	444,037	116,499	115,632
	증가율	5.6	7.5	6.1	4.9	5.9	6.1	5.1	5.6
	구성비	58.7	60.6	60.8	62.1	50.3	58.0	60.3	60.2
개인 연금	보험료	31,829	10,349	10,247	10,200	10,295	41,090	10,066	10,015
	증가율	3.1	-2.6	-3.5	-3.5	-3.2	-3.2	-2.7	-2.3
	구성비	5.9	5.7	5.7	5.7	4.6	5.4	5.2	5.2
퇴직 연금	보험료	31,152	9,209	5,905	4,195	44,408	63,718	10,270	7,840
	증가율	9.8	106.1	-5.5	66.0	98.5	78.9	11.5	32.8
	구성비	5.8	5.0	3.3	2.3	19.9	8.3	5.3	4.1
계	보험료	537,582	183,082	180,217	179,023	223,433	765,754	193,204	192,156
	증가율	4.2	8.0	3.8	4.6	15.9	8.3	5.5	6.6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고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됨.

3) FY2013은 2013년 13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4)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I-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1),2),3)}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1/4	2/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73.2	50.2	53.4	45.4	66.6	43.5
	사업비율	50.0	43.7	48.1	44.3	55.1	49.7
	합산비율	123.2	93.9	101.5	89.7	121.7	93.2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89.5	18.5	44.3	85.4	55.1	70.1
	사업비율	36.3	27.1	36.8	45.5	25.1	20.0
	합산비율	125.8	45.6	81.1	130.9	80.1	90.1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72.5	7.4	70.8	41.6	81.5	50.3
	사업비율	13.1	15.1	11.0	20.0	38.3	17.0
	합산비율	85.6	22.5	81.8	61.5	119.8	67.3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9.2	71.0	67.7	66.5	65.1	67.1
	사업비율	19.6	16.9	19.7	19.4	21.5	17.3
	합산비율	88.8	87.9	87.4	85.9	86.6	84.4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64.6	89.4	98.1	124.7	84.2	135.0
	사업비율	42.1	49.7	40.7	62.2	52.3	58.2
	합산비율	106.7	139.1	138.8	186.9	136.5	193.2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72.9	45.1	67.1	83.2	50.2	61.7
	사업비율	29.4	28.1	27.6	29.3	30.2	30.6
	합산비율	102.3	73.2	94.8	112.5	80.5	92.3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84.0	84.4	89.3	95.5	85.6	84.8
	사업비율	20.8	19.8	19.4	19.4	19.7	19.8
	합산비율	104.8	104.2	108.7	114.9	105.3	104.6
장기보험 ³⁾	경과손해율	85.1	84.4	85.2	86.1	86.0	84.5
	사업비율	18.0	17.9	18.0	18.5	18.2	18.1
	합산비율	103.1	102.3	103.2	104.7	104.1	102.5
전체	경과손해율	83.3	80.6	83.9	85.6	83.6	82.3
	사업비율	19.1	18.7	18.8	19.4	19.6	18.9
	합산비율	102.3	99.3	102.7	105.1	103.2	101.1

주: 1) 개인연금, 퇴직보험, 그리고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3) 경과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4)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금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부 록 Ⅱ.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40호 (7. 6)	2014년 세계 보험산업 현황과 전망 (채원영) · 2014년 세계 실질 수입보험료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른 선진시장 생명보험 실적 개선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한 4조 7,782억 달러를 나타냄. · 우리나라의 2014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4.7% 증가한 1,595억 달러로 세계 8위, 보험밀도는 3,163달러로 세계 19위, 그리고 보험침투도는 11.3%로 세계 4위를 기록함. (Swiss Re 등)
제340호 (7. 6)	그리스디폴트 사태와 금융위기 우려 국가들 (이해량) · 2015년 6월 30일 그리스는 디폴트를 선언하였고, 현재 시장은 향후 그리스와 채권단 간 협상 재개 및 그렉시트(Grexit: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에 주목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그리스 외에도 여러 국가들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졌음을 지적하며, 향후 미국 금리인상 시 발생할 파급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전문가들은 그리스 디폴트의 주변국 전염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신흥국 금융위기와 맞물려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해야 함. (WSJ, FT 등)
제341호 (7. 13)	글로벌 조세 제도 변화와 보험회사의 대응방안 (이아름) · 세계적으로 조세 제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제도 변화에 따른 조세 비용 관리 및 위험 관리는 보험회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G20과 OECD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음. · 향후 보험회사들은 조세, 리스크 관리, 회계처리 및 재정 시스템을 통합하고 국제 조세 제도 변화에 따라 기업 전략을 조정하며, 조세 제도 변화에 대비해야 될 것임. (PwC 등)
제341호 (7. 13)	중국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동향 (이소양) · 중국 보험회사들은 해외진출에 소극적이었으나 2013년 이후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투자수익률 제고는 중국 보험회사 해외진출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 전문가들은 중국 보험회사의 경쟁력이 해외진출로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부족한 경험과 노하우 등의 문제로 사업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함. (WSJ, Sina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42호 (7. 20)	그리스 사태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김진익) · 그리스 사태는 유럽 금융시장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 보험회사들은 그리스 사태로 초래된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다만 우려되는 점은 잠재적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인접 유로존 국가의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고,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정부로 초래된 좌파적 성향이 인접 유로존 국가에 정치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데 있음. (A.M. Best, 로이터 등)
제342호 (7. 20)	일부 신흥국 보험시장 동향 및 특징 (최원) · 신흥국 가운데 멕시코, 인도네시아, 케냐, 터키, 베트남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됨. · 해당 신흥국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판매채널 측면에서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글로벌 보험회사에서 강하게 나타남. · 보험상품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금융지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화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개발 능력을 보유한 보험회사들이 약진하는 모습을 보임. (Timetric 등)
제342호 (7. 20)	글로벌 푸드 시스템 충격의 영향과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이성은) · 세계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식량에 대한 세계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글로벌 푸드 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기상이변의 증가는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식량 생산에 대한 충격은 더 나아가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식량 공급과 관련한 충격은 산업의 여러 영역에서 보험수요를 증가시켜 보험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시스템 충격 회복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Lloyd's, FAO 등)
제343호 (7. 27)	유럽 보험회사의 비용 구성 현황과 시사점 (채원영) · Mckinsey가 유럽지역 80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사업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업무영역에서 상위 25% 그룹과 하위 25% 그룹의 계약당 사업비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비용차이에는 보험회사의 규모, 판매채널, 상품 구성, 사업 지역 등 회사업무의 기본적인 요소보다는 판매지원, 운영 모형, IT 등 경영기능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Mckinsey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43호 (7. 27)	저금리 환경에서 주목받는 대체투자 (이해랑) ·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기대보다 늦춰지면서 보험회사의 투자 수익률 역시 저하되고 있음. · 이에 보험회사의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대체투자가 제시되고 있으며, 대체투자 대상으로는 부동산, 메자닌펀드(Mezzanine funds), 비유동성 신용기금(Illiquid credit fund), 프라이빗 에쿼티(Private equity), 헤지펀드(Hedge funds) 등이 있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최근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는 다양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Towers Watson 등)
제344호 (8. 3)	2015년 기술 발전에 따른 보험산업 변화 (이아름) · Deloitte는 최근의 기술 발전이 과거와는 달리 보험회사와 소비자 생활을 급속도로 연계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보험산업의 동향을 발표함. · 기술 발달에 따라 보험산업에서도 디지털 마케팅이 활성화되며 소비자도 더욱 이해하기 쉽고 개별화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소비자 중심의 상품 개발과 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 (Deloitte 등)
제344호 (8. 3)	글로벌 소액보험시장의 현황과 과제 (김현경) · 소액보험시장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험회사들은 소액보험 공급을 통한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소액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와 고비용 구조로 수익성을 추구하기 어려움. · 소액보험사업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고객 특성에 적합한 채널과 협력하여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임. (Timetric 등)
제344호 (8. 3)	북미 보험회사 CRO(Chief Risk Officer) 인터뷰 결과 (최원) · 최근 북미 보험회사 CRO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보험산업이 직면한 리스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본규제 등 규제환경 변화라는 응답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음. · 또한, 인터뷰 대상자의 74%가 ORSA 도입과 ORSA 보고서 작성이 보험회사에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 우리나라도 최근 자기자본 규제 감독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어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책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EY 등)
제345호 (8. 10)	영국 손해보험산업에서 디지털기술이 주는 위협과 기회 (김진영) · 영국에서는 디지털기술로 무장한 신규 기업들이 보험상품개발, 판매채널, 중개 등 손해보험산업의 여러 분야에 진출함에 따라, 기존 손해보험회사들은 디지털기술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위협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선도적인 활용을 통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힘. · 손해보험회사들, 특히 기존 손해보험회사들은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기회를 살리기 위해 혁신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영국 Deloitte)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45호 (8. 10)	중국 상호보험회사 관련 규제 완화와 시사점 (이소양) · 2015년 2월 2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상호보험회사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허용함. · 중국 보험시장이 보험업무 재개 이후 급성장하였으나 보험소비자의 보험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았으며 향후 상호보험회사의 증가가 보험산업의 이미지 개선 및 신뢰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전문가들은 중국 상호보험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며 향후 상호보험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CIRC, CICC 등)
제346호 (8. 17)	글로벌 장기금리가 신흥국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채원영) · 저금리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금의 신흥국 국채 보유와 신흥국 기업의 달러표시 채권 발행과 외화차입 증가로 글로벌 장기금리에 대한 신흥국의 민감도는 증가하였음. · 글로벌 장기금리는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이외에도 인구고령화 글로벌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미국과 상반되어 신흥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증가하였음. (BIS 등)
제346호 (8. 17)	건강보험산업 영향 요인 및 보험회사의 대응방안 (이해랑) · EY는 디지털 기술 발달과 생활여건 변화가 건강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건강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만성질환 증가, 모바일 기술의 발전(Mhealth technology), 빅데이터, 소비자중심의 보험경영 등을 언급함. · 보험회사는 소비자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 데이터 활용 및 분석 기술 강화, 디지털 기술 및 건강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 등을 강화해야 함. (EY 등)
제347호 (8. 24)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원인과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 (이아름) · Financial Times(FT)는 최근 중국 위안화 가치 급락에 따른 충격이 유로지역과 일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함. · 수출 경기 부양 및 위안화 국제화, 외환보유액 감소세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위안화 추가 절하 가능성이 있음. · 추가 위안화 평가절하 충격에 따른 신흥국 통화 절하 효과가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임. (FT 등)
제347호 (8. 24)	미국 보험회사 성장 전략과 위험 (최원) · A.M. Best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저성장 극복을 위한 노력 가운데 위험인수 기준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가장 우려함. · 특히, 건강보험회사들은 신상품 개발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고객층 확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수요 개발 등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A.M. Best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48호 (8. 31)	서구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과 시사점 (김진익) ·미국, 독일, 영국 등 서구 밀레니엄 세대의 특성을 분석하고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별로 다른 보험가입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구 밀레니엄 세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상황, 인구 변화, 보험 상품에 대한 인식 등에 차이가 있는 등 각국별 고유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의 경우도 밀레니엄 세대의 고유의 특성을 분석하고 상품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Gen Re)
제348호 (8. 31)	미국 시장의 보험테크(Insurance-tech) 스타트업 동향과 시사점 (이아름) ·최근 미국 핀테크(Fintech) 시장 중 보험테크(Insurance-tech)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미국의 경우 2010년 승인된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보험법(PPACA)』이 건강보험 관련 보험회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반수의 보험테크 스타트업은 건강보험 관련 상품에 주력하고 있음. ·국내 보험회사도 새로운 IT기술과 건강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사업 기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부도 보험회사의 규제완화와 지원에 힘써야 함. (CB Insights 등)
제349호 (9. 7)	자동차보험산업의 이슈와 전망 (채원영) ·Scor Re는 서유럽지역 주요국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텔레매틱스 운전자성향보험(UBI) 확산, 자동차의 기계적 고장을 보장해주는 상품(Mechanical Breakdown Insurance), 그린카드(Green Card), 무인 자동차 등의 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발표하였음. (Scor Re 등)
제349호 (9. 7)	정신질환의 증가추세와 보험산업 (이해랑)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7억 2천만 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정신질환 관련 의료비용도 증가하는 추세임. ·정신질환은 자살률, 사고율, 질병 발생률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험산업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질병임.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 가입 심사 시 정신질환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전문 인력 보충, 경험적 데이터 수집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 외에도 정신질환에 의해 유발되는 사망률 및 질병 발생률 등 정신질환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시해야 함. (Gen Re, WHO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50호 (9. 14)	미국 건강보험회사 M&A 가속화와 시사점 (최원) · 2014년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M&A를 통한 미국 건강보험회사들의 시장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건강보험회사들이 M&A를 통한 규모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수익성 제고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임. · 건강보험회사들은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M&A 전략을 활용함. (A.M. Best 등)
제350호 (9. 14)	중국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성장 현황과 전망 (이소양) · 2009년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가 은행의 보험산업 진입을 허용한 후 2015년 8월까지 중국시장에서 7개의 은행계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음. · 방카슈랑스 관련 규정 시행으로 전체 생명보험회사들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계 생명보험회사들은 모회사의 지원에 힘입어 고성장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기존의 대형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중국 생명보험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CIRC, Sina 등)
제350호 (9. 14)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성은) · 최근 ① 스마트폰의 발달, ②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제성 증가, ③ 사물인터넷의 성장에 따라 홈 네트워크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서비스와 홈 네트워크 시스템 결합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금전적인 혜택뿐 아니라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할 수 있음. · 보험회사 운영 측면에서 볼 때 보험회사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익성 개선뿐 아니라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ccenture, WSJ 등)
제351호 (9. 21)	미국 밀레니엄 세대의 부상과 보험회사 대응 (김진역) · 2015년 1/4분기 미국에서는 밀레니엄 세대의 비중이 X세대를 넘어서 최대 인구집단으로 등극하면서 동세대의 인구학적 특성이 미치는 경제적, 산업적, 정치적 영향이 새로이 조명받고 있음. · 금융산업 측면에서 볼 때 동세대는 생명보험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금융회사에 대한 낮은 신뢰성을 가지며, 보험회사 유통 채널 등 마케팅상의 이유로 보험가입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주요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밀레니엄 세대와의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일종의 실험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음. (U.S.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LIMRA, FC Business Intelligence, CNBC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51호 (9. 21)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의 신흥국진출 현황 (이소양) ·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은 저성장 및 저금리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 개척을 위해 신흥국 보험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2014년 HGM에서 일부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의 손해보험 영업실적은 부진하였으나 대다수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은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록함. · 최근 일부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신흥국 보험시장에서 사업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A,M, Best, Swiss Re 등)
제352호 (9. 28)	2015년 상반기 글로벌 보험산업 M&A 현황과 특징 (채원영) · 2015년 상반기 글로벌 보험산업 M&A는 손해보험산업(건강보험 포함)을 중심으로 2014년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음. ·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M&A 거래규모 차이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저성장·저금리 환경 장기화에 대한 업권별 대응전략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저성장 및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진출, 핵심사업 집중 등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Scor Re 등)
제352호 (9. 28)	운송네트워크회사와 보험산업 (이해랑) · 운송네트워크회사에 등록된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 운송네트워크회사는 운전자의 어플리케이션 접속 시점과 고객 승차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어 보험사 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운송네트워크회사와 관련한 보험상품 개발에 있어 보험회사들은 업계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경험적 데이터 수집, 운송네트워크회사 서비스 이용자들의 명확한 행태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 적합한 보험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A,M,Best, NAIC 등)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김석영, 김진익, 최원, 채원영, 이아름, 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김경환,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조재린, 이경아 2015.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보험 도입 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①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이상우, 최원 2013. 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강민규, 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오승연, 이상우, 최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김세중,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조영현,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조재린,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황진태, 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 김유미 2015.8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원, 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 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정원석, 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 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박춘원, 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박선영, 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 김미화 2015.5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2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3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4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5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6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7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영문발간물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를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황인창,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류건식, 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56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이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5년 가을호 (통권 75호)

발행일	2015년 11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등 록	2015년 4월 30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19)
주 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73, 3775-909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